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08.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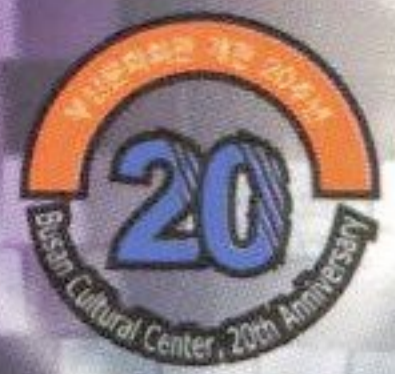
Vol. 204

예술에의 초대

부록 부산문화회관 12월 공연캘린더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기념 기획공연

뮤지컬 제너두

XANADU

올리비아 뉴튼존의 아름다운 음악과 환상적인 롤러스케이팅 뮤지컬

Book by Douglas Carter Beane Music, Lyrics by Jeff Lynne, John Farrar

Producer Robert Ahrens, Dan Vickery, Tara Smith, B. Swibel

Universal Pictures Film Richards Danus, Marc Rubel New York

슈퍼주니어 강인, 김희철 / 이견명 출연!!

2008.12.27(토)~28(일) 부산문화회관대극장

cast 강인 · 김희철 · 이견명 · 정선아 · 김성기 · 김민수 · 홍지민 · 최유하 · 정영주 · 양꽃님 · 김희원
임휴상 · 박은영 · 김희진 · 최원철 · 이재경 · 양보미 · 전아민 · 김희중 · 김은식 · 주광섭 · 박진 · 윤석원

주최 | 부산광역시

주관 | 부산문화회관 · ANcity

시간 | 토 4시, 7시 30분 / 일 3시, 6시 30분

가격 | R석 88,000원 S석 77,000원 A석 55,000원 B석 44,000원

예매처 | 문우당서점 / 영광도서 / 영풍문고 / 동아서적 / 동보서적

예매처 | 인터파크 / AN티켓

예매문의: **1644-4484**

예매·수·료·없·는
가·장·중·은·자·리

검색창에

AN티켓

을 쳐보세요!!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기념 기획공연

루시드폴

silent night,
nylon night 2008

12월 24일(수) 오후 8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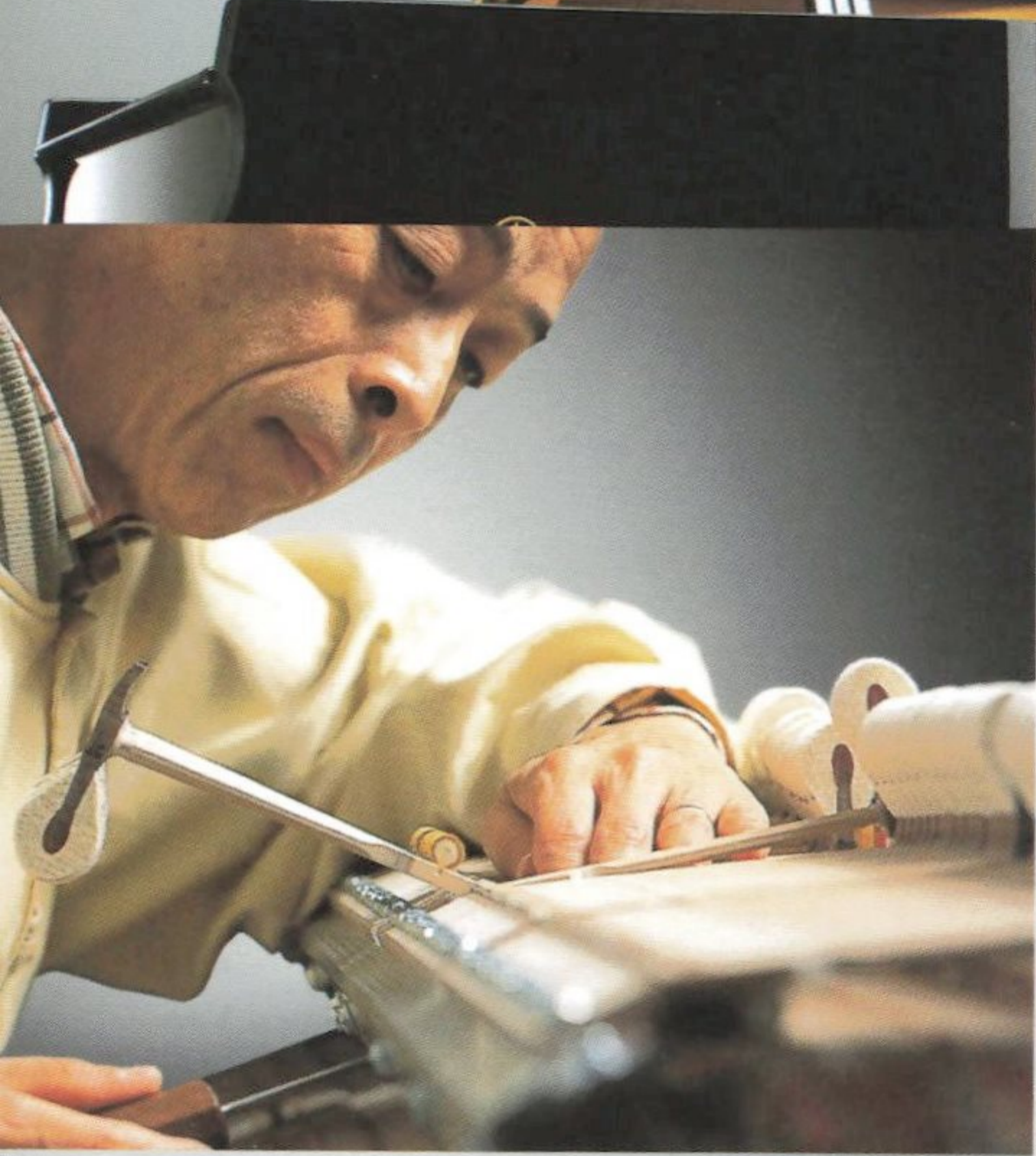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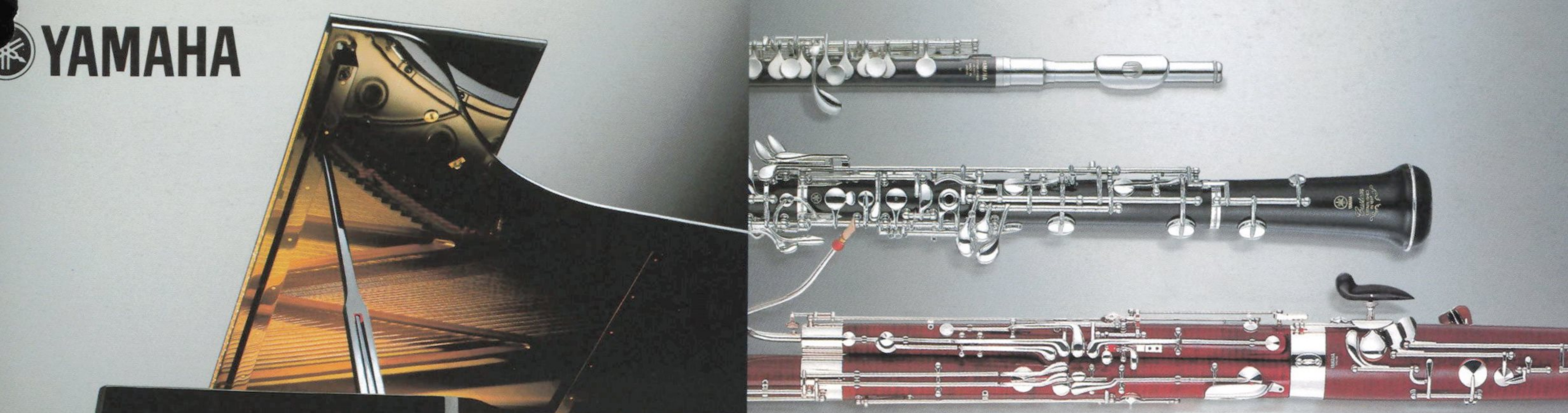
주최 | 부산광역시

주관 | 부산문화회관 ANc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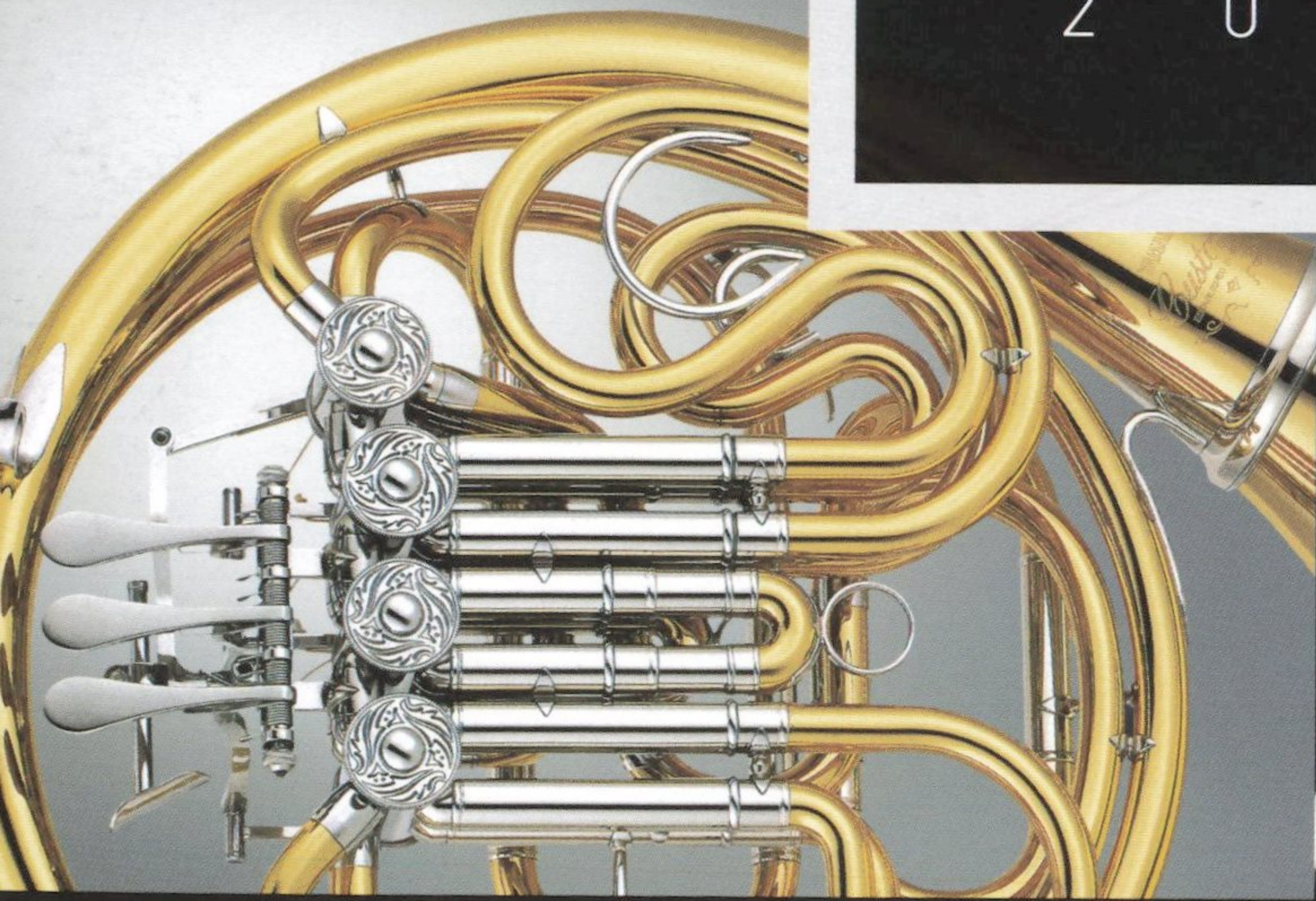
가격 | R석 44,000원 S석 33,000원 A석 22,000원

예매 1644-4484 AN티켓 인터파크

예·매·수·료·없·는
가·장·홍·은·자·리
AN티켓



Yamaha
MUSIC FAIR
 2 0 0 8



야마하 악기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야마하 피아노 / 관악기 **전시 및 판매**

부 / 산 / 행 / 사 / 기 / 간

일시 **12월 19~21일** (3일간)

장소 **부산 BEXCO 2층 전시장**

*합동 전시 대리점을 통해 참가 신청을 접수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야마하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E | V | E | I | N | I | T

※연주자의 일정에 따라 사전 통지없이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숙명여대 교수 이혜전 색소포니스트 이정식 트럼페티스트 안희찬	Yamaha Rising Artists
이혜전교수 Piano Master Class	12월 19일 오후 2:00~6:00
이정식 Jazz Quartet Concert	12월 19일 오후 7:00~8:30
안희찬 KBS 트럼펫 수석 Concert	12월 20일 오후 6:00~7:30
Yamaha Rising Artist Concert 김성훈, 장성(Pf)	12월 21일 오후 7:00~8:30

합동 전시 대리점

부산 | 피아노 전문점 : 부산야마하 T. 051)863-0900 / 관악기 전문점 : 조은악기 T. 051)809-8885 / 파가니니 T. 051)611-0513

YAMAHA MUSIC KOREA LTD.
www.yamaha-music.co.kr



10



24



34

커버스토리	08	소프라노 조수미 콘서트 Dream with me
반갑습니다	10	국립부산국악원 윤이근 원장
프리뷰	12	
아름다운 시, 아름다운 노래	22	정지용의 <향수>와 사향(思鄕)의 계절 _ 김상훈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24	새로운 400년! 조선통신사 한·일 친선의 밤 _ 백경옥
생활속의 판화이야기	28	우리나라 고판화 선과 면이 꾸미는 생활의 맛 _ 채경혜
우리는 문화 가족	30	부산여성문화회관 미루샘여성합창단
황윤기의 월드뮤직여행	31	아스토르 피아졸라 _ 황윤기
그곳에 가면	32	강에서 바다로 이어지는 어촌문화여행 부산어촌민속관
프로그램 가이드	34	
새로운 문화공간	48	
새로나온 책	49	
부산문화회관소식	50	
100자 토크	51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테마여행	52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54	



발행처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608-024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회관길 (대연 4동 848-4)
 TEL. 051-120(주간), 051-607-6221(야간) FAX. 051-607-6079
 발행인 정우연 편집인 박원철 편집장 백경옥
 발행일 2008년 11월 25일
 인쇄처 한국디자인진흥원

표지설명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가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무대의 주인공으로 12월 7일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12

December 2008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전시실

■ 대한민국 해석대전-대전시실
12월 2일(화)-12월 4일(목)
문의: 김시복(011-579-1131)

■ (사)한국 수석전문인 부산협회 기획전-중전시실
12월 2일(화)-12월 4일(목)
문의: 김영도(011-885-3596)

■ 제 11회 대한서화예술대전-대·중전시실
12월 6일(토)-12월 8일(월)
문의: 배효(011-878-5478)

■ 제 26회 대한민국 미술대상전-대·중전시실
12월 10일(수)-12월 20일(토)
문의: 정일환(010-5488-3375)

■ 제 3회 대한민국 서예콩쿠르-대·중전시실
12월 21일(일)-12월 24일(수)
문의: 이명희(010-7163-6331)

■ 한서미술대전-대전시실
12월 26일(금)-12월 29일(월)
문의: 정충옥(010-2582-4201)

국제회의장

■ 제 11회 대한서화예술대전 시상식
12월 6일(토) 13:00
문의: 배효(011-878-5478)

■ 성가대합창제
12월 19일(금)-12월 20일(토) 13:00
문의: 허난세(010-8500-7042)

■ 한서미술대전 시상식
12월 27일(토) 13:00
문의: 정충옥(010-2582-4201)

Sunday	Monday	Tuesday
	<p>1</p> <p>대 강미리 홀 무용단 '弓' 19:30 균일 1만원/강미리(510-2948, 011-9339-6991)</p> <p>중 부산시립극단 청소년을 위한 특별 공연 11:00 균일 2천원/부산시립극단(607-6136~8)</p>	<p>2</p> <p>대 제 2회 영화음악 플러스 콘서트 19:30 균일 1만원/부산선진화재단(256-7615)</p> <p>중 부산시립극단 청소년을 위한 특별 공연 11:00 균일 2천원/부산시립극단(607-6136~8)</p> <p>소 김도연의 춤 19:30 김도연(010-7611-8281)</p>
<p>7</p> <p>대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 기념 기획공연 '소프라노 조수미 콘서트' 19:30 12만원 · 10만원 · 8만원 · 6만원 부산문화회관(607-6070, 607-6058)</p> <p>중 2008 장정윤 순수현대무용 창작공연 16:30 균일 1만원/장정윤(011-9320-7822)</p> <p>소 김현정 벨리댄스 제 7회 정기발표회 15:00 균일 1만원/김현정(628-8990)</p>	<p>8</p> <p>대 UKO 정기연주회 '제 11회 난치병 어린이를 위한 사랑과 나눔의 음악회' 19:30 균일 2만원/정희자(011-589-3111)</p> <p>중 노엘 합창단 제 49회 정기연주회 19:30 초대/최성규(011-564-3439)</p> <p>소 ING 생명 송년음악회 19:30 초대/김정호(010-7430-6963)</p>	<p>9</p>
<p>14</p> <p>대 솔로페라단 현제명 오페라 '춘향아 춘향아' 19:30 15만원 · 10만원 · 7만원 · 5만원 · 3만원 · 2만원 솔로페라단(740-5750, 1544-9373, 070-7508-7566)</p> <p>중 연극 '아트' 부산 공연 15:00, 18:00 4만5천원 · 3만5천원/AN시티(1644-4484)</p> <p>소 3인 음악회 17:00 무료/김순영(010-5641-0802)</p>	<p>15</p> <p>중 이지화 바이올린 독주회 19:30 균일 2만원/이지화(010-9439-3563)</p> <p>소 하지행 첫 해금독주회 19:30 초대/하지행(010-7230-1123)</p>	<p>16</p> <p>대 부산시립무용단 청소년을 위한 공연 10:30 균일 2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6118)</p> <p>소 김정숙 피아노 독주회 19:00 초대/김정숙(010-7430-3013)</p>
<p>21</p> <p>중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송년특별음악회 19:30 정금회(627-8088)</p> <p>소 Heaven(The Kayah third story) 15:00 고정림(512-6123, 010-9015-0203)</p>	<p>22</p> <p>소 문해정 클래스 피아노 연주회 19:00 무료/문해정(010-4009-7445)</p>	<p>23</p> <p>대 한빛의 유U콘서트 11:00 균일 1만5천원/국제신문(500-5222) 예술기획(0505-700-9798)</p> <p>대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송년음악회 19:30 균일 2천원/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607-6108)</p> <p>중 연극 '라이어 3탄 - 튀어' 20:00 3만5천원 · 2만5천원/AN시티(1644-4484)</p> <p>소 제 3회 디가디가 타악기 정기연주회 19:00 무료/정재은(017-855-3360)</p>
<p>28</p> <p>대 뮤지컬 '제너두' 부산 공연 15:00, 18:30 8만8천원 · 7만7천원 · 5만5천원 · 4만4천원 AN시티(1644-4484)</p> <p>중 연극 '라이어 3탄 - 튀어' 15:00, 18:00 3만5천원 · 2만5천원/AN시티(1644-4484)</p> <p>소 제 2회 슈퍼스타 정기연주회 19:00 균일 1만원/윤대현(010-9811-2333)</p>	<p>29</p> <p>청소년예술행사 (16:00) 동아일보</p> <p>소 이경민 피아노 & 주은음악원 작은 거장들의 뮤직 페스티벌 19:30 무료/이경민(010-8612-0122)</p>	<p>30</p> <p>중 연극 '라이어 3탄 - 튀어' 20:00 3만5천원 · 2만5천원/AN시티(1644-4484)</p> <p>소 어드벤처 피아노 제 1회 정기연주회 (주)에듀프라이م 19:00 무료/박은희(019-595-5489)</p>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p>3</p> <p>중 부산시립극단 특별 공연 '연기가 눈에 들어갈 때' 19:30 1만원 · 5천원/부산시립극단(607-6136~8)</p>	<p>4</p> <p>대 2008 꼬레아오페라단 제 5회 정기공연 베르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19:30 10만원 · 7만원 · 5만원 · 3만원 꼬레아오페라단(949-6582, 010-2400-5371)</p> <p>소 정안선 클래스 연주회 19:30 무료/이구일(754-2291, 010-864-0291)</p>	<p>5</p> <p>대 2008 꼬레아오페라단 제 5회 정기공연 베르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19:30 10만원 · 7만원 · 5만원 · 3만원 꼬레아오페라단(949-6582, 010-2400-5371)</p> <p>소 아르모니 플루트앙상블 정기연주회 19:30 초대/이현정(017-206-1050)</p>	<p>6</p> <p>대 2008 꼬레아오페라단 제 5회 정기공연 베르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19:30 10만원 · 7만원 · 5만원 · 3만원 꼬레아오페라단(949-6582, 010-2400-5371)</p> <p>중 부산시립극단 순천시립극단 초청 교류공연 '웃고랑 맥베스' 16:00 균일 5천원/부산시립극단(607-6136~8)</p> <p>소 토요일상설무대-부산시립극단관현악단 16: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p>
<p>10</p>	<p>11</p> <p>중 부산시립합창단 2008 송년음악회 'Lovely Crossover & Cinema Music'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부산시립합창단(607-6125~6)</p>	<p>12</p> <p>대 솔오페라단 현제명 오페라 '춘향아 춘향아' 19:30 15만원 · 10만원 · 7만원 · 5만원 · 3만원 · 2만원 솔오페라단(740-5750, 1544-9373, 070-7508-7566)</p> <p>소 제 4회 피아노스타 정기연주회 19:00 무료/피아노스타 부산지사(010-8564-7537)</p>	<p>13</p> <p>대 솔오페라단 현제명 오페라 '춘향아 춘향아' 15:00, 19:30 15만원 · 10만원 · 7만원 · 5만원 · 3만원 · 2만원(15:00 공연 2만원 · 1만원)/솔오페라단(740-5750, 1544-9373, 070-7508-7566)</p> <p>중 연극 '아트' 부산 공연 16:00, 19:00 4만5천원 · 3만5천원/ANSITE(1644-4484)</p> <p>소 토요일상설무대-부산시립무용단 16: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p>
<p>17</p> <p>대 부산시립무용단 장애우와 함께하는 송년공연 10:30 초대/부산시립무용단(607-6118)</p> <p>대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45회 정기연주회(2008 부산연주인시리즈) '2008 송년음악회'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4)</p> <p>중 부산콘서바토리음악원 제 7회 정기연주회 19:30 초대/부산콘서바토리음악원(501-3999, 019-501-3999)</p> <p>소 내일의 소리 송년의 밤 19:00 임현길(011-488-4732)</p>	<p>18</p> <p>대 그랜드오페라단 '금년새와 함께 하는 오페라 시리즈 III - 라보엠' 19:30 10만원 · 7만원 · 5만원 · 3만원 · 2만원 그랜드오페라단(610-1004)</p> <p>소 2008 박성희의 세번째 판소리 발표회 -판소리 다섯 마당 눈대목 19:30 자유로운 성금/박성희(011-878-6370)</p>	<p>19</p> <p>대 2008 부산세계사회체육대회 성공개최 기념 및 2020 부산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성가대합창제 19:00 5만원 · 3만원/하난세(010-8500-7042)</p> <p>중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2008 송년음악회 '내일을 위한 법고창신 III'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6110)</p> <p>소 피아노 4인 연주회 19:30 무료/이구일(011-864-0291)</p>	<p>20</p> <p>대 2008 부산세계사회체육대회 성공개최 기념 및 2020 부산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성가대합창제 17:00 5만원 · 3만원/하난세(010-8500-7042)</p> <p>중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 124회 정기연주회 'Merry Christmas in Love' 17:00 균일 2천원/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6131)</p> <p>소 토요일상설무대-부산국악합주오케스트라 16: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p>
<p>24</p> <p>대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 기념 기획공연 '루시드 폴 크리스마스 콘서트' 20:00 4만4천원 · 3만 3천원 · 2만2천원/ANSITE(1644-4484)</p> <p>중 연극 '라이어 3탄 - 튀어' 17:00, 20:00 3만5천원 · 2만5천원/ANSITE(1644-4484)</p> <p>소 성악과 기악의 밤 19:30 무료/신서우(010-4858-1861)</p>	<p>25</p> <p>중 연극 '라이어 3탄 - 튀어' 15:00, 18:00 3만5천원 · 2만5천원/ANSITE(1644-4484)</p>	<p>26</p> <p>중 연극 '라이어 3탄 - 튀어' 17:00, 20:00 3만5천원 · 2만5천원/ANSITE(1644-4484)</p> <p>소 장채운 클래스의 밤 19:30 무료/장채운(010-2651-9160)</p>	<p>27</p> <p>대 뮤지컬 '제너두' 부산 공연 16:00, 19:30 8만8천원 · 7만7천원 · 5만5천원 · 4만4천원 ANSITE(1644-4484)</p> <p>중 연극 '라이어 3탄 - 튀어' 16:00, 19:00 3만5천원 · 2만5천원/ANSITE(1644-4484)</p> <p>소 토요일상설무대-남산놀이마당 16: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p>
<p>31</p> <p>대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 기념 기획공연 2008 제야음악회 '가는 해 오는 해' 22:30 5만원 · 3만원 · 2만원/부산문화회관(607-6057)</p> <p>중 연극 '라이어 3탄 - 튀어' 17:00, 20:00 3만5천원 · 2만5천원/ANSITE(1644-4484)</p>	<p>1/1</p>	<p>1/2</p>	<p>1/3</p>

부산
Saturday

● 표 공연은 시립예술단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로 예매하십시오.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공연안내는 <http://www.bsCulture.busan.kr>을 Click하세요.

간직하고픈 그리움과 사랑가득 담긴 꿈으로의 여행

소프라노 조수미 콘서트

Dream with Me

2008.12.7 | 일 | 7:3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가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무대의 주인공으로 12월 7일 부산 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지휘자 카라얀으로부터 '신이 내려준 목소리'라는 찬사는 물론 '일세기에 한두 명 나올까 말까 한 목소리를 가진 가수'라는 주변 메타의 극찬을 받은 조수미는 마리아 칼라스와 조앤 서덜랜드의 뒤를 잇는 이 시대 최고의 벨칸토 소프라노이다.

금세기 최고의 콜로라투라로 평가받고 있는 조수미는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고난도 기교의 완벽함이 돋보이는 소프라노로 전세계의 모든 오페라 극장에서 최고의 갈채를 받고 있다.

조수미는 나폴리 존타(Napoli Zonta) 국제콩쿠르, 시실리 엔나(Sicily Enna) 국제콩쿠르, 베르첼리 비오티(Vercelli Viotti) 국제콩쿠르, 바르셀로나 비냐스(Barcelona Vinas) 국제콩쿠르, 베로나(Verona) 국제콩쿠르 1위에 빛나는 화려한 수상경력을 자랑한다.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게오르그 솔티,

주빈 메타 등과 함께 주옥같은 명반을 남기기도 한 조수미는 1993년 게오르그 솔티와 녹음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그림자 없는 여인>이 그 해 그래미상 '오페라 부문 최고 음반'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오페라와 리사이틀 음반을 통해 특히 많은 사랑을 받은 조수미는 2000년 발매된 뮤지컬 넘버로 구성된 크로스 오버를 통해 밀리언셀러의 판매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클래식 매니아가 아니더라도 드라마 OST, CF를 통해 그의 감미로운 목소리에 흠뻑 빠진 이들이 많다.

조수미는 변화를 거듭하는 노력하는 연주자이다. 2006년 국제무대 데뷔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된 소프라노 조수미의 'Beautiful Challenge' 전국 투어 콘서트는 전석 매진과 앙코르 공연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결과를 일궈냈다. 새로운 20년을 시작하는 2007년부터는 사회에 공헌하고 예술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아우를 수 있는 신선한 프로젝트에 도전하겠다는 각오로 'Sumi Jo & Winners'에서 후배 성악가들을 배려한 나눔과 공감의 공연을 가졌고, 올해에는 'Dream with me'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부산 무대는 팡페라의 제왕 '알레산드로 사피나'와 듀엣으로 마련된다. 2003년 상암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평화 콘서트에서 만난 사피나는 2008년 6월 이스라엘에서 함께 공연하는 등 환상적인 호흡을 맞춰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지난 10월 발매된 앨범 'Missing you'에도 참여한 알레산드로 사피나와 함께 앨범에 수록된 듀엣곡 및 솔로곡들을 들려줄 예정이다.

크로스오버 테너 알레산드로 사피나는 이태리 피렌체 음악원에서 정통 성악을 공부한 성악도 출신으로 약 50편의 오페라 무대에서 이미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잘생긴 외모에 아름답고 호쾌한 미성까지 갖추고 있어 팝과 오페라의 요소를 모두 포함한 새로운 크로스오버 기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강하고 드라마틱한 남성적인 매력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라틴계의 화려하고 정열적인 음색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사피나는 영화배우를 연상케 하는 외모로 한국의 여성 팬들에게 강한 조명을 받고 있다.

조수미와 사피나의 감미로운 사랑의 선율을 더욱 아름답게 전하기 위해 이번 무대는 미하엘 슈타우다허가 지휘하는 모스틀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MPO - Mostly Philharmonic

Orchestra)가 함께 무대를 갖는다.

모스틀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오페라와 극음악을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의 반주를 선보이고자 창단된 전문 오케스트라로, 창단 이후 세계적인 카운터 테너 요시카즈 메라와의 협연, 요한 슈트라우스 왈츠 신년음악회,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 '라보엠' '팔리아치' '정조대왕의 꿈' '비바 푸치니' 모차르트 '대관식 미사' 등 지난 5년간 400여 회의 왕성한 연주와 녹음 활동을 하였다.

지휘자 미하엘 슈타우다허(Michael Staudacher)는 독일 함브르크 음악대학을 졸업 한 후 작곡가, 피아니스트, 지휘자 등 다양한 음악분야에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 영화음악

과도 인연을 맺어 영화 '인디안 썸머(2001)' '이중간첩(2003)' '청연(2005)'

등 흥행영화의 음악을 작곡하여

2002년과

2006년 대

종상 음악상을

수상하였다.

미하엘 슈타우다허는

현재 경희대학교 모던음악

과 교수로 한국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레퍼토리

Italian Canzone Medely(이탈리아 칸초네 메들리)

Non ti scordar di me(날 잊지말아요)

Luna(달빛)

Je te veux(난 그대를 원해요)

Sous le Ciel de Paris(파리의 하늘 밑)

Tous les visages de l'amour(사랑의 모든 향기)

Kazak Cradle Song(코사크의 자장가)

I love you so(그대를 사랑해) 등

흥과 신명이 넘치는 문화공간

국립부산국악원
원장 **윤이근**



지난 10월 28일 국립부산국악원이 오랜 기다림 끝에 개원했다. 1951년 전쟁 중 부산에서 국립국원이 개원된 이후 남원, 진도에 이어 지방으로서는 세 번째 개원이다. 2001년 6월, 부산과 영남지역의 국악계 인사들과 지역주민들이 국립부산국악원 유치활동을 벌인지 7년만의 결실이다.

“국립부산국악원을 열망하는 부산 시민들의 오랜 숙원이 결실을 이루게 되어 무엇보다 기쁩니다. 국립부산국악원은 부산 최초의 국립문화예술기관으로서 부산·영남지역의 전통문화를 발굴, 육성하고 보존, 계승해나가며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해나갈 것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개원추진단장을 맡아 지난 7년간의 준비과정을 지켜 본 윤이근 원장은 ‘부산 최초의 국립문화예술기관’에 대한 부산 시민들의 기대치를 알기 때문에 국립부산국악원 개원 이후 더 분주하다. 국악원 개원에 보여주는 부산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에 지난 준비기간 힘들었던 기억들이 한순간에 모두 사라진다.

“개관일은 물론 11월 한 달 동안 열린 개관 기념공연에 부산 시민들이 예상을 뛰어넘는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셔서 사실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전야제, 개원식을 비롯한 기념공연 등에 많은 분들이 참석을 원하셨지만 시민들의 참여요청이 쇄도해 일찌감치 좌석신청이 끝났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오셨다가 공연관람을 못하시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서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11월 4일 공연에서는 정해진 관람객 외에 100명이 넘는 관람 인원이 모여 야외에서 공연실황 중계를 했을 정도로 열기가 뜨겁다. 윤이근 원장은 미안한 마음에 시민들과 야외에서 공연실황을 함께 지켜보기도 했다. 요즘은 끊임없이 국악강습문의가

들어오고 있어 짧은 시간동안 부산시민들의 전통에 관한 열정을 느낄 수 있어 국악인의 한사람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부산은 전쟁 중 국립국악원의 싹을 틔운 곳입니다. 앞으로 역사성을 반영한 공연작품과 더불어 교육, 연구, 진흥활동을 통해 지역민의 화합과 문화자긍심을 고취하여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윤이근 원장은 서울과 진도, 남원에 있는 세 곳의 국악원과 부산국악원이 지역 문화가 다른 만큼 부산에 맞는 국립국악원을 만들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현재 서울 국립국악원은 전통 음악의 종가(宗家)로 공연, 교육연수, 연구, 교류활동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1992년 개원한 남원 국립민속국악원은 남원이 판소리의 고장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창극과 소리공연 활동이 많다. 2004년에 개원한 진도국립남도국악원은 남도지역 전통예술과 음악을 위주로 한 공연과 숙박시설을 기반으로 국악체험 및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윤이근 원장은 부산국악원 역시 지역의 전통문화를 보존 전승하는 의무 외에 광역시라는 도시 위상에 걸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이다. 특히 부산은 인구구성과 규모에서 타 지역과 차이가 많고, 지역축제와 각종 행사들이 활발하게 개최되고 있어 우리의 정서가 살아 있는 흥겨운 우리 가락으로 시민들과 부산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나가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생각이다. 중앙·지역의 문화 균점화에 크게 기여 할 국립기

관으로서 부산·영남지역 전통문화를 발굴, 보존, 전승한다는 본래의 역할에도 충실함은 물론이다.

지금은 원활한 공연장 운영을 위한 준비기간인 만큼 당분간은 초청 공연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연주단이 결성된 2009년 중반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공연장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는 시민휴식공간으로 부산국악원을 편안하게 이용해달라는 당부를 빠뜨리지 않는다.

“앞으로 국악원에서 펼치는 공연과 교육활동을 통해 국악원이 시민들과 친숙한 문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면서 다양한 국악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주 다양한 모습들을 접하다 보면 우리 국악이 익숙해지고 좋아지게 되겠지요.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성원해주신 부산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경주가 고향인 윤이근 원장도 사실 우연한 기회에 국악과 인연을 맺었다. 신라의 천년고도 경주를 알리기 위해 창단된 경주시립국악원 부설 중등과에 진학한 그는 국립국악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국악과를 졸업했다. 평생 국립국악원 학예연구관으로 국악의 전승, 보급에 열정을 쏟아왔던 윤이근 원장. 국악을 처음 접했던 첫 마음을 기억하는 그의 국악사랑이 부산에서도 계속 이어지길 기대해본다.



순천시립극단 초청교류 공연

{ 웃고랑 멕베스 }

- 12월 6일 토요일 오후 4:00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지난 6월 순천시립극단 초청으로 '연기가 눈에 들어갈 때' 를 순천 시민들에게 선보였던 부산시립극단이 12월에는 순천시립극단을 초청, 교류무대를 갖는다.

이번에 순천시립극단이 선보이는 작품은 셰익스피어의 고전 '멕베스' 를 현대적 감성으로 재해석한 '웃고랑 멕베스'. 이번 작품은 순천시립극단 세계명작 시리즈 5번째 작품으로, 순천시립극단 상임연출가 김민호가 극본을 쓰고 연출을 맡았다.

'웃고랑' 은 단어 그대로 '웃자', 접미사 '랑' 을 부쳐 웃는 멕베스란 의미를 담고 있다. 끝없는 야망과 권력욕에 사로잡혀 끝내는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마는 원작 속의 '멕베스' 는 미망에 유혹당하지만 결국 막다른 길에서는 자신에게 부여된 운명과 마주치고 그 운명을 과감하게 받아들이는 진정한 영웅으로 해석한다. 원작 속에서 멕베스를 부추기는 멕베스 부인은 야심과 권력욕 보다는 남편에 대한 맹목적이며 순수한 사랑을 강조해 오히려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려내며, 무당들의 계략과 간섭 역시 섬뚱함으로 다가오기 보다는 수다쟁이 옆집 사람을 연상시키는 등 새로운 인물상을 제시한다.



특히 환영과 기괴함 속에 등장하는 마녀들의 예언 장면에서는 무당들을 등장시켜 굿과 연희가 어우러진 질펀한 난장이 펼쳐지는가 하면 멕베스와 덩컨왕의 결투 장면에서는 우리의 전통무예인 해동검도의 검법을 이용해 살상보다는 예와 도로써 검을 다루었던 선조들의 정신을 보여주는 등 우리민족의 정서와 문화가 담긴 '한국적 멕베스' 로 원작의 감동을 더해준다.

상임연출가 김민호는 러시아 셰프킨 국립연극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실기석사 학위를 받고 러시아 모스크바 마소베타극장 연구단원, 극단 청년, 열린극장 대표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관람료 균일 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좌석을 미리 예약해 주십시오.)

문의 부산시립극단(607-6136~8),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합창단 제 127회 정기연주회

부산시립합창단과 부산시립교향악단이 함께하는 2008 송년음악회

Lovely Crossover & Cinema Music

- 12월 11일 목요일 오후 7:30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지휘 김강규



테너 김영환



부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예술단 중 가장 먼저 송년무대를 선보이는 부산시립합창단은 수석지휘자 김강규의 지휘와 해설로 테너 김영환과 함께 하는 감미로운 무대를 선보인다. 특별히 이번 송년무대는 부산시립교향악단과의 화려한 앙상블로 'Lovely Crossover & Cinema Music' 무대를 열어준다.

1부에서는 기존의 장르를 뛰어넘는 크로스오버의 무대를 꾸민다. 사람의 소리로 듣는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 과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영화 '왕의 남자' 의 OST 중 '인연' 을 합창음악으로 편곡, 감동을 더해주고 우리나라 공익광고에 쓰였던 'You raise me up' 선율로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무대를 만들어준다. 1부 후반에는 크리스마스캐럴을 새로운 스타일의 재즈풍으로 편곡해 아카펠라와 전체 합창으로 나뉘어서 연주한다.

2부에서는 본격적인 영화음악을 연주한다. 영화의 명장면들과 음악을 함께 들으며 영화의 감동을 느낄 수 있다.

지난 5월 다이나믹페스티벌에 이어 부산시립합창단 송년음악회를 위해 다시 부산을 찾는 테너 김영환은 부산음악애호가들에게 인기가 높은 테너이다. 서울대학교와 이탈리아 피렌체 국립음악원을 졸업한 김영환은 '자코모 아라갈' 스페인 '토로엘라 몬그리 국제 성악콩쿠르' 우승을 비롯해 '엔리코 카루소' '밀라노 국제 성악콩쿠르' '카를로 코치아' '노바라 국제 성악콩쿠르' 'G.B.Viotti' '베르첼리 국제 성악콩쿠르' 등에서 입상했다. 추계예술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테너 김영환은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화려한 음빛깔과 섬세한 감정처리에서 독보적 위치를 자랑하고 있다.

관람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좌석을 미리 예약하십시오.)

※찾아가는 음악회 행사로 12월 12일(금)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과 12월 16일(화)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에서도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문의 부산시립합창단(607-6125~6),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솔오페라단 한국오페라 60주년 기념 특별공연

현제명 오페라 '춘향아~ 춘향아~'

- 12월 12일-14일 금·일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 7:3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한국 오페라 60주년을 맞아 한국 최초의 창작 오페라인 현제명의 '춘향전'을 현대적 감각으로 새롭게 해석한 오페라 '춘향아 춘향아'가 12월 12일부터 3일간 부산문화회관 무대에 오른다.

오페라 '춘향전'은 1948년 1월 국제오페라사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베르디의 '라 트라비아타'를 무대에 올린 이후 2년 뒤인 1950년 5월 20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작곡자 자신의 지휘로 초연되었다.

오페라 '춘향전'은 6·25 전쟁 중이던 1951년 7월 피난지 대구와 부산에서 다시 공연되어 전쟁으로 지친 국민들에게 위안을 주기도 했다.

이번에 새롭게 공연되는 오페라 '춘향아 춘향아'는 2009년 6월로 예정된 이태리 무대 진출을 위해 솔오페라단이 기획 단계에서부터 의욕적으로 준비한 작품으로 화려한 전통의상과 춤, 그리고 우리 가락이 멋들어지게 어우러진다.

특히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 기념 오페라 '아이다'를 연출한 바 있는 연출의 마법사 '안토니오 데 루치아'가 유럽인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우리 고전 춘향을 오페라 무대에서 살려냈다. 그 외에도 한지로 특수 제작된 무대와 세트, 의상 역시 솔오페라단이 한국의 아름다움을 유럽에 알리기 위하여 직접 제작하여 신비감과 새로움을 더 했고 오페라가 무겁고 지루하다는 선입견을 없애기 위하여 새로운 구성으로 전개, 관객들에게 보는 즐거움과 듣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이번 무대는 소프라노 김경희, 박정원, 한예진, 김민지가 춘향으로, 이재욱, 이철성, 김화정, 서민규가 이도령으로 열연하고 오페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부산시립교향악단, 솔오페라 합창단, 타래고전무용단이 함께 참가한다.

관람료 VIP석 150,000원 · R석 100,000원 · S석 70,000원 · A석 50,000원 · B석 30,000원 · C석 20,000원
(토요일 오후 3:00 공연은 피아노 반주로 진행. 1층 20,000원 · 2층 10,000원)

문의 솔 오페라단(740-5750, 1544-9373, 070-7508-7566)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45회 정기연주회(2008 부산연주인시리즈)

부산 MBC 창사 49주년 기념 2008 송년음악회

- 12월 17일 수요일 오후 7:3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알렉산더 아니시모프



강희영



신지화



류정필



우주호

2008년 한 해 동안 바쁘게 활동해온 부산시립교향악단이 12월 17일 '2008 송년음악회'로 2008년 마지막 무대를 장식한다. 수석지휘자 알렉산더 아니시모프가 지휘하고 2008 부산연주인시리즈 연주자로 선정된 메조소프라노 강희영을 비롯해 소프라노 신지화, 테너 류정필, 바리톤 우주호와 부산시립합창단, 김해시립합창단이 함께 하는 이번 무대는 베토벤의 '레오노레' 서곡과 베토벤의 마지막 교향곡인 제 9번 '합창'을 통해 베토벤의 위대한 음악성과 삶에 대한 철학을 공감하며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돌아본다.

첫 무대를 여는 베토벤의 '레오노레' 서곡은 오페라 '피델리오'의 서곡이다. 지금 4곡의 서곡이 전해지는데 이번 무대에서는 1806년 상연된 '레오노레' 제3번을 연주한다. 2부 무대를 장식하는 '합창'은 연주시간이 1시간 10분에 이르는 대작이다. 실러의 장대한 시 '환희의 송가'에 곡을 붙여 1824년 5월 7일 자신의 지휘로 초연했는데 당시 베토벤의 귀가 들리지 않았던 터라 청중의 환성과 박수를 느끼지 못해 알토 가수 웅겔의 주의로 정면을 향한 채 한층 높아지는 갈채에도 무뎠다며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고 전해진다.

합창 독창자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나는 소프라노 신지화는 중앙콩쿠르 1위 입상을 시작으로 이탈리아 안나 국제콩쿠르, 카를로 코치아 국제콩쿠르, 마리오 델 모나코 국제콩쿠르 등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유럽지역 우수 콩쿠르를 휩쓸며 음악적 재능을 인정받았다. 신지화는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로 재직중이다. F. 칠레아 국제콩쿠르 1위 입상한 바 있는 부산 출신의 메조소프라노 강희영은 고신대학교를 졸업하고 모스크바로 유학, 차이코프스키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독일 자르브뤼켄 주립극장 오페라 합창단 단원으로 활동하다 귀국,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탈리아 벨리니 국제콩쿠르, 비오티 발세시아 국제콩쿠르, 스페인 프란체스카 쿠아르트 국제콩쿠르에 입상한 테너 류정필은 국립 오페라단 단원, 성신여자대학교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바리톤 우주호는 아브루초 국제 성악 콩쿠르, 치타 디 로마 콩쿠르, 타란토 성악 콩쿠르에 우승하고 오페라 리골레토, 오텔로, 시몬, 부카네그라 등 20여 작품에 주역으로 출연하는 등 폭 넓은 활동을 하고 있다.

관람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4),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43회 정기연주회

2008 송년음악회 ‘내일을 위한 범고창신 Ⅲ’

- 12월 19일 금요일 오후 7:30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박호성



원장현



정대석



김일륜

다사다난했던 2008년을 보내는 아쉬움을 우리 음악으로 달래보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2008 송년음악회 ‘내일을 위한 범고창신 Ⅲ’이 12월 19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박호성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지난 한 해 우리음악을 사랑해준 시민들에게 감사드리며 2009년 새해 풍요로움과 평안을 기원하는 힘찬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다양한 창작국악을 들려준다.

첫 곡으로는 2008년 송년을 아쉬워하고 새해에는 날마다 흥겨운 세상이 되길 기원하는 박범훈 곡 창작관현악 ‘어랑타령’으로 송년음악회의 시작을 알린다. 이어서는 원장현류 대금산조의 창시자인 원장현 명인이 원장현류 대금산조를 직접 들려준다. 원래는 기악독주곡이나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협연무대로 마련된다. 현재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지도위원으로 있는 원장현은 전주대사습대회 기악부 장원, 전국국악대제전 대상 대통령상, KBS국악대상 연주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황의중 곡 창작관현악 ‘푸리’는 힘들고 어려웠던 2008년과는 달리 2009년 새해부터는 맏히고 꼬였던 많은 일들이 술술 풀리기를 기원하며 특별히 신명을 더해 마련한 무대이다. 거문고 창작음악의 교본이라 할 수 있는 정대석 곡 ‘수리재’는 이 곡의 작곡자인 서울대학교 정대석 교수가 직접 협연자로 무대에 선다. ‘수리재’는 작곡가의 친구가 살고 있는 강원도 한 초가집을 뜻하는데, 자연과 벗하며 사는 유유자적한 삶을 그린 3악장 곡이다. 협연자 정대석은 KBS국악관현악단 악장 및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을 역임했으며, 2003 KBS국악대상 현악상 및 대상, 제 2회 대한민국 작곡상, 제 15회 동아음악콩쿠르 1위를 수상한 바 있다.

마지막 곡으로는 박범훈 곡 노래와 가야금을 위한 창작관현악 ‘가야송’을 들려준다. 동국대학교 목정배 교수가 작시한 ‘가야송’은 연주자가 직접 노래하는 새로운 형태의 가야금 병창곡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초연 당시 가야금연주와 노래를 불렀던 중앙대학교 김일륜 교수가 다시 무대에 올라 농익은 실력을 선보인다. 김일륜은 숙명여자대학교 전통문화예술대학원 교수 및 숙명가야금연주단 단장을 역임했으며, 제 1회 동아음악콩쿠르 금상, 2002 KBS국악대상 현악부문 수상, 제 7회 한국예술발전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관람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좌석을 미리 예약해 주십시오.)
문 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6110),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 기념 기획공연

루시드 폴(Lucid Fall) 크리스마스콘서트

- 12월 24일 수요일 오후 8:0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잔잔한 기타소리, 시를 연상시키는 노랫말, 그리고 서정적인 멜로디를 들려주는 12월의 로맨티스트 루시드 폴이 12월 24일 부산팬들에게 감미로운 '크리스마스 콘서트' 를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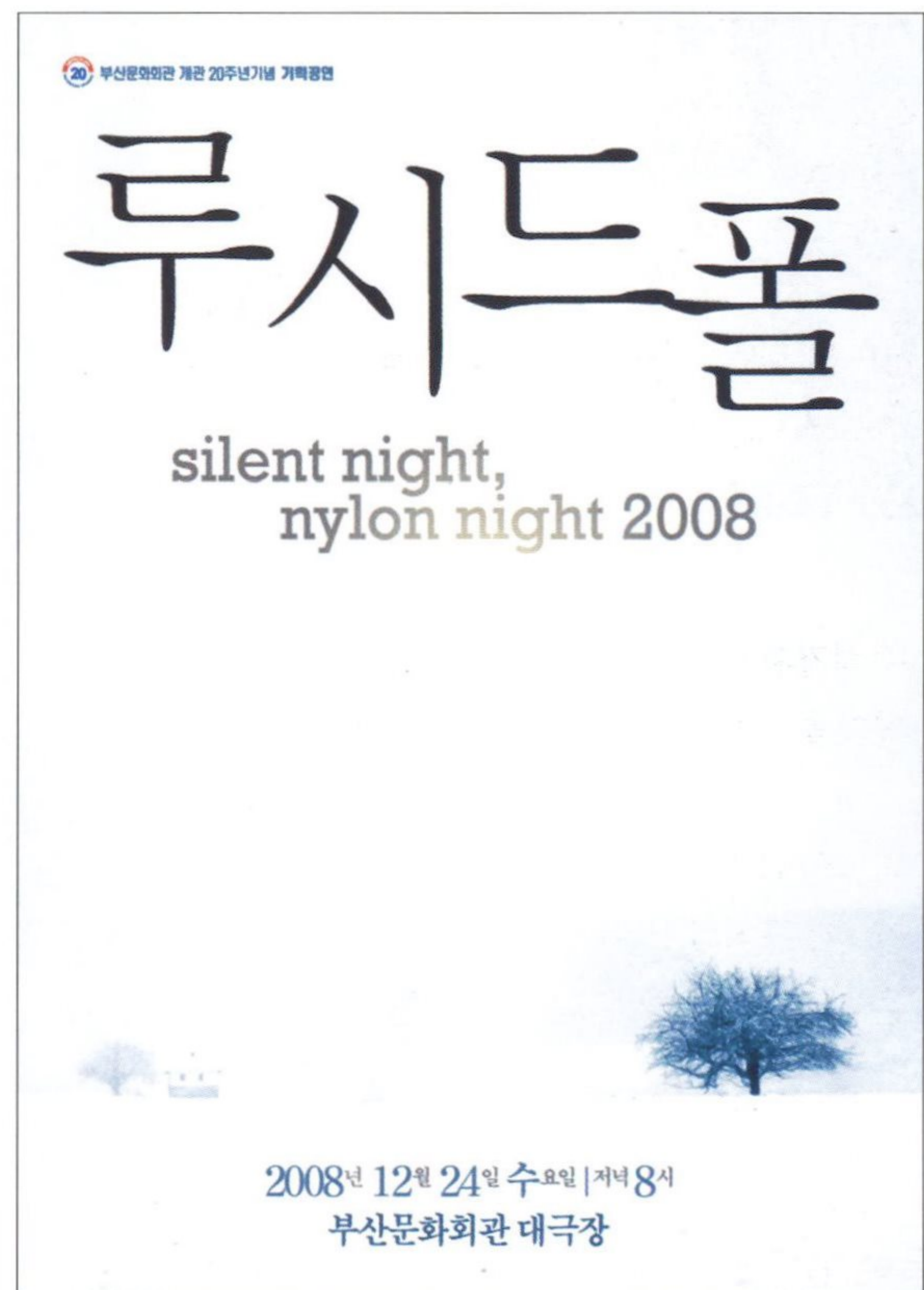
숨소리마저 들릴 것 같은 고요, 눈을 감아도 보일 것 같은 루시드 폴의 'Silent Night, Nylon Night' 은 모두가 들뜨는 연말을 차분히 정리하는 브랜드 콘서트로 매년 자리잡아 왔다.

루시드 폴(Lucid Fall)의 본명은 조윤석. 그가 주목받는 것은 여느 가수들과는 다른 이색 경력 때문이다. 루시드 폴은 스위스 로잔 공대 생명공학 연구소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싱어송라이터이다. 관상동맥경화 치료 물질 미국 특허 출원으로 화제를 모은 조윤석 박사는 매년 12월이 되면 루시드 폴이 되어 우리 곁에 돌아온다.

1993년 유재하 음악경연대회를 통해 음악성을 인정받은 루시드 폴은 1997년 인디밴드 '미선이' 를 결성해 수 많은 모던 포크 마니아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2001년 '맑고 투명한 가을' 이라는 의미의 원맨밴드 '루시드 폴' 로 솔로활동을 시작한 그는 새로운 시대의 음유시인이라는 음악 팬들의 절대적 평가를 받고 있다. 루시드 폴은 두 장의 정규앨범, 한 장의 라이브앨범, 한 장의 영화음악을 발표했으며, 2005년에는 한국 대중음악상 최우수 팝 싱글부분을 수상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3집 '국경의 밤' 을 발표한 루시드 폴은 방송매체 활동 없이도 높은 판매고를 올리며 20~30대 음악마니아들의 건재함을 증명했다. 최근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 2008' 에서는 10년 만에 자신의 음악적 뿌리인 그룹 '미선이' 로 무대에 올라 잔잔한 향수 어린 공연을 선보인 바 있다. GMF 2008 이후 2달 만에 내한하는 루시드 폴은 밴드 포맷의 웅장함이 아닌 고요하지만 잔잔한 감성이 존재하는 무대를 보여주기 위해 2008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콘서트에서는 기타 하나로 소박하지만 집중력 있는 감미로운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입장료 R석(1층) 44,000원 · S석(2층) 33,000원 · A석(3층) 22,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은 5% 할인됩니다.)

문의 부산문화회관(607-6057), AN시티(1644-4484)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 기념 기획공연

뮤지컬 제너두 (XANADU)

- 12월 27일-28일 토요일 오후 4:00, 7:30 | 일요일 오후 3:00, 6:3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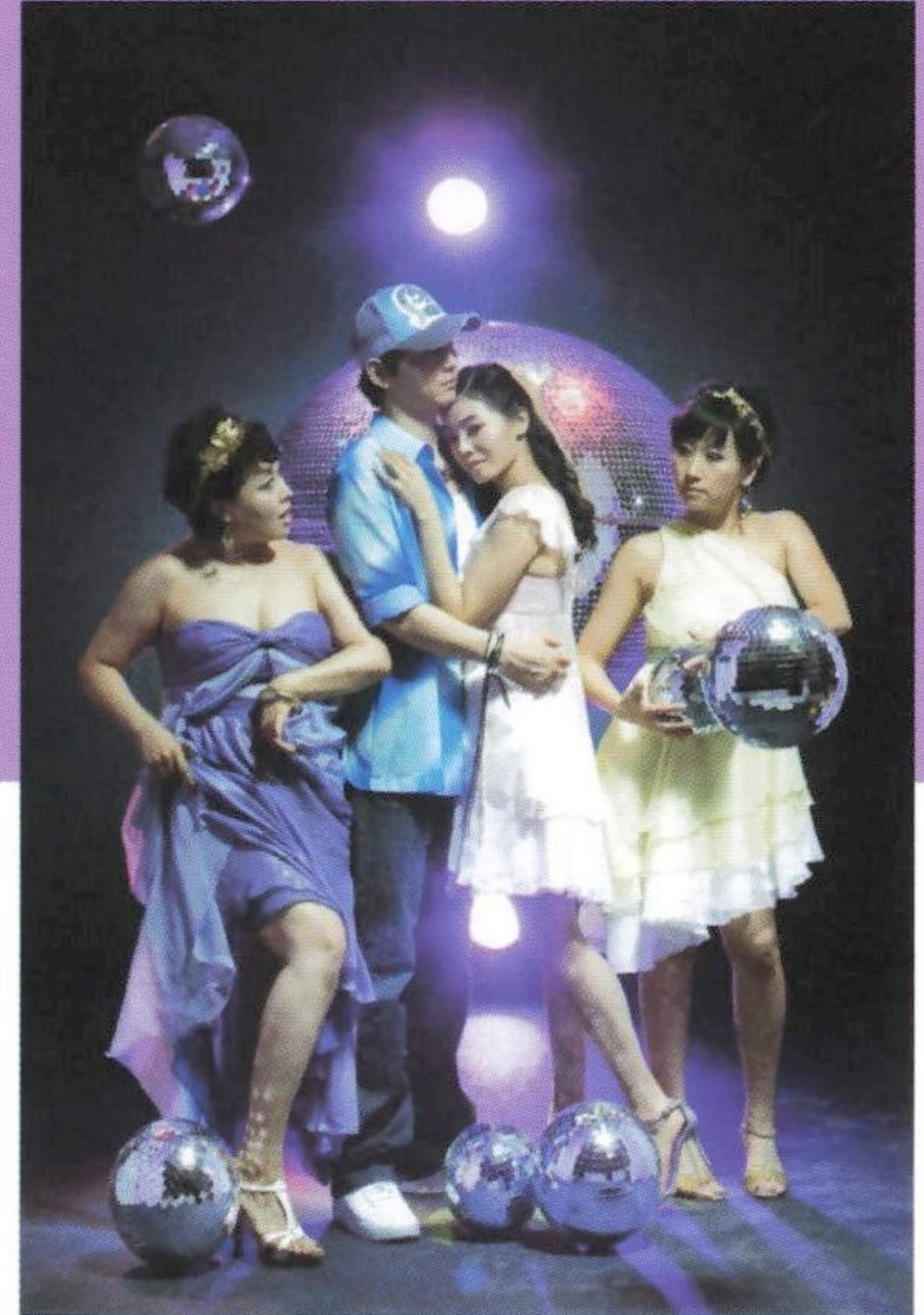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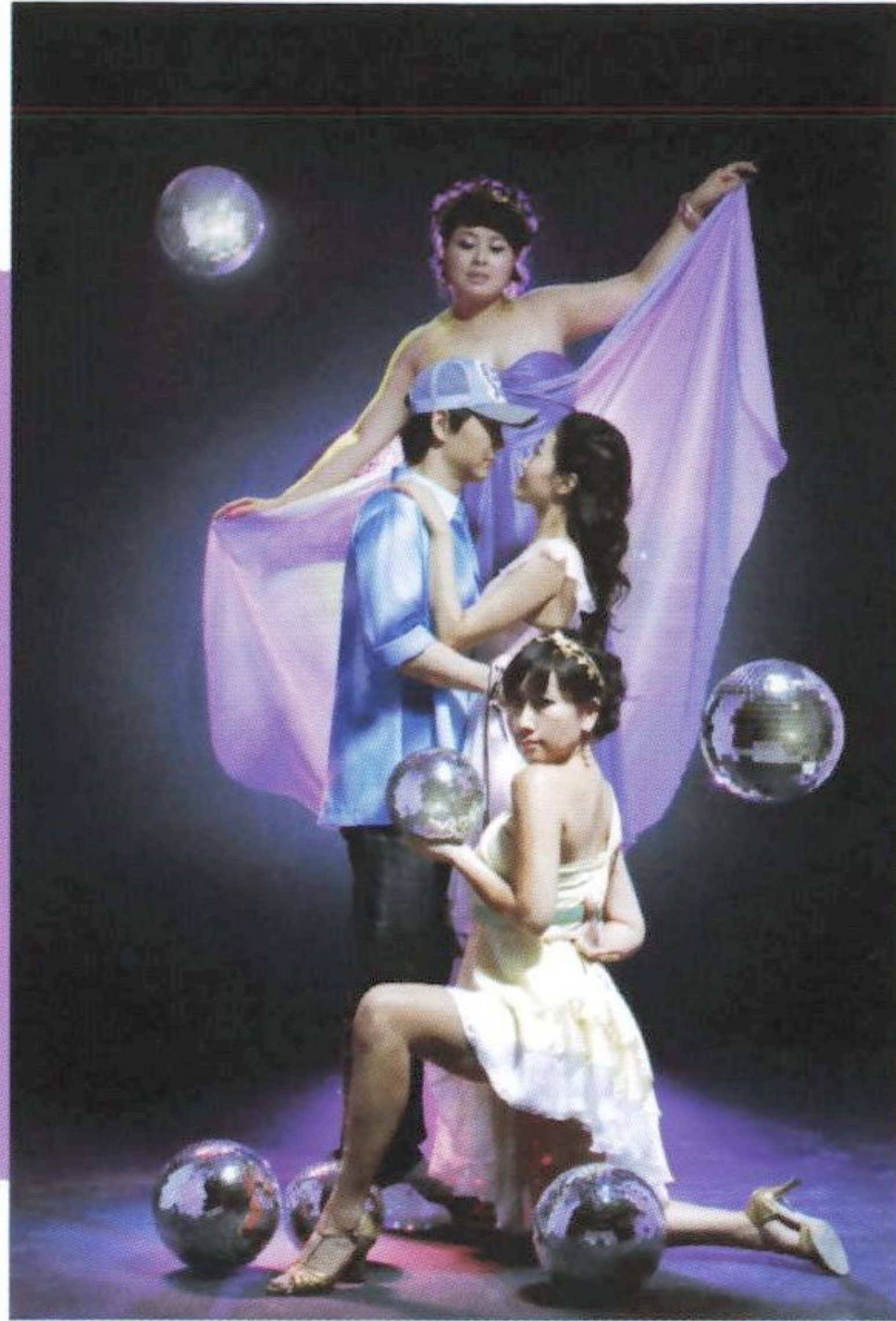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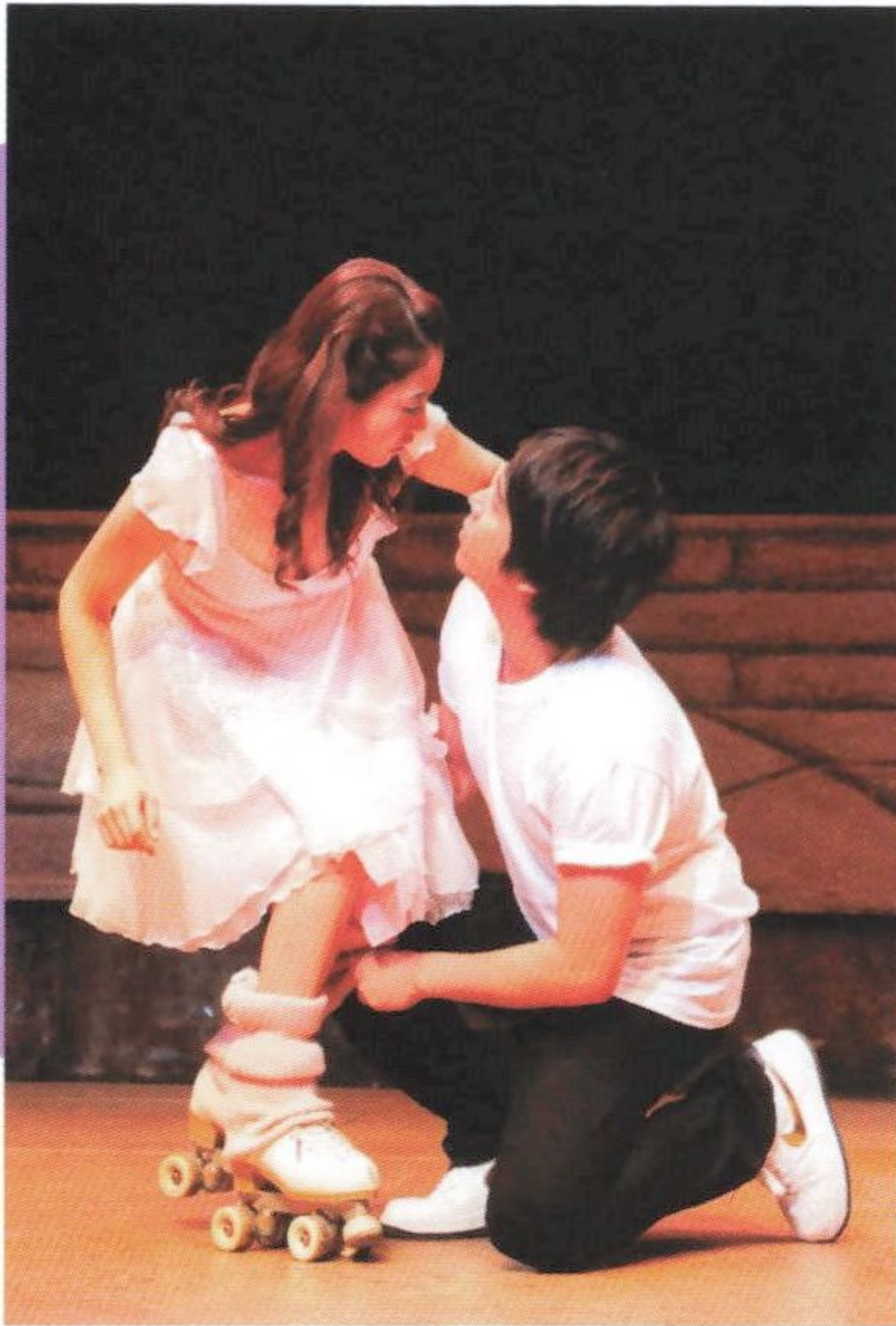
1980년 진 캘리와 올리비아 뉴튼존이 출연했던 영화 '제너두'를 뮤지컬 무대로 옮긴 화제의 뮤지컬 '제너두'가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 기념 기획공연으로 부산무대에서 펼쳐진다.

현재 미국 브로드웨이 헬렌 헤이즈 극장(Helen Hayes Theater)에서 공연되고 있는 뮤지컬 '제너두'는 2008년 토니상 4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되었고 2008 Outer Critics Circle Awards에서 Best New Musical Winner를 수상하면서 흥행성과 작품성을 함께 인정받은 화제작이다.

영화 <제너두>는 올리비아 뉴튼존과 뮤지션 E.L.O의 유명한 팝뮤직 'Xanadu'가 흐르는 신나고 코믹한 롤러스케이팅 뮤지컬로 인간과 신의 사랑을 통해 따뜻한 사랑과 예술의 참된 가치를 일깨워주는 작품이다.

그리스 여신 '키라(KIRA)'는 신의 세계 올림푸스에서 지구에 있는 캘리포니아의 베니스 해변으로 내려와 지상에서 예술 지망생인 쏘니(SONNY)를 만나 그에게 예술적 영감을 불어넣어 주고 쏘니는 뛰어난 예술적인 창의력을 발휘하게 된다. 제너두는 그들에 의해 탄생된 최초의 롤러 디스코장 이름이다. 인간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뮤즈의 수칙. 그러나 키라와 쏘니는 서로 사랑의 감정을 느끼지만 질투에 빠져 있던 두 언니들의 음모로 키라와 쏘니의 사랑 또한 큰 혼란에 휩싸이게 된다.

한국판 뮤지컬 '제너두'는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뮤지컬이다. 영화에서 올리비아



뉴튼존이 불러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한 타이틀곡 'Xanadu'와 'Magic' 'Suddenly' 등을 기억하는 40대의 중장년 층들은 '올리비아 뉴튼존'의 음악을 들으며 향수에 젖어들게 되고 30대는 그 시대를 풍미했던 추억의 '롤러 스케이트장'과 마주하게 된다. 그리고 10, 20대 젊은 세대들은 제너두로 뮤지컬 무대에 데뷔한 슈퍼주니어의 강인과 김희철에 열광하며 제너두의 매력에 빠져들게 된다.

'제너두'에는 강인과 김희철 외에도 2001년 한국 뮤지컬 대상에서 신인상을 받고 2003년에 인기스타상을 거머쥔 뮤지컬 스타 이진명이 출연하여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진명은 '미스사이공', '아이다'를 비롯해 '틱틱뚱'에서는 한층 깊어진 연기를 선보여 호평을 받았고 가장 최근에는 연극 '나생문'에서 데니안과 함께 출연해 '무사'를 연기하여 연기력 또한 인정받았다. 그 외에도 홍지민, 김성기, 정선아 등 실력을 겸비한 뮤지컬 배우들이 합세, 작품의 완성도와 재미를 더해준다.

이번 작품은 뮤지컬 '거울 공주 평강 이야기'와 연극 '달링'의 기획과 제작, 브로드웨이 클럽 뮤지컬 '동키쇼' 기획과 연출 등 다수의 공연에 참여한 바 있는 SM아트컴퍼니 대표이사 표인봉이 직접 프로듀싱과 연출을 맡았다.

관객들과 배우가 함께 공연을 만들어 가기 위해 무대 위에 '패너두(FANADU : Fan of XANADU)'석이라는 이름의 관객 참여형 객석을 마련하고 있어 관객들에게 흥미로운 경험을 선사한다.



캐스팅

12월 27일(토) 오후 4:00 공연 : 강인
 오후 7:30 공연 : 김희철
 12월 28일(일) 오후 3:00, 6:30 : 이진명

입장료 R석 88,000원 · S석 77,000원 · A석 55,000원 · B석 44,000원 · 패너두석 44,000원(인터파크 판매)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토요일 공연 5%, 일요일 공연 20% 할인됩니다.)

문의 부산문화회관(607-6057), AN시티(1644-4484)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 기념 기획공연

2008 제야음악회

‘가는애 오는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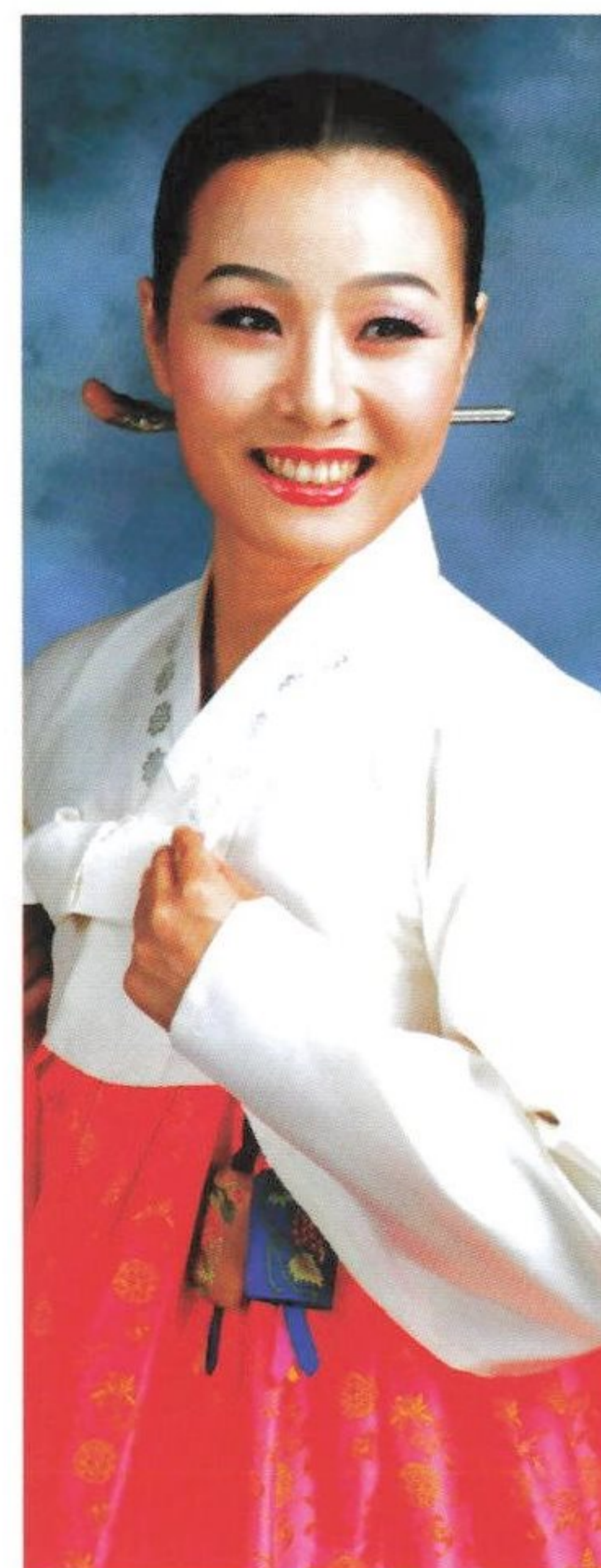
- 12월 31일 수요일 오후 10:3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2008년을 보내는 아쉬움과 밝아오는 2009년 새해에 대한 희망을 담은 부산문화회관 2008 제야 음악회가 12월 31일 오후 10:30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로 막이 오른다. 부산문화회관 제야음악회는 공연장에서 울려 퍼지는 제야의 종소리를 들으며 좋은 사람들과 새해를 맞이하는 제야음악회의 상징성 때문에 매년 매진을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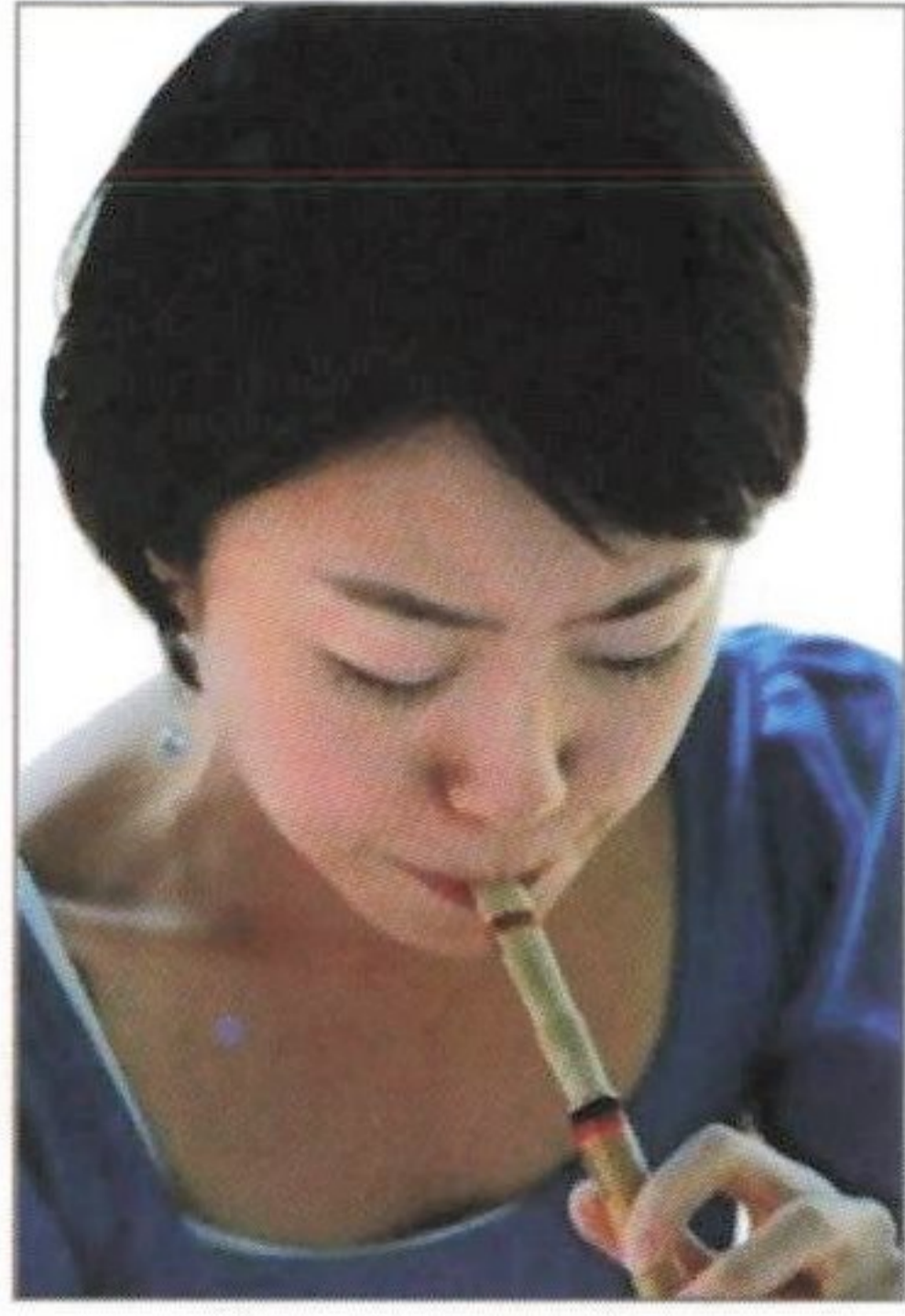
지난 5월 다이나믹 페스티벌 무대로 부산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한 바 있는 SBS예술단 단장 김정택의 객원지휘로 열리는 2008 제야음악회는 사랑을 노래하는 가수 김종환, 소프라노 오미선, 테너 박웅, 소리꾼 박성희, 피리주자 선주희, 부산시립합창단 남성중창팀, SBS예술단 코러스 등이 출연, 열정 넘치는 환희의 무대를 열어준다.

김정택 지휘자는 2000년 새천년 밀레니엄축제 음악감독, 16대 대통령 경축행사 음악감독, 2002 부산 아시안게임 개·폐회식 음악 작·편곡을 맡아 온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 바 있다.

1부 무대는 테너 박웅과 소프라노 오미선, 가수 김종환이 협연자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테너 박웅은 오스트리아 모짜르테움 성악과 및 오페라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오스트리아 등지에서 오페라 ‘마술피리’ ‘사랑의 묘약’ ‘호프만의 이야기’ ‘가짜 여자 정원사’ ‘아르미다’ 등에 출연하며 음악애호가들과 만나왔다. 국립오페라단 주역가수로 활동한 바 있는 소프라노 오미선은 이탈리아 조바니 탈렌티 국제 콩쿠르, 수비아코 음악원 콩쿠르, 아트리 콩쿠르, 페루초 탈리아비니 콩쿠르, 빈첸초 벨리니 콩쿠르 등 다수 콩쿠르에 입상한 재원이다. 부산시립교향악단 협연자로 오랜만에 부산을 찾는 가수 김종환은 ‘존재의 이유’ ‘사랑하는 사람아’ ‘사랑하는 이에게’ 등을 발표하고 2006 제16회 서울가요대상을 수상했다.



1	1. 김정택
2	2. 박웅
3	3. 김종환
4	4. 박성희



2부 무대는 부산의 대표 소리꾼인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단원 박성희가 ‘천지여 천지여’ ‘배 띄워라’ 로 연다. 2004-2005 부산시립예술단 합동공연총체극 즐거워라 무릉도원 주홍란 역을 맡아 열연한 박성희는 2005 Wellseley University 초청 ‘East Asia Music Festival’ 에 한국대표로 참가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부산비엔날레 개막식 무대를 장식한 피리주자 선주희와 이연기, 최기호, 문동환, 최영수, 김진영, 강종철, 박성환, 김추리 등 부산시립합창단 남성중창단, SBS예술단 코러스가 출연, 2009년 밝아오는 새해의 희망을 함께 노래한다.

휴식시간에는 공연장 로비에서 색소폰 주자 방준모의 연주로 한해를 보내는 아쉬움을 함께 나누며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의 살롱음악회와 새해 소망엽서를 작성하며 한해의 복을 기원하는 이벤트도 열린다.

특히 올해는 온 가족이 함께 찾는 제야음악회의 성격에 맞게 가족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4악장과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 을 비롯해 그리운 금강산, 베르디 오페라 ‘춘희’ 중 ‘축배의 노래’, ‘Mamma mia’, ‘캣츠’ 의 뮤지컬 메들리 등 귀에 익은 레퍼토리로 흥겨운 축제의 장을 펼친다.



- | | |
|---|---|
| 1 | 2 |
| 3 | |
| 4 | |
| 5 | |

1. 오미선
2. 선주희
3. 방준모
4. 부산시립합창단 남성중창단
5. 부산시립교향악단



입장료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 A석 2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됩니다.)

문의 부산문화회관(607-6057),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정지용의 <향수>와 사향(思鄕)의 시절

넓은 별 동쪽끝으로 옛이야기 지출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백이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아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비인발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젊은 조름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짚베개를 돌아 고이시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아

흙에서 자란 내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쓴 화살을 찾으려
풀섶이슬에 함추름 휘적시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아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아

하늘에는 성근별
알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 까마귀 우지짚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아



민립 김 상 훈 | 시인, 민족시가연구소 이사장

정지용 시인의 대표작 '향수'의 전편이다. 첫째 연은 고향에 대한 공간적 환기, 둘째 연은 전형적인 농가의 풍경에서 제시되는 육친(肉親)에의 그리움, 셋째 연은 화자(시인)의 구체적인 성장경험, 넷째 연은 다시 구체적 삶의 현장으로의 환원, 다섯째 연은 계절의 순환과 더불어 포착된 고향집의 전경으로 짜여져 있다.

이 시가 그려내는 고향의 정경은 누구에게나 있음직한 추억으로서 강력한 정서적 호소력을 지니고 있으며, '금빛 게으른 울음'이나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뛰어난 감각적 표현은 우리 모두가 고향, 즉 생의 근원에 대해 얼마나 절실하면서도 응축된 소망을 갖고 있는가를 강렬하게 표현하고 있다.

'향수'가 마치 제 2의 애국가처럼 애창된 데는 가곡과 대중가요의 만남과 어울림을 위해 노력한 테너 박인수와 가수 이동

원의 공로가 컸다고 하겠다. 작곡은 '킬리만자로의 표범' '그 겨울 찾집'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하얀목련' '눈동자' 등을 작곡한 김희갑 씨로 알려져있다.

시인 정지용 선생은 1902년 5월 15일(음) 충북 옥천군 옥천면 하계리에서 출생했으며 휘문고보를 거쳐 일본 도시샤(同志社)대학 영문과를 졸업했다. 휘문고 재학 중 선배인 홍사용(洪思容), 박종화(朴鐘和), 김영랑(金永郎), 후배인 이태준(李泰俊)을 만나 글쓰기의 재능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박팔양(朴八陽) 등과 함께 <요람>이란 동인지를 발간하고 그의 대표작 '향수' '압천' '카페 프랑스' '슬픈인상화' '슬픈기차' '풍랑몽' 등을 발표, 1926년부터 본격적인 시작에 정진했다. 1930년 <시문학> 동인으로 참가 '이른봄 아침' 'Dahlia' '경도압천' '선취' '바다' '피리' '저녁햇살' '호수' 등 참신한 감각적 이미지의 시를 발표했다. 한편 잡지 <카톨릭 청년>의 편집고문을 맡아 이상(李箱)의 시들을 발표하여 시단에 내세웠고, <문장>을 통해 박목월(朴木月), 조지훈(趙芝薰), 박두진(朴斗鎭) 등 청록파(靑鹿派) 시인들을 등단시켰다.

그의 두 번째 시집 <백록담>에 실린 '백록담'을 읽으면 조국의 자연에 대한 깊은 탐색을 내면의 언어로 형상화시키는 높은 경지를 보여준다.

“물도 마르기전에/어미를 여윈 어린 송아지는/움매-움매-울었다//말을 보고도/등산객을 보고도/매어 달렸다//우리 새끼들도/모색(毛色)이 다른 어미에게/맡길것을 나는 울었다” 는 대목에서 시인은 우리들의 다음세대가 어떤 이민족(異民族)에게 말과 글을 배우게 되고 억압당하고 수탈당하고 유린 당할 것인가 하는 미지의 불행에 대해 통곡(痛哭)을 터뜨리고 있다.

한마디로 그는 감각적인 시어와 선명한 이미지를 구사하여, 1930년대를 전후 한국시의 새로운 국면을 '언어의 예술'이라는 자각위에서 개척한 사람이라고 하겠다.

소설가 이태준(李泰俊)이 월북하자 “이태준군 조국의 서울로 돌아오라”라는 글을 쓰기도 했으나 6·25전쟁 때 서울을 빠져나오지 못해 북한 정치보위부에 체포,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납북되었으며 지금까지 생사가 묘연하나 별세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988년 정지용 문학이 해금되자 <지용회>가 결성되어 매년 <옥천지용제>가 거행되고 있고 고향 옥천면 하계리에는 생가가 잘 복원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정지용문학관>도 훌륭하게 건립, 운영되고 있다.

“할아버지가/담뱃대를 물고/뜰에 나가시니/꽃은 날도 곱게 개이고//할아버지가/도롱이를 입고/뜰에 나가시니/가문 날도 비가 오시네”

“얼굴 하나야/손바닥 둘로/꼭 가리지만/보고 싶은 마음/호수만하니/눈감을 수밖에”

앞은 정지용의 <할아버지>란 시며, 뒤는 역시 정지용의 <호수>라는 시다. 가을은 사향(思鄉)의 계절이며, 사친(思親)의 계절이다. 뿐만 아니라 귀근(歸根)의 계절이며, 귀심(歸心)의 계절이기도 하다.

지용 선생이 생존하고 계신다면 올해로 106세가 된다. 남북 분단, 동족상잔이란 역사적 비극만 없었더라면 얼마나 훌륭한 명작들을 더 많이 남겼을까 생각하니,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 그지없다.

아름다운시 아름다운 노래는 이번호로 끝을 맺습니다.
그동안 집필해주신 김상훈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한류의 원조 조선통신사
새로운 400년!

조선통신사 한·일 친선의 밤





백 경 옥 | 예술에의 초대 편집장

10월 24일 조선통신사의 종착지인 동경에서 조선통신사 401주년과 도쿄민단 중앙본부 창립 61주년을 기념하는 새로운 400년! 성신교린(誠信交隣)의 축제 '조선통신사 한·일 친선의 밤'이 신주쿠 문화센터에서 열렸다.

부산에서는 부산시립무용단과 남산놀이마당, 비보이팀 나타라자 크루가 참가하고 일본에서는 동경한국학교 무용단과 일본에서 활동하는 가수 김연자 씨가 '한·일 친선의 밤' 무대에 참가했다. 2박 3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조선통신사와 우리를 반겨주는 민단의 뜨거운 호응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조선통신사는 임진왜란 후인 1607년(선조 40년)부터 1811년까지 11회에 걸쳐 에도막부의 요청으로 200여년간 조선에서 일본으로 파견된 외교 사절단이다. 조선 전기에는 보빙사, 회례사 등 다양한 이름으로 파견되기도 했다. 당시 조선통신사는 한양(현 서울)을 출발하여 부산에서 오사카까지는 해로로 이동했고 오사카에서 종착지인 에도(현 동경)까지는 육로로 이동했다. 조선통신사 일행들은 한양을 출발하여 에도에 도착하기까지 6~9개월이 걸리는 힘든 장정을 견뎌내야 했다.

교토에서 에도까지 가는 통신사 행렬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거대한 퍼레이드로, 지금 일본인들이 한류에 열광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즐거운 구경거리였다고 전해진다. 일본에서는 당시 조선통신사 일행의 많은 짐을 운반하기 위해 30여 만 명의 일꾼과 8만 마리의 말이 동원되었다고 하니 그 규모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2008년 조선통신사 401주년을 맞아 정치적인 악제 속에서도 400년 전 평화를 기원한 조선통신사의 참뜻을 되새기기 위한 기념사업들이 한국과 일본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400년 전 긴 여정을 시작한 부산에서 지금은 비행기를 타고 두 시간 남짓이면 동경에 도착한다. 4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문화의 메신저로 힘든 뱃길을 견디며 지나간 여정을 시작했던 그 순간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으로 가는 길은 역시 그리 순탄하지 않았다. 동경으로 출발하는 10월 23일, 때 아닌 폭우가 쏟아졌다.

동경 도착과 함께 강남주 조선통신사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부산시립무용단 일행들은 조선통신사들이 그 시절 그랬던 것처럼 아사쿠사 센소지에 들었다. 센소지는 에도시대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막부를 기원하는 장소로 지정해 상가문화의 중심이 되었고 지금도 에도시대의 풍경을 느낄 수 있는 동경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사랑받고 있다. 신년에는 복을 빌기 위해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센소지는 250m에 걸친 상점가 나카미세(仲見世)가 이어져 있어 일본다운 아기자기한 기념품들과 먹거리로 관광객들의 눈을 즐겁게 하고 있다. 우리가 찾은 그날 역시 동경의 대표 관광지답게 동·서양의 여행객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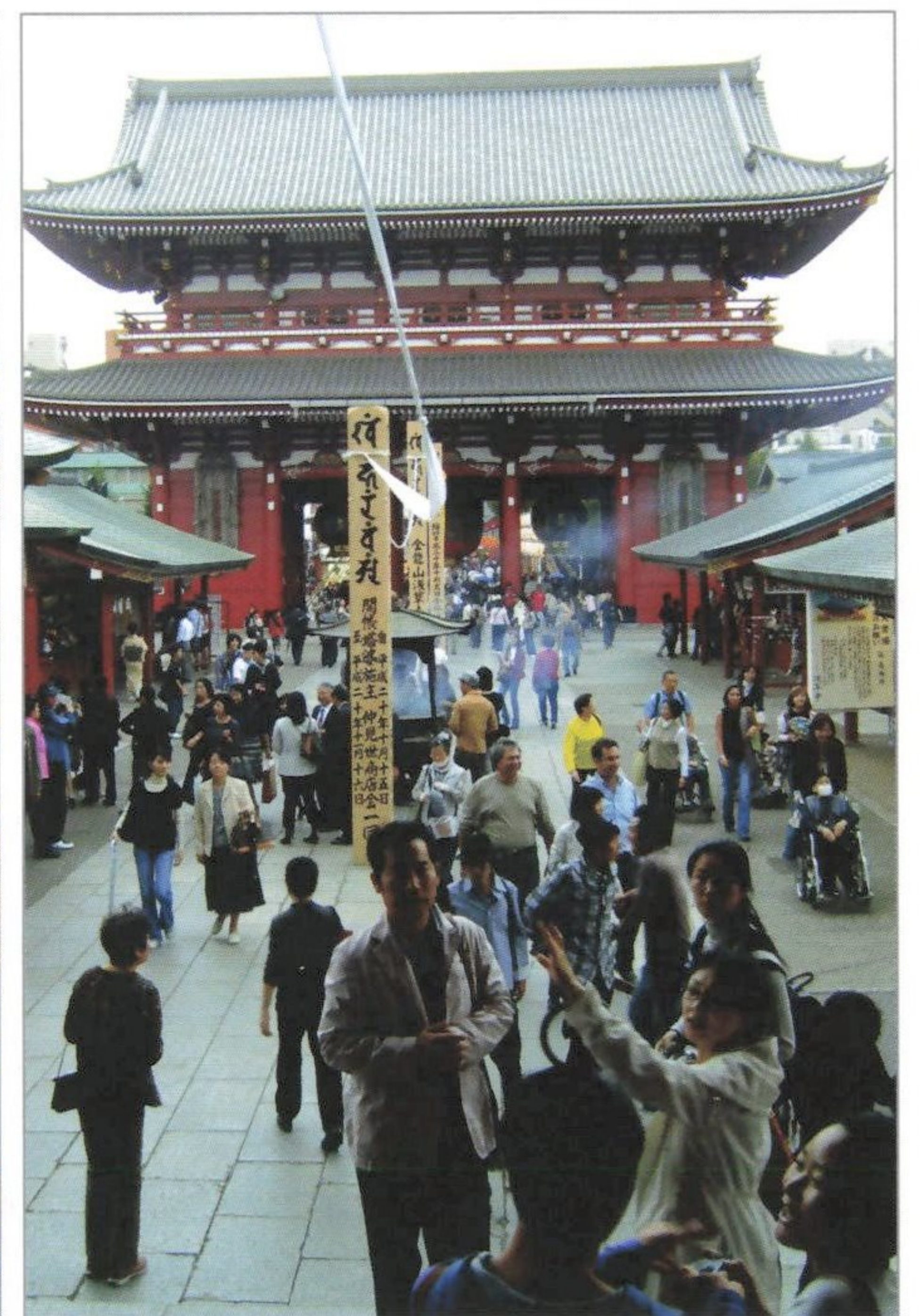
기록에 의하면 조선통신사가 막부로 갈 때 도로변은 행렬을 환영하는 인파로 붐볐다고 한다. 특히 조선통신사 행렬을 2층에서 내려다보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결례로 여겼다는 이야기가 아직 전해지는 걸 보니 400년 전 조선통신사가 지금 아시

아 전역에 불고 있는 한류의 원조였다는 말이 새삼 실감났다.

10월 24일 ‘한·일 친선의 밤’이 열린 신주쿠 문화센터에는 가을비가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1,800석 객석이 모두 차 그 열기가 뜨거웠다. 동경한국학교 무용단의 사물놀이, 부채춤과 일본 가요로 문을 연 ‘한·일 친선교류의 밤’은 부산시립무용단의 천하태평지무와 화중신선, 남산놀이마당과 비보이팀 나타라자 크루가 함께 꾸민 열정적인 무대, 일본 전통악기와 전통 무용, 거기에 일본 정상을 지키고 있는 가수 김연자 씨의 무대까지 한국과 일본이 문화로 하나 될 수 있었던 뜻 깊은 시간이었다.

한국무용하면 으레 부채춤만 떠올리는 일본인들에게 부산시립무용단의 ‘화중신선’은 특별한 문화체험이었다. 해변의 꽃을 표현하는 이 작품은 새하얀 꽃송이를 들고 아름답고 역동적인 춤사위를 그려낸다. 또한 영남농악의 신명난 가락과 어우러져 꽃송이를 든 여인들의 청초함은 대조를 이루는 듯, 조화를 이루는 듯, 순결한 심장의 고동소리처럼 관객의 가슴 속에 박동쳤다. 남산놀이마당과 나타라자 크루의 공연도 큰 박수를 받았다. 쉽없이 돌아가는 상모와 나타라자 크루의 현란한 몸 놀림에 공연장의 열기도 달아 올랐다.

마지막 무대를 장식한 김연자 씨도 한국에서 방문한 공연단



의 흥겨운 무대에 감동을 받았는지 예정된 곡보다 더 많은 곡들을 부르며 이날 무대를 지켰다. 한류 때문인지 대장금 OST '오나라'와 태왕사신기 OST '천년연가'도 들려 주었다. 3시간이 넘는 긴 시간동안 진행된 공연이었지만 자리를 뜨는 사람 없이 열띤 박수로 답하며 한국에서 온 공연단에 예를 표하는 그들의 모습에 많이 놀랐다.

공연 다음날인 10월 25일 우리 일행은 다음날 열린 조선통신사 행렬에는 참가하지 않고 귀국했다. 부산에 돌아와 보도로 26일 행사소식을 접했지만 '한·일 친선의 밤'에 느낀 감동이 살아나 마치 그 행렬 속에 내가 있었던 것처럼 흥분되었다. 26일 날씨가 흐린 가운데 진행된 조선통신사 행렬은 2008년 동경에서 열린 최대 규모 축제 중 하나로 일본 전역에서 예능단체와 동경시민 등 3천여 명이 참가해 웅장한 조선통신사 행렬에 큰 박수를 보냈다고 한다.

조선통신사의 새로운 400년을 시작하는 이번 행사는 개인적으로도 조선통신사를 알게 된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 내년에는 내 아이에게도 400년 전 일본으로 향한 조선통신사의 선린 우호 정신과 감동적인 행렬을 보여주고 싶다.

빛 속에서 방문한 오다이바 인공도시와 메이지 신궁. 누가 이름을 지었는지 오다이바를 연결하는 다리 이름이 '레인보우 브릿지'였다. 레인보우라는 단어에서 신기루나 환상의 느낌이



강한데 일본인들은 바다를 메워 최신식 쇼핑타운과 어뮤즈먼트, 호텔, 방송국과 박람회장 등 다채로운 시설이 갖춰진 신개념의 리조트식 타운 '오다이바'를 만들었다.

오다이바 또 하나의 명물은 자유의 여신상이다. 일본의 후지산케이 그룹이 프랑스의 해를 기념하여 1998년부터 1년간 파리의 '미니 자유의 여신상'을 빌려와 1999년에 프랑스로 반환했다고 한다. 그런데 1년간 오다이바 해변가에서 있는 동안 오다이바의 랜드마크가 될만큼 상징성이 엄청나 프랑스에 모조품 허가 신청을 내고 복제품을 만든 것이 지금의 <자유의 여신상>이 된 것이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레인보우 브릿지와 오다이바는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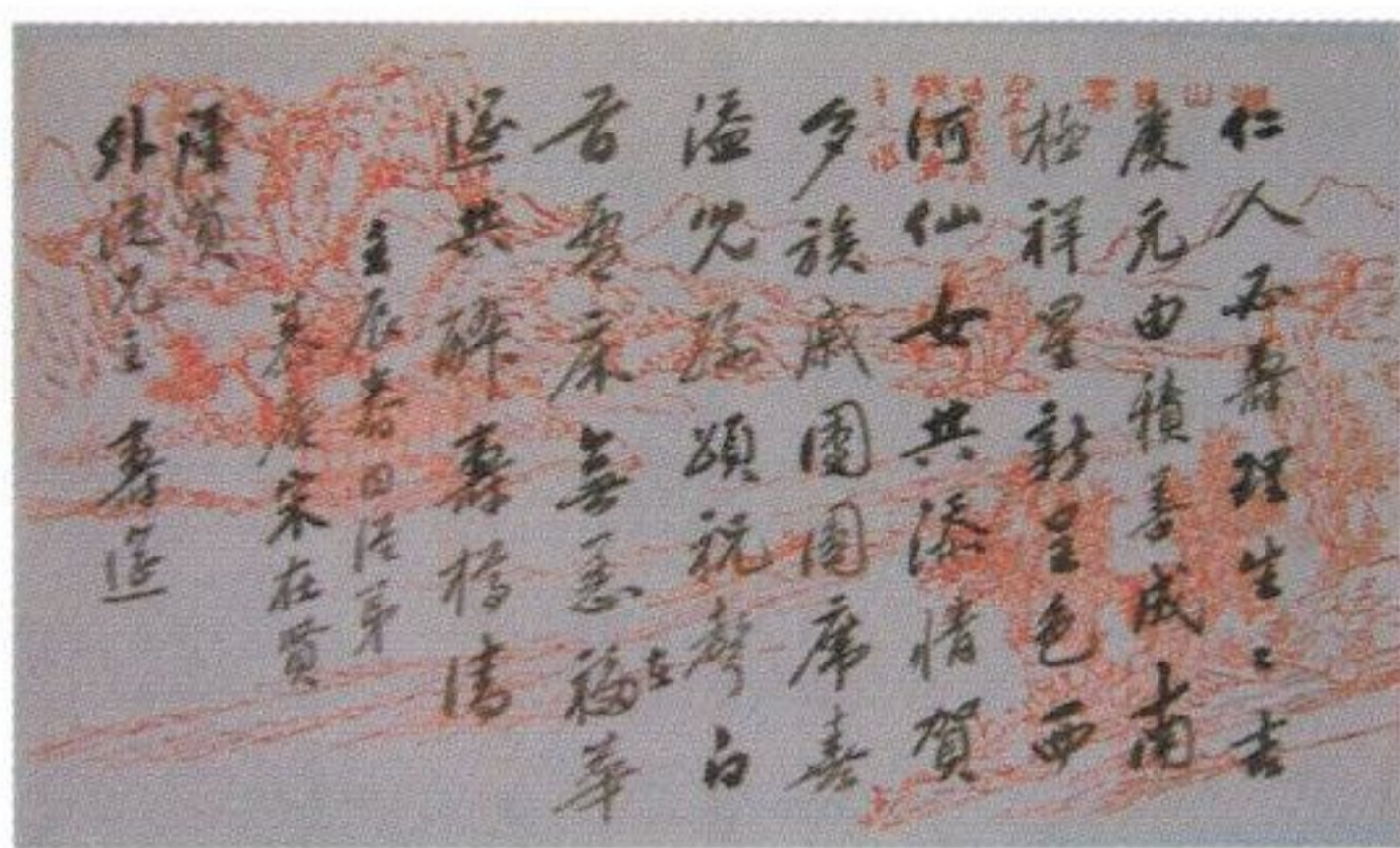
우리나라 고판화

선과 면이 꾸미는 생활의 맛



금박을 찍기 위해 사용된
목판 문양

채 경 혜 | 한국판화예술연구원 대표



시전지판을 찍어 사용한 편지



편지봉투를 붙인 후 찍은 도장(봉인)



시전지판

목판은 말 그대로 글씨나 그림을 새긴 나무판이다. 조선시대의 판화는 화사(畫師)에 의하여 원화가 그려지고 각공(刻工), 각수(刻手)가 새겼는데 이들의 표현방식에 따라 원화의 그림과는 다른 판화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표현미가 나타났다. 한국화가 먹의 농담과 설채(設彩)라는 기법과 재료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고판화는 회화와는 다른 독특한 선묘(線描)가 있다. 화면상의 효과를 거의 선에 의존해야 하는 목판은 회화와는 달리 각이 진 선과 둥근 선, 굵은 선과 가는 선, 예리한 선과 부드러운 선, 물결이나 구름, 산의 주름, 문양에 의한 상징처리, 인물 표정의 정형화 등을 통해 각선의 맛을 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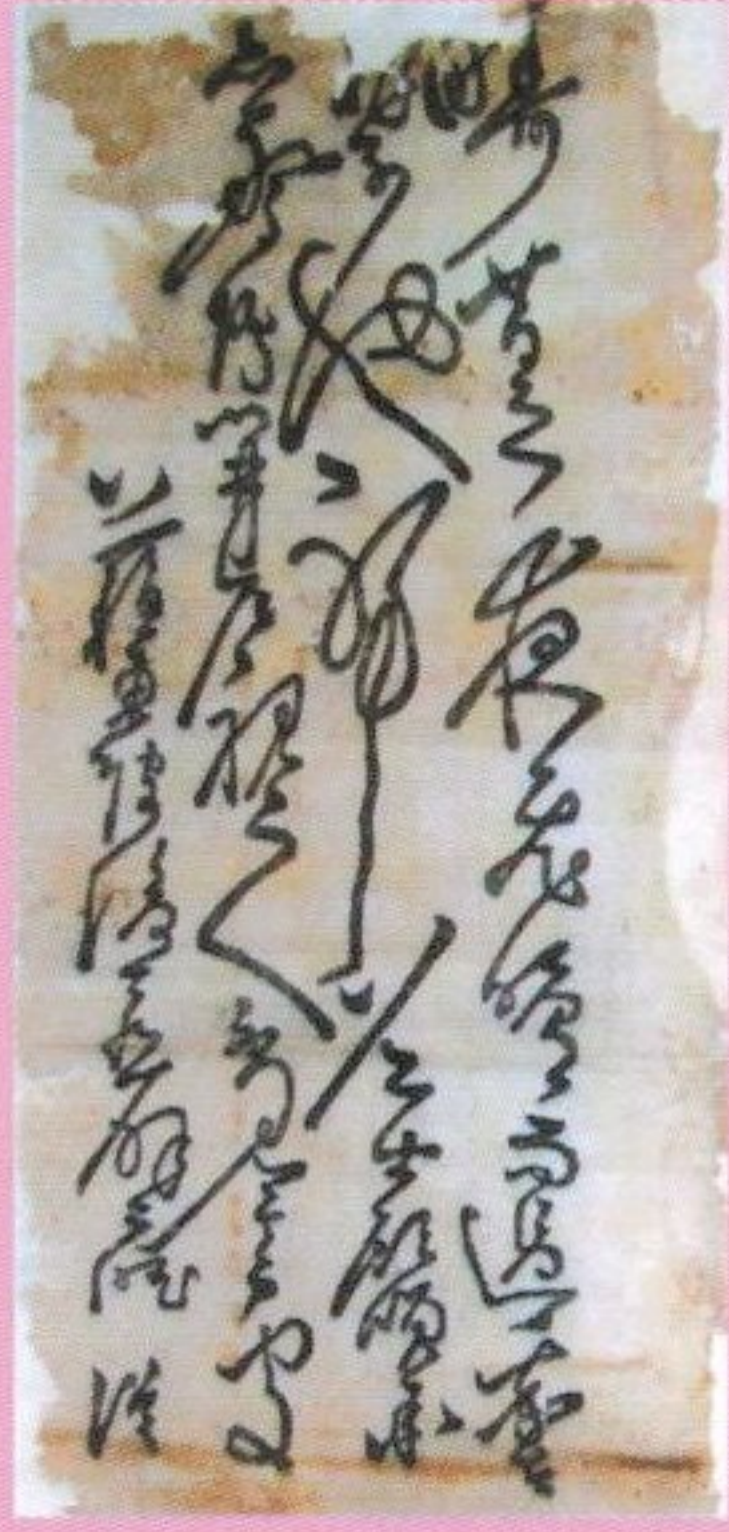
고판화는 각선의 칼 맛과 목판 위에 종이를 얹어 누르는 힘에 따라 그 느낌이 달라진다. 옛날 각수들의 솜씨를 보면 밑그림으로 그려진 선을 따라 새기는 방법 이외에도 직선의 경우에는 목판활자에서처럼 칼로 힘차게 눌러 옆으로 툭툭 끊어 쳐 내는 독특한 기법을 많이 사용하였는데 이 끊어진 각선의 칼 맛이야말로 회화에서는 구사할 수 없는 판화만의 미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각선의 칼 맛이 목판을 종이에 찍을 때 눌러지는 압력으로 물감과 종이가 접합되면서 만들어내는 독특한 조형적 효과는 먹이나 물감이 종이나 비단 위로 떠오르는 듯한 느낌을 주는 일반회화와는 분명한 차별성을 가진다.

조선시대 판화의 대부분은 먹색 한 가지에 의존한 단색 목판화가 주를 이루었다. 또 음각보다는 여백의미를 잘 살려 파 나가는 양각이 많았다. 불교의 쇠퇴와 더불어 판각의 기술적인 면은 고려 때보다 다소 후퇴한 감이 없지는 않았지만 기교나 정교함보다 표현적인 면에 더 중점을 두었으며, 일상생활에도 사용되어 범 계층적인 대중미술로서 뿌리내렸다.

조선후기에 성행한 민속판화는 민화적인 요소를 내포하여 자연스럽고 천진난만한 회화적인 판화의 세계를 보여주었으며 오히려 서책목판화보다 양적으로 더 많았다.

생활 속의 실용적인 미술로서의 판화를 살펴보면, 예로부터 판화가 우리생활에 얼마나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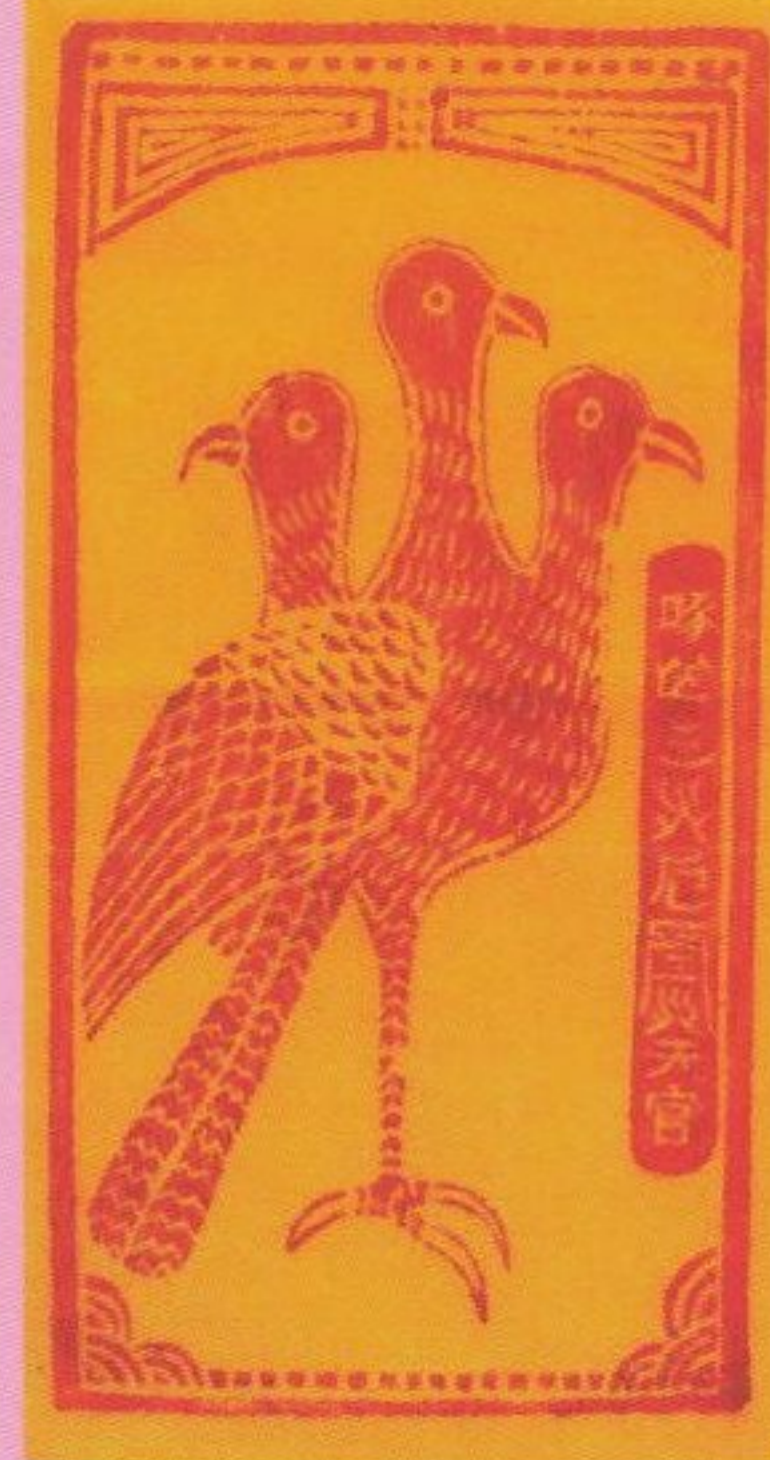
시나 편지지에 단아하게 꽃무늬를 찍는 시전지판(詩箋紙板), 가첩(家牒)과 족보, 책 표지에 화사한 문양을 찍는 능화판(菱花板), 좋은 글귀를 찍는 서판(書板), 지도판(地圖板), 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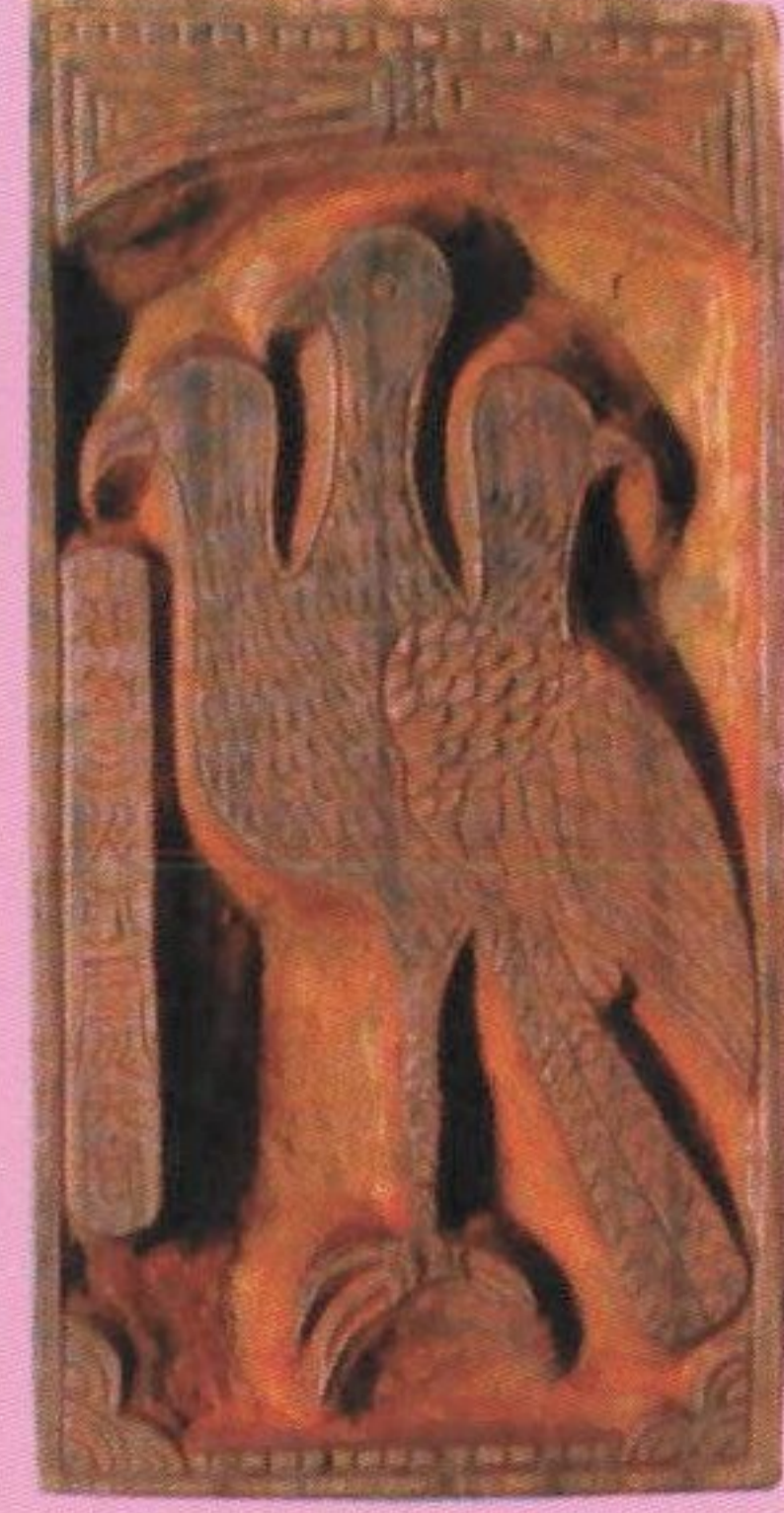
양녕대군 목판글씨



조선후기 서판



조선후기 부적(한지에 주사먹)



조선후기 목판부적

(懸板), 보자기 등 형겅이나 종이에 날염(捺染)한 보판, 이불보판, 수(繡)를 놓기 위한 밑그림에 사용된 수판(繡板), 종이, 먹, 붓 등 문방제구를 그린 문방도(文房圖), 문자도(文字圖), 벽지나 반자판에 무늬를 찍어내는 채화판(綵花板), 땡기의 문양을 찍는 땡기판,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떡살 무늬를 넣은 떡판, 민간신앙에 의한 부적판(符籙板), 와당(瓦當)이나 전(塼)을 장식하기 위한 무늬를 찍어내기 위해 만든 주물형식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고판화는 조상들의 섬세한 손때와 숨결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친숙한 장르였다.

당시 풍류를 즐기는 사대부들이 편지의 밑그림으로 사용한 각종 시전지판은 그 원판들과 함께 실제로 사용한 편지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장식문양의 아름다움과 다양함은 조선시대의 생활미를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다. 그리고 성삼문, 허목, 신사임당의 글씨, 퇴계 이황의 성학십도(聖學十圖) 등을 8곡, 10곡 병풍으로 제작하는 것이 당시 유행이었으며, 문자도 책가도 등의 목판하도(木板下圖)가 등장했던 것을 보면 병풍의 수요가 얼마나 많았는지, 또 그 수요층이 일반서민에게까지 얼마나 많이 확산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특별히 시선을 끄는 것은 고산자(高山子) 김정호가 목판으로 제작한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이다. 1985년 보물제850호로 지정된 대동여지도는 1861년

초판이 제작되고 1864년 수정판이 제작되었는데 그 각법이 매우 정교해서 근대적 측량이 이루어지기 전 제작된 한반도의 지도 중 가장 정확한 지도로, 지도로서의 가치와 함께 목판기술의 우수성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불화에 바탕을 두고 있는 민화와 부적은 특히 인기가 있었다.

민화는 일상생활의 여러 단면들을 표현하는 실용적인 미술인 까닭에 다양한 유형을 보인다. 꽃, 대나무, 초충도, 목단, 십장생, 연꽃, 호랑이, 까치호랑이, 사신도, 책가도(冊架圖) 등의 민화류와 전통회화에서 즐겨 다루었던 연꽃과 새, 연꽃과 물새, 소채류 등이 판화로 많이 제작되었지만 대부분 작가의 이름을 남기지 않았다.

이렇듯 익명이었던 까닭에 어떤 선입견이나 개념에서 자유로웠던 민화작가들은 표현에 있어서도 훨씬 자유로울 수가 있었으며, 그저 일상의 정신과 주제, 상징만을 표현했으며 판화도 그 점에서는 예외가 아니었다. 그래서 하나의 원화를 바탕으로 한 조금씩 변용된 동일한 패턴의 판화작품들을 볼 수 있다.

근대 이후, 표면적으로는 소위 근대화의 물결과 역사의 격랑 속에서 판화는 그 자취를 감춘 듯 보였지만, 사실은 전래의 판화기법을 응용한 판화형식은 민간에서 생활용구들과 밀착되면서 그 명맥을 계속 이어왔다. 어떤 부분에서는 오히려 생활

과 보다 더 밀착되어 소위 생활판화라 하는 형식을 발전시켜 왔다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우리 고유의 판화 기법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고 재창출하여 생활 속으로 접근하는 시도가 다방면으로 행해지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장서표(藏書票)를 들 수 있는데, 장서표는 책의 표지나 뒷면 또는 속표지에 붙이는 책의 소장자를 밝히는 소형판화의 한 형식이다. 문자와 그림이 조화롭게 결합하는 것을 그 기본적인 특색으로 하는데, 이는 예로부터의 장서인(藏書印)이 보다 더 예술적으로 발전되어 독립된 장르로 정착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 외에도 생활도자기나 전통한지로 형을 뜨고 표면을 판화로 장식한 용기류, 벽걸이와 가리개, 스카프와 넥타이, 카드, 책표지와 삽화, 공연 포스터 등 일상생활의 호흡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친숙한 분야로 판화의 기법이 점차 더 활용되고 있다.

이제 생활판화라는 개념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미술과 일상과의 접목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를 들여다보면 점차 삭막해져 가고 있는 현대인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일상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만드는데 있어 판화는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한다. 더구나 현대판화가 보다 깊이 있게 전통의 미의식과 정서를 연구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우리 고유의 조형미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부산여성문화회관 미루샘합창단



최근 들어 자아실현과 더불어 따뜻한 이웃사랑을 펼치는 아마추어 연주단체들이 늘고 있다. 15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부산여성문화회관 미루샘합창단(이하 미루샘합창단) 역시 음악에 대한 열정과 사랑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음악사랑을 펼치고 있는 아마추어 어머니 합창단이다.

지난 1993년 부산여성문화회관에서 운영하는 가곡반 수강생들이 뜻을 모아 창단한 미루샘합창단은 현재 창단멤버인 노은례 씨를 비롯해 성광순, 현영숙 씨 등 활동한 지 10년이 넘는 고참 단원들부터 최근 가입한 신규 단원까지 단원 30명이 활동하고 있다. 합창단 이름인 '미루샘'은 '푸른 미루나무와 맑은 웅달샘 같은 합창단이 되자'는 단원들의 바람.

합창단 연습을 겸한 정기모임은 매주 화요일 부산여성문화회관에서 가진다. 11월 27일 정기연주회를 앞둔 요즘은 이들이 멀다 모여 화음을 맞추고 있다. 미루샘합창단은 창단 이듬해인 1994년부터 매년 정기연주회를 가져오고 있다. 11월 27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열리는 2008년 정기연주회는 열 세번째로 마련하는 정기연주회 무대이다. 정기연주회 외에도 부산 어머니 합창발표회 특별출연, 부산아시아게임 성공다짐 결의대회 초청연주, 부산합창제, 광복절 경축행사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그러나 미루샘합창단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연은 바로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하는 무대이다. 매달 괴정범일병원을 방문

해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음악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미루샘합창단은 매년 정기연주회 수익금으로 결식아동과 백혈병, 소아암 아동을 돕는데 사용하고 있다.

미루샘합창단은 현재 바리톤 고봉수 씨가 지휘를 맡아 합창단을 이끌고 있다. 얼마 전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드라마 속 주인공 이름을 따 평소 단원들로부터 '고마에'라 불린다는 고봉수 씨. 비록 아마추어 합창단이지만 어느 프로합창단 못지않은 연주를 관객들에게 들려주고 싶다는 그는 대중을 인정하지 않는 완벽주의자이기도 하다.

"감히 스스로 음악쟁이라 말하고 싶다"는 단원 현영숙 씨. 노래가 좋아 합창단 단원으로 활동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앞으로 20년, 30년 미루샘합창단의 전통에 함께 하고 싶은 바람을 갖고 있다.

단원으로 활동한 지 3년이 됐다는 최성은 씨는 현재 미루샘합창단 단장을 맡아 합창단을 챙기고 있다. 우연히 부산여성문화회관에 들렀다가 연습중이던 합창단의 노래선율에 이끌려 미루샘여성합창단과 인연을 맺었다는 그는 무엇보다 음악을 통한 세상과의 소통이 즐겁기만 하다.

미루샘합창단은 내년인 2009년 부산의 자매도시인 일본 후쿠오카를 대표하는 '코로사토합창단'과 교류음악회를 가진다. 때맞춰 내년이 부산과 후쿠오카 교류 20주년을 기념하는 해라 더욱 의미가 크다. 교류무대는 5월과 11월 부산과 후쿠오카에서 열린다. 지난 10월 22일에는 합창단 단원들이 직접 후쿠오카를 방문해 '코로사토합창단' 정기연주회를 직접 참관했다. 11월 27일 열리는 미루샘합창단 정기연주회에는 '코로사토합창단'이 참석할 예정이라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땀을 흘리고 있다. 함께 땀을 흘릴 수 있는 열정적인 여성들에게 미루샘여성합창단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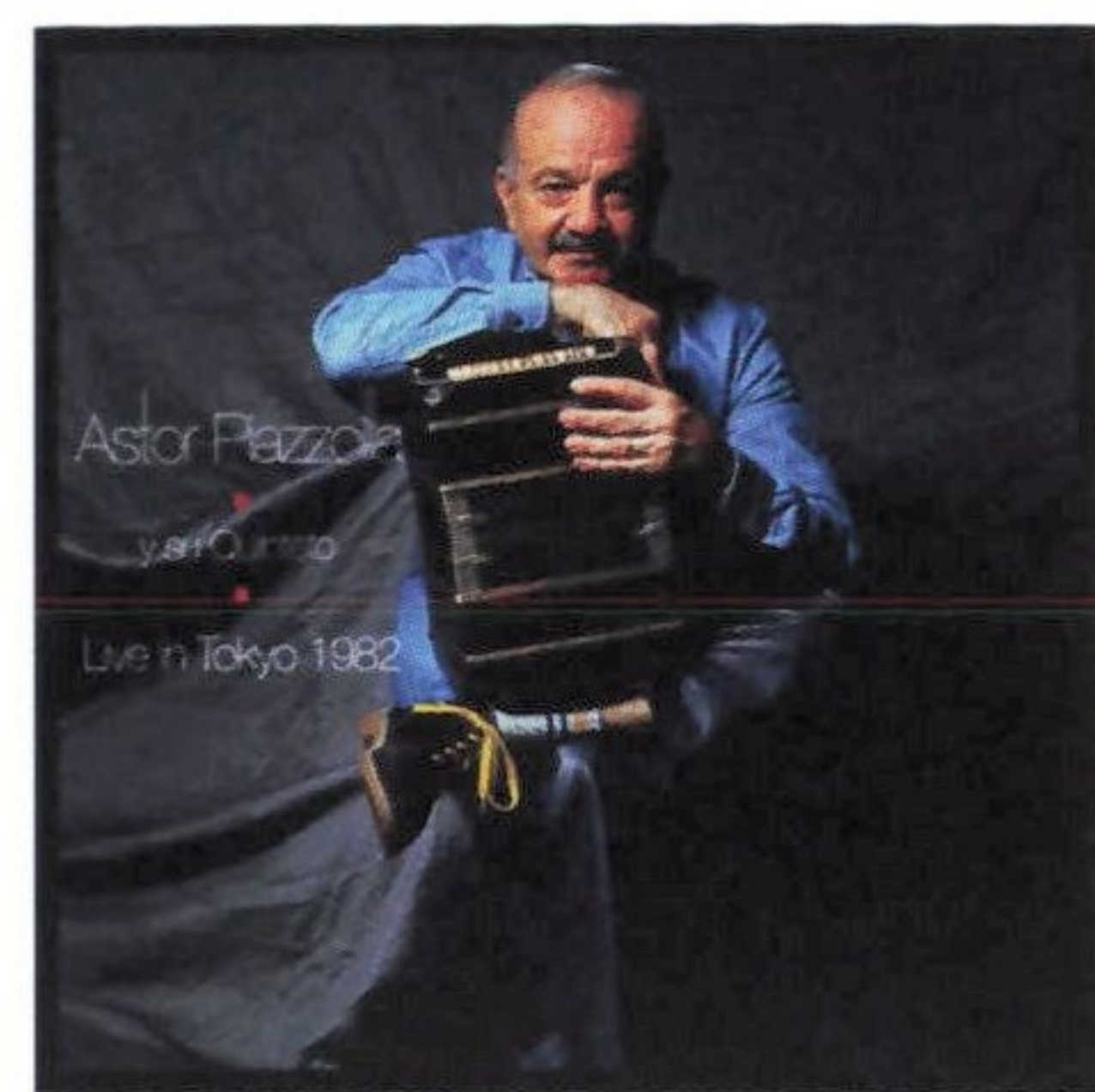
■문의/미루샘합창단

(010-4434-6605, <http://cafe.daum.net/amorenore>)

아르헨티나 IV

아 스토 르 피 아 졸 라

A s t o r P i a z z o | | a



황 윤 기 | 음악 칼럼니스트 · 국악방송 '황윤기의 세계음악여행' DJ

탱고의 시작을 정확한 연도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19세기 후반 경으로만 본다 해도 이제 그 역사는 100년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노래로 표현하는 탱고(tango canción)'를 시작했던 탱고의 황제 까를로스 가르델을 비롯한 많은 거장들이 아르헨티나 탱고의 황금기를 이끌었다. 항구의 빈민가에서 시작된 탱고는 세월의 격동 속에서 상류층과 지식층으로 퍼져나가며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를 매료시켰고,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우울한 정서를 담은 그 독특한 리듬은 오늘날 장르의 벽을 뛰어 넘어 클래식과 재즈에서도 의미 있는 소재로 사용되며 사랑받고 있다. 그 중심에 까를로스 가르델과 아스토르 피아졸라(Astor Piazzolla)가 자리한다.

뛰어난 반도네온 연주자이자 혁신적인 작곡가였던 피아졸라는 탱고를 춤을 위한 음악이 아닌 감상을 위한 음악으로 바꾸어 놓았다. 클래식과 재즈를 도입하며 탱고의 역사를 바꾼 일대 혁명을 일으킨 것이다. 그리고 피아졸라라는 이름으로 탱고를 대변할 수 있을 만큼 탱고가 하나의 예술로 자리 잡는 데 커다란 공헌을 했다.

피아졸라는 1921년 마르 델 플라타(Mar del Plata)에서 태어났다. 세 살 때 가족과 미국으로 이주했던 그는 뉴욕의 뒷골목에서 거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된다. 아버지는 이발사였고, 어머니는 재봉사이자 미용사였다. 피아졸라가 처음 반도네온을 잡은 것은 그의 나이 여덟 살 때였다. 피아졸라가 태어나기 전날 만삭의 어머니를 이끌고 탱고 공연을 보러 갈 정도로 열렬한 탱고팬이었던 아버지에게 생일 선물로 받은 것이다. 훗날 아들이 최고의 반도네온 연주자가 되길 바랐던 아버지의 소망은 이루어졌고, 피아졸라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아디오스 노니뇨'라는 명곡을 헌정하기도 했다. 어린 시절부터 라디오 연주회에서 반도네온을 연주했던 피아졸라는 까를로스 가르델의 마지막 영화에 출연하면서 탱고의 황제와 특별한 인연을 맺으며 탱고의 운명에 좀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된다.

1937년 그의 가족은 다시 아르헨티나로 돌아왔고, 젊은 피아졸라는 거장 아니발 트로일로가 이끄는 밴드에서 반도네온 솔로 주자로 활동을 시작했다. 한편 클래식을 통해 작곡을 공부하던 그는 한

작곡 경연 대회에서 1등을 하면서 파리 음악원으로 유학을 가게 된다. 이곳에서 피아졸라는 자신의 인생에 결정적인 방향을 제시해 준 나디아 블랑제를 만나게 된다. 뛰어난 음악 교사였던 나디아 블랑제는 피아졸라의 재능과 개성을 탱고로 향하게 했다.

1955년 부에노스 아이레스로 돌아 온 그는 자신의 밴드를 결성하고 작곡과 연주에 매진하게 되는데, 전통적인 탱고에 클래식과 재즈의 기법을 도입한 그의 음악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다. 스스로 자신의 음악을 '누에보 탱고(Nuevo Tango)', 즉 '새로운 탱고'라고 말했다. 전통적인 탱고 리듬을 사용하지 않는 그의 음악은 춤추기에 적합한 음악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의 순수한 탱고 애호가들에게 심한 반발을 사기도 했지만, 아르헨티나 탱고 음악계에 일대 변혁을 일으키며 젊은 세대의 환호를 받았다. 1974년부터 10년간 그는 유럽에서 활동하며 자신의 새로운 음악을 전 세계 청중들에게 소개했다. 그의 근거지였던 파리를 비롯하여 빈, 암스테르담, 뉴욕, 도쿄 등지에서 연주와 녹음활동을 하다가, 1985년 아르헨티나로 다시 돌아와 1992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생을 마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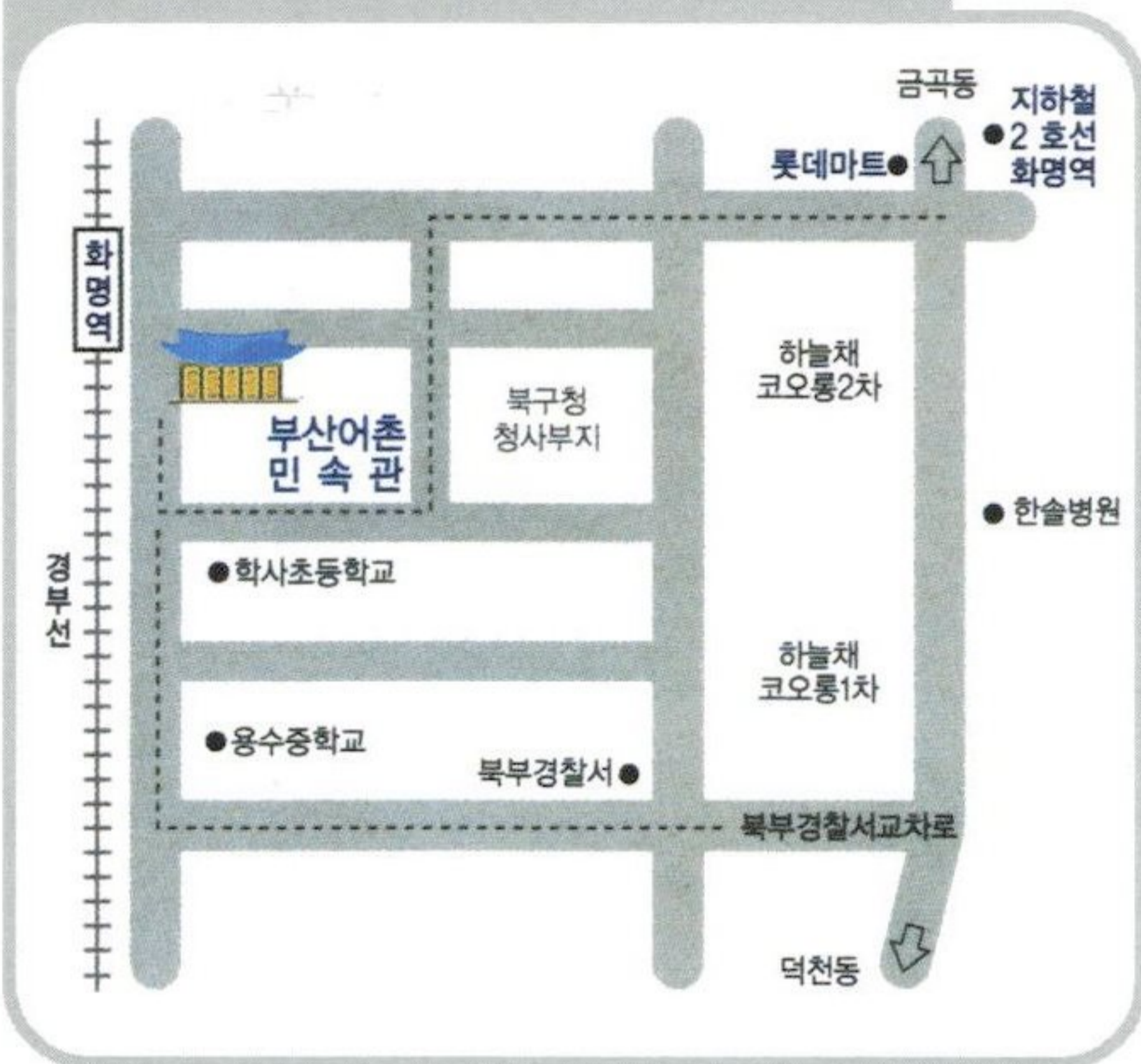
피아졸라의 음악은 새로운 기법에 의한 것이었지만, 어느 작곡가의 음악 못지않게 탱고 본연의 정서를 끌어안고 있었다. 피아졸라 본인도 말했듯이 그의 음악 속에는 부에노스 아이레스라는 도시가 지닌 특별한 분위기가 자리하고 있다. 그것은 탱고가 태생적으로 지녔던 고독하고도 우수에 찬 감성이다. 그리고 그 위에 더해진 새로운 음악적 시도가 탱고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 넣었던 것이다. 탱고에 차원 높은 예술성을 부여한 피아졸라의 음악은 다른 장르의 음악에도 깊은 영감을 주었다. 애호가들에게도 익숙한 이름들인 다니엘 바렌보임, 기돈 크레머, 요-요 마 등 많은 클래식 아티스트들이 그의 음악에 경의를 표하며 레코딩을 남겨 왔고, 재즈에서도 중요한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피아졸라의 음악은 분명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감성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더 이상 아르헨티나의 것으로만 구속할 수 없는 열린 음악으로서의 힘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이다.



강에서 바다로 이어지는 신나는 어촌문화여행

부산어촌민속관

부산어촌민속관 가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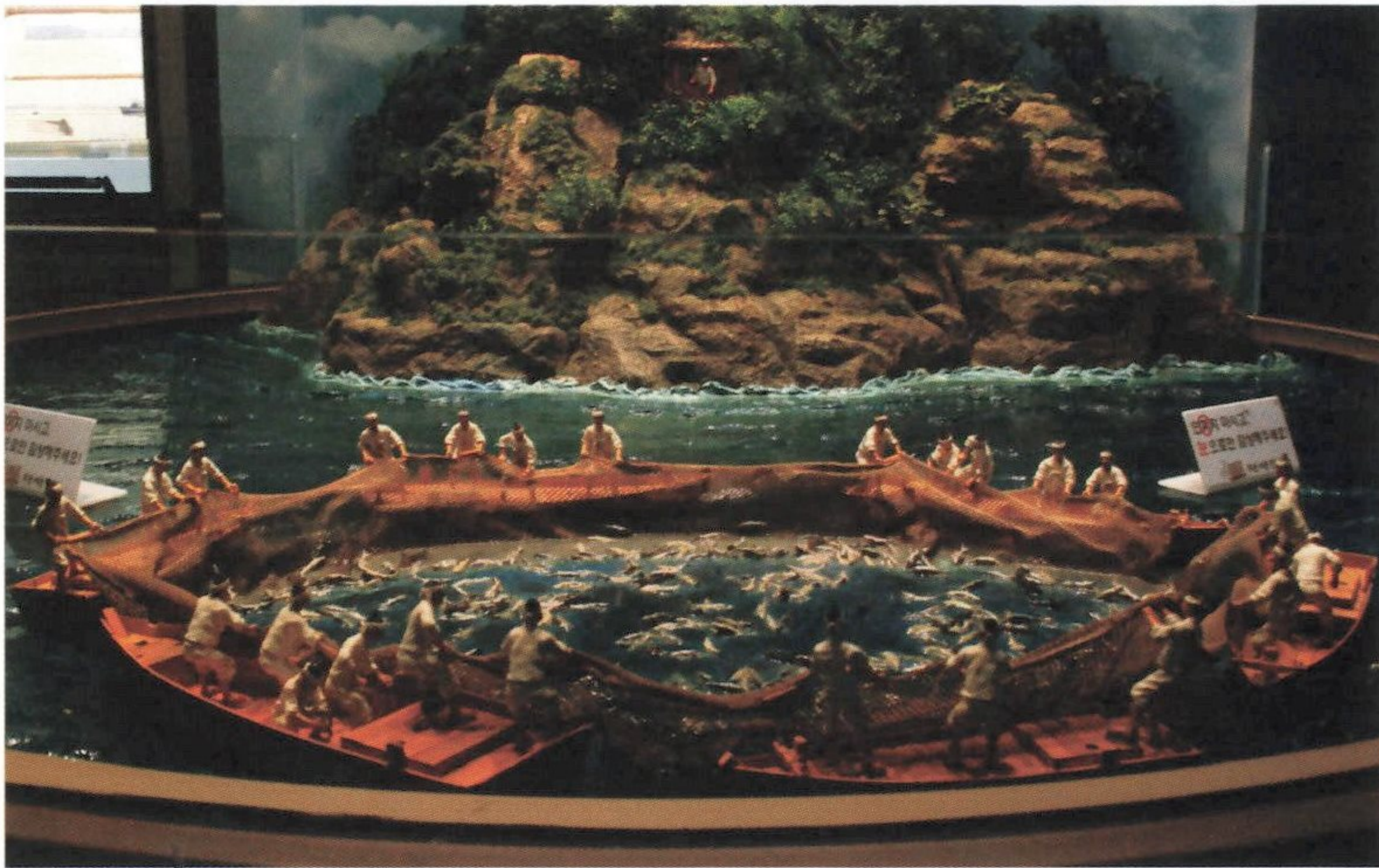
낙동강과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어촌 부산'의 생활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특별한 곳, 부산어촌민속관이 내년 2월로 개관 2주년을 맞는다.

2006년 2월 북구 화명동 국철 화명역 맞은편에 자리한 부산어촌민속관은 '강에서 바다로 이어지는 어촌문화여행'이라는 테마로, 부산의 젓줄 낙동강을 중심으로 발달해온 부산의 어업사와 어촌사람들의 생활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전시물로 꾸며져 있다. 부산어촌민속관은 특히 문화공간이 부족한 북구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체험공간으로 지역주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지상 3층 건물의 부산어촌민속관 앞에 서면 힘차게 물살을 가르며 가는 배의 역동적인 모습을 표현한 건물외관과 수초와 작은 분수가 어우러진 인공연못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연못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건너 건물 1층에 들어서면 큰재갈매기, 청둥오리, 알락꼬리마도요, 해오라기, 수달 등 강과 바다에 서식하는 조류를 박제로 전시한 전시대를 만날 수 있다.

1층에는 30여종의 살아있는 민물고기를 만날 수 있는 생태전시실과 특별전시실, 영상실이 자리잡고 있다. 생태전시실에는 낙동강 최상류인 태백에서 안동까지 지류와 본류에 가장 많이 서식하고 있는 버들치, 갈겨니, 피라미를 비롯해 세계적인 희귀종인 잔가시고기, 우리나라 특산종인 각시붕어, 긴물개, 쉬리 등 낙동강의 민물고기를 살펴볼 수 있다. 전시관 한 가운데 자리잡은 수족관의 미꾸라지는 관람객이 직접 손을 집어넣어 잡아볼 수 있어 특히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다.

2층 제 1전시실은 낙동강어촌민속실로 꾸며져 있다. 제 1전시실 앞에 서면 우선 바닥에 그려진 지도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한 눈에 내려다 보이는 낙동강 700리를 직접 발로 밟으며 낙동강의 역사와 낙동강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상을 알아볼 수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 상세한 해설이 적힌 패널과 모형이 전시되어 있다. 특히 5일장으로 유명한 구포장터와 낙동강 뱃길의 물목인 구포나루터, 구포다리 등을 재현해 놓은 모형이 눈길을 끈다. 구포장터의 시끌벅적한 소리와 명지망개소리, 감동진(구포나루터) 별신굿 등은 설치된 오디오시설을 통해 직접 들어볼 수도 있다. 특히 지역에서 거둬들인 조세곡물을 모아두었던 조창이 있던 구포나루터와 구포장터, 그리고 배 건조작업과 수선작업 등이 파노라마 형식으로 펼쳐진 대형 전시모형은 관객들에게 인기가 많다. 이밖에도 민물고기와 바다고기 구분하기, 황포돛대 조립하기, 퍼즐맞추기, 방문기념 스탬프찍기 등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놀이체험도 전시관 한켠에 마련되어 있다.

3층에 위치한 제 2전시실은 강과 바다를 끼고 살아온 부산의 생활상이 펼쳐지는 전시공간이다. 선사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부산의 어로활동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부산어촌의 역사연표부터 부산 수산업의 미래를 조감할 수 있는 시청각 자료까지 ‘어촌’으로서의 부산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명해 볼 수 있다. 통발어구, 어살 등 다양한 어구와 어구를 이용한 고기잡는 방법, 어선의 변천 등 다양한 전시물과 함께 좌수영어방놀이, 다대포후리소리, 가덕도송어들이 등 어촌의 전통문화까지 실감나게 재현해 놓고 있다. 주말에 방문하면 문화유산해설사의 상세한 설명도 들을 수 있다.

부산어촌민속관에서는 매주 일요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요일! fun & FUN 과학관’을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들이 과학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체험을 함께하는 ‘일요일! fun & FUN 과학관’은 무료로 운영되며 해양자연사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

부산어촌민속관 뒤편에 조성된 도심공원은 지역주민들의 자연휴식공간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공원 한켠에는 수령 160년의 당산나무가 서 있어 매월 마을의 안녕과 풍년, 풍어를 기원하는 당산제가 열리면서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 **개관시간** | 오전 9시~오후 6시
- **휴관일** | 매주 월요일, 1월 1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개관 다음날 휴관)
- **관람료** | 어른 2,500원 · 청소년 1,500원(65세 이상, 12세 이하, 다자녀가정,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무료)
- **문의** | 부산어촌민속관(051-363-3333, fvmuseum.busan.go.kr)

강미리의 춤 강미리 홀무용단 '궁<弓>'

12월 1일 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제 17회 부산무용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부산대학교 강미리 교수의 홀무용단이 선보는 궁(弓)은 한국 고대문명이 지닌 동적음악의 상징을 '궁'이라는 춤판으로 그려낸 작품이다.

· 안무/강미리 · 연출/박병욱 · 대본/채희완

출연

강미리, 이해진, 권해정, 신지현, 문희영, 강경희, 권수정, 정선영, 한지은 외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 의 강미리(011-9339-6991)

제 2회 영화음악 플러스 콘서트

12월 2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문정수 배용 배수진

부산선진화재단이 들려주는 영화음악 플러스 콘서트 두 번째 무대.

합창단과 메소드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My way, 저 하늘에 태양이, 별들의 고향 등 우리 귀

에 익은 영화음악과 클래식, 올드팝을 들려준다.

출연

문정수(전 부산광역시), 연극인 박정자, 디자이너 배용, 영화감독 이장호, 국회의원 정두언, 탤런트 김병기, 소프라노 배수진, 테너 양승엽, 테너 윤석, 테너 이정환, 소프라노 한혜자, 소프라노 신정희 외

· 연주/영남심포니오케스트라(지휘/손경균)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 의 부산선진화재단(256-7615)

부산시립극단 특별공연 '연기가 눈에 들어갈 때'

12월 3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웃음과 감동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연기가 눈에 들어갈 때'는 갑작스런 사고로 죽음을 맞이한 김진우와 기영식의 죽음으로

화장장에 모인 가족들을 통해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가족 휴먼 드라마이다.

· 원작/쓰쓰미 야스유키 · 번역, 각색/김순영 · 연출/오정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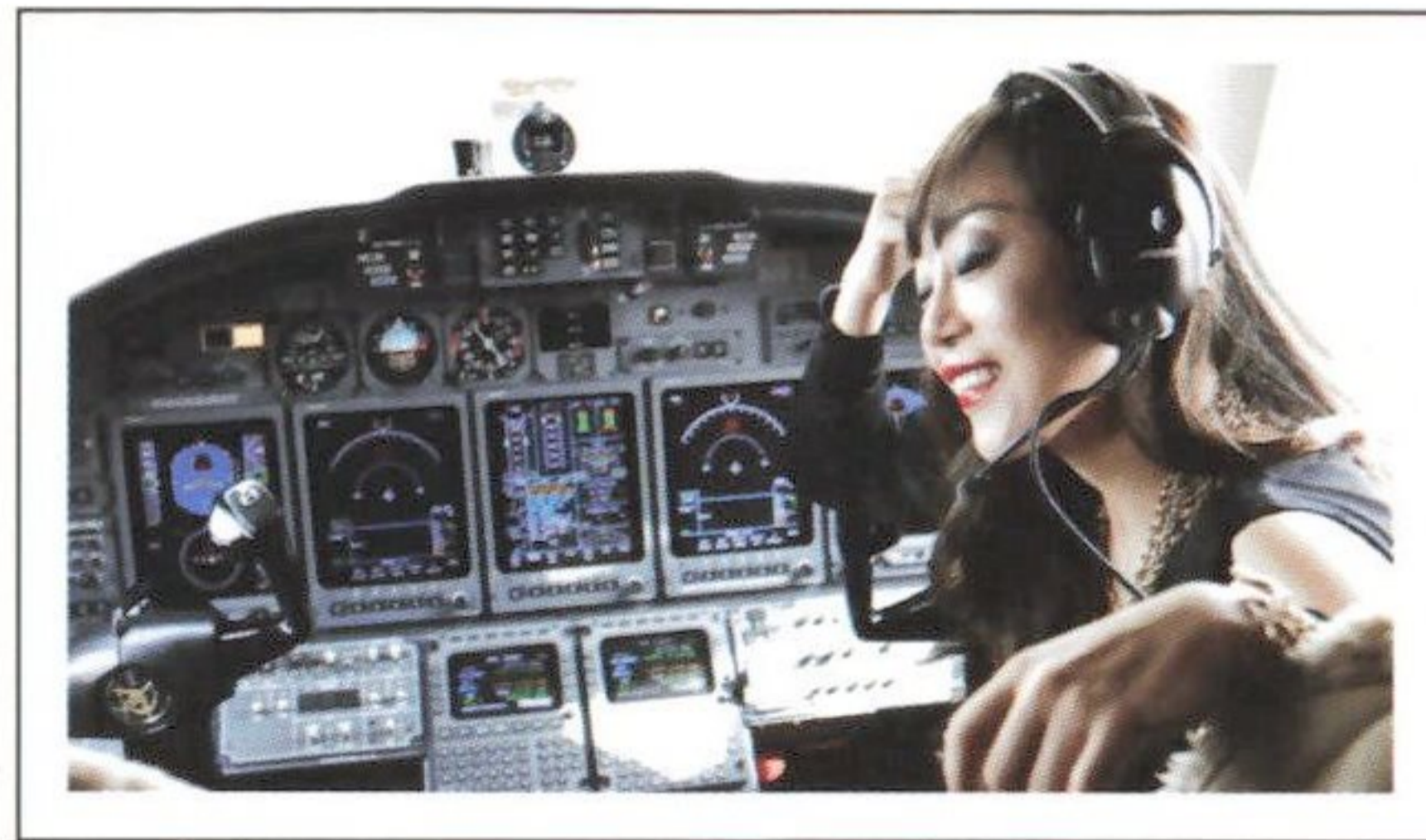
출연

유성주, 이현주, 엄준필, 백상희, 정행심, 임해련, 이혁우, 이돈희, 김은희, 염지선, 황창기, 백길성, 박찬영

관람료 R석(1층) 10,000원 · S석(2층) 5,000원

문 의 부산시립극단(607-6136~8)

34_예술에의 초대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 기념 기획 공연 소프라노 조수미 콘서트 'Dream with me'

대극장 12월 7일 일요일 오후 7:30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고난도 기교를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금세기 최고의 콜로라투라로 평가 받고 있는 소프라노 조수미 부산연주회.

나폴리 존타(Napoli Zonta) 국제콩쿠르, 시실리 에나(Sicily Enn) 국제콩쿠르, 베르첼리 비오티(Vercelli Viotti) 국제콩쿠르, 바르셀로나 바냐스(Barcelona Vinas) 국제콩쿠르, 베로나(Verona) 국제콩쿠르 등에서 1위한 조수미는 지휘자 카라얀으로부터 '신이 내려준 목소리', 주빈 메타로부터 '일세기에 한 두 명 나올까 말까 한 목소리를 가진 가수'라는 극찬을 받았다.

이번 무대는 조수미와 팝페라의 제왕 '알레산드로 사피냐'가 함께 마련하는 듀엣 무대로 지난 10월 발매된 조수미의 앨범 'Missing you'에 같이 참여한 사피냐와 앨범 수록곡들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 이탈리아 칸초네 메들리 쿠르티스/날 잊지 말아요
- 에반스/될 대로 될 거야 포스터/꿈길을 따라서
- 안성현/엄마야 누나야 등 수곡
- 연주/모스틀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지휘/미하일 슈타우다허)

■ 관람료 R석 120,000원 · S석 100,000원 · A석 80,000원 · B석 6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5% 할인)

■ 문 의 부산문화회관(607-6058)



김강규 김영환

부산시립합창단 제 127회 정기연주회 부산시립합창단과 부산시립교향악단이 함께하는 2008 송년음악회 Lovely Crossover & Cinema Music

중극장 12월 11일 목요일 오후 7:30

수석지휘자 김강규의 지휘, 해설, 테너 김영환의 감미로운 음성, 부산시립합창단과 부산시립교향악단과의 화려한 앙상블로 'Lovely Crossover & Cinema Music' 무대를 열어준다.

1부에서는 사람의 소리로 듣는 베토벤의 5번 교향곡 '운명'과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영화 '왕의 남자'의 OST 중 '인연' 등을 합창음악으로 편곡, 크로스오버 무대를 꾸민다. 2부에서는 널리 사랑받은 영화음악을 영화장면과 함께 들려준다.

프로그램

- Lovely Crossover & Happy Christmas!/베토벤 '운명', 왕의 남자 OST '인연', Danny Boy, You Raise me up, Time to say Goodbye, 재즈 할렐루야
- Cinema Music/Exodus, Don't cry for me Argentina, Nella fantasia(Ennio Morric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Ennio Morricone) 등 수곡
- 지휘, 해설/김강규(부산시립합창단 예술감독 겸 수석지휘자)
- 협연/테너 김영환, 부산시립교향악단

■ 관람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 문 의 부산시립합창단(607-6125~6)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45회 정기연주회 2008 부산연주인시리즈 2008 송년음악회

대극장 12월 17일 수요일 오후 7:30

수석지휘자 알렉산더 아니시모스프가 지휘하고
2008 부산연주인시리즈 연주자로 선정된 메조소

프라노 강희영을 비롯해 소프라노 신지화, 테너 류정필, 바리톤 우주호와 부산시립합창단, 김해시립합창단이 함께 하는 이번 무대는 베토벤의 '레오노레' 서곡과 베토벤의 마지막 교향곡인 제 9번 '합창'을 통해 베토벤의 위대한 음악성과 삶에 대한 철학을 느껴볼 수 있는 무대이다.

12월과 1월에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연주되는 곡 중 하나인 '합창'은 연주시간이 1시간 10분에 이르는 대작으로 1824년 5월 7일 귀가 들리지 않았던 베토벤 자신의 지휘로 초연했다.

프로그램

베토벤/레오노레 서곡 제 3번 다장조 작품 72b

베토벤/교향곡 제 9번 라단조 '합창' 작품 125

- 지휘/알렉산더 아니시모스프
- 협연/소프라노 신지화(이화여대 교수), 메조소프라노 강희영, 테너 류정필(국립오페라단 단원), 바리톤 우주호
- 합창/부산시립합창단, 김해시립합창단

■ 관람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 문 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4)



금난새와 함께하는 오페라 시리즈 3 - 라보엠

대극장 12월 18일 목요일 오후 7:30

열린 오페라, 유쾌한 오페라를 목표로 쉽고 재미 있는 오페라를 들려주는 금난새의 해설과 함께하는 쉬운 오페라 시리즈 세 번째 무대 '라보엠'.

크리스마스가 배경인 '라보엠'은 파리 뒷골목의 가난한 젊은 시인 로돌포, 화가 마르첼로, 철학자 콜리네, 음악가 쇼나르 등 보헤미안 기질을 가진 네 사람의 방랑과 우정, 그리고 폐결핵을 앓는 미미와 로돌포의 비련의 사랑을 그린 작품이다.

스위스 국제콩쿠르에서 우승한 소프라노 서활란, 이태리 카루소 국제콩쿠르 등 다수 입상한 테너 허동권, 러시아 알무하메도프 국제콩쿠르 2위 입상한 소프라노 김성경, 오스트리아 니코 도스탈 국제콩쿠르 등 다수 입상한 바리톤 강경원, 이태리 브리가 국립음악원,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립음악원 졸업하고 신라대학교 음악과 겸임교수로 있는 베이스 김태경이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 지휘/금난새(유라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겸 지휘자, 경희대 교수)
- 오케스트라/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 출연/소프라노 서활란, 테너 허동권, 소프라노 김성경, 바리톤 강경원, 베이스 김태경

■ 관람료 VIP 100,000원 · R석 70,000원 · S석 50,000원 · A석 30,000원 · B석 20,000원

■ 문 의 그랜드오페라단(610-1004)

2008 꼬레아 오페라단 제 5회 정기공연

12월 4일-6일 목-토요일 오후 7:30 대극장

2006년 베르디 오페라 '가면무도회'를 부산에서 초연하면서 부산 오페라계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꼬레아 오페라단이 열두번째 무대로 준비한 제 5회 정기공연 베르디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이탈리아 오페라의 대명사, 한국 오페라 60년사 최고의 히트작인 베르디 오페라 '라트라비아타(춘희)'는 촉매의 노래를 비롯한 주옥같은 아리아와 합창, 화려한 무용 등이 펼쳐지는 그랜드 오페라이다.

출연

전영무(4일), 장은영(5일) 박은미(6일)(이상 비올렛타), 이은민(4일), 이한성(5일), 김지호(6일)(이상 알프레도), 김길수(4일), 안상철(5일), 이승우(6일)(이상 제르몽), 이민정, 박수환, 김신범, 이태영, 김예민, 손승미, 유용준, 박종준 김용기, 양보람

· 단장/안상철 · 지휘/백진현 · 연출/방정욱

관람료 VIP 100,000만원 · S석 70,000원 · A석 50,000원 · B석 30,000원(초·중·고생 50% 할인, 30인 이상 전화예약시 30% 할인)

문 의 꼬레아오페라단(949-6582, 010-3878-5271)

아르모니 플루트 앙상블 정기연주회

12월 5일 금요일 오후 7:30 소극장



2004년 12월 창단연주회를 가진 이래 부산플루트 음악축제, 부산거성교회 및 초청연주회, 삼랑진 화요음악회 등에 출연하며 플루트

음악의 아름다움을 전해온 아르모니 플루트앙상블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모차르트/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 '사랑의 괴로움을 그대는 아는가' 오페라 '돈 조반니' 중 '저기로 우리의 손을 잡고 가자' 등

관람료 초대

문 의 이현정(017-206-1050)

순천시립극단 초청 '웃고랑 맥베스'

12월 6일 토요일 오후 4:00 중극장



셰익스피어의 맥베스를 극과 연희, 현대적 감성으로 풀어낸 순천시립극단의 '웃고랑 맥베스' 초청 공연.

'인형의 집'에 이어 순천시립극단의 명작시리즈 공연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웃고랑 맥베스'는 우리

시대의 우리정서에 맞는 맥베스로 자신에게 부여된 운명과 마주하고 그 운명을 과감하게 받아들이는 진정한 영웅의 모습을 보여준다.

· 작, 연출/김민호(순천시립극단 상임연출)

출연

최성귀(등컨), 노광훈(맥베스), 최윤형(부인), 김홍래(뱅크), 김효승(로스), 강바울(멜컴), 박광재(하인), 조선영(엄마무당), 김양훈, 서현미, 박광재(이상 새끼무당) 외

관람료 균일 5,000원

문 의 부산시립극단(607-6136~8)

2008 장정운 순수 현대무용 창작공연

12월 7일 일요일 오후 6:30 중극장



로고현대무용단 예술감독, (사)한국현대무용협회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정운 교수는 이번 무대에서 커닝햄 테크닉과 형식주의적 미학에 의한 순수무용의 현대적 해석을 시도한 '머시즘 4'와 신선이 부재하는 현재와 영생불멸을 꿈꾸는 인간의 절망감과 갈등의 극복에 관한 내용을 표현한 '봉래산'을 선보인다.

· 안무/장정운

· 음악/신영순

· 출연/장정운, 김도경 외 21명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 의 동아대학교(200-7822)

UKO(United Korean Orchestra) 정기연주회 제 11회 난치병 어린이를 위한 '사랑과 나눔의 음악회'

12월 8일 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양옥진

김현숙

김성진

최정원

음악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유나이티드 코리아 오케스트라의 정기연주회. 2006년 결성된 UKO는 그동안 가진 10회의 연주회를 통한 음악회 수익금으로 심장병, 심실중격결손,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만성 골수성 백혈병 등 난치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 20여명을 치료했다.

프로그램

요한 슈트라우스 2세/ '박쥐' 서곡

프란체스코 칠레아/ '아름의 여인' 중 '페데리코의 탄식'

샤를 구노/ '파우스트' 중 '보석의 노래'

사라 브라이트만 & 안드레아 보첼리 노래/타임 투 세이 굿바이 등

· 지휘/이동신

· 협연/양옥진(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김현숙(동아대학교 교수),

김성진(인제대학교 교수), 최정원(뮤지컬 배우)

관람료 균일 20,000원

문 의 정희자(011-589-3111)



2008 박성희의 세번째 판소리 발표회 -판소리 다섯 마당 눈대목-

소극장 | 12월 18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의 대표 소리꾼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 단원 박성희 세 번째 판소리 무대.

1987년 전국민속경연대회 판소리 일반부 금상, 1998년 남원춘향제 제 25회 전국판소리 명창대회 일반부 우수상을 수상한 박성희는 현재 (사)민족미학연구소 연구위원, 가무악의 공유 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판소리 다섯마당 중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판소리 다섯마당 눈대목만을 발췌, 판소리의 신명을 더해준다.

프로그램

단가 사철가, 춘향가 중 이별대목(초두)

적별가 중 군사 설움대목

흥보가 중 제비구원~제비노정기

심청가 중 승상덕으로 심청이 시비 따라가는 대목~중타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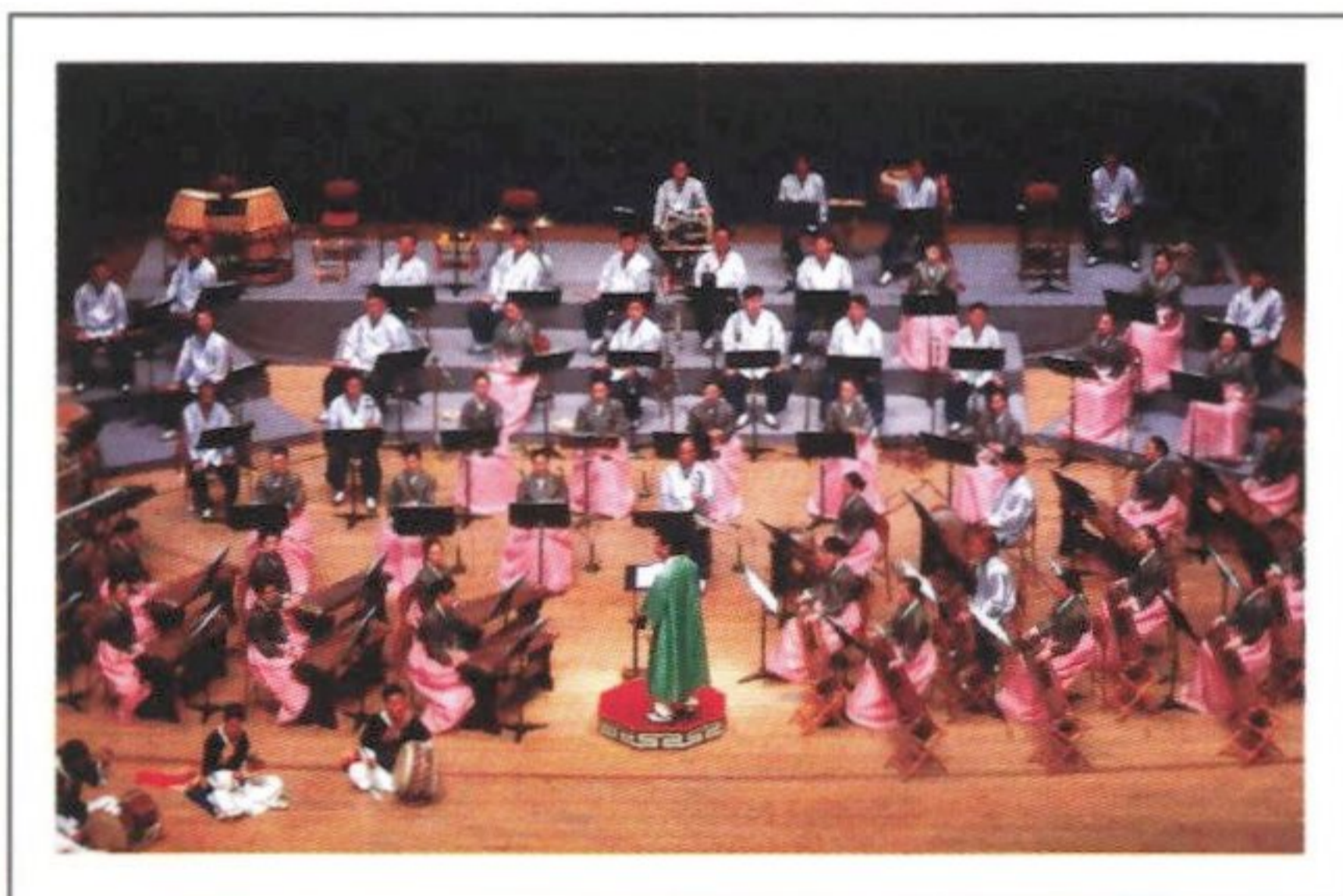
수궁가 중 토끼 묶어들이는 대목~토끼가 기지로 살아나는 대목

· 고수/신문범

· 특별출연/(사)부산새울전통타악진흥회

■ 관람료 자유로이(사회봉사단체에 기부하기 위한 성금)

■ 문 의 박성희 판소리연구소(583-7958 011-878-637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43회 정기연주회 내일을 위한 법고창신 III

중극장 | 12월 19일 금요일 오후 7:30

우리 음악으로 만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아주 특별한 송년음악회 '내일을 위한 법고창신 III'.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법고창

신(法古倉新)의 본 뜻을 살려 오늘날 현대인의 고뇌, 갈등의 극복과정을 원장현 명인의 전통적인 산조와 관현악의 협연으로 그려보고 거문고 창작음악의 거목인 서울대학교 정대석 교수의 거문고 협연, 개량가야금의 거목인 중앙대학교 김일륜 교수의 개량가야금 병창 협연 등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프로그램

박범훈/송년의 아쉬움을 나누는 창작관현악 '어랑타령'

이화동(편곡)/원장현류 대금산조 협주곡

황의중/새해의 희망을 담아 어려움을 풀어내는 창작관현악 '푸리III'

정대석/정대석의 거문고와 함께 하는 창작관현악 '수리재'

박범훈/김일륜의 노래와 가야금을 위한 창작관현악 '가야송'

· 지휘/박호성(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 협연/원장현(대금), 정대석(거문고), 김일륜(가야금 병창)

■ 관람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 문 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6110)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창단 35주년 기념 제 124회 정기연주회 Merry Christmas in Love

중극장 | 12월 20일 토요일 오후 5:00

한해를 보내는 아쉬움을 담은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 124회 정기연주회.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번 무대는 즐거운 캐럴과 뮤지컬과 잘 알려진 '오페라의 유령' 등을 선곡, 사랑이 흐르는 잔잔한 'Merry Christmas in Love' 무대를 열어준다.

부산시립합창단 남성중창단 '부산아리랑싱어즈'와 남성여자고등학교 성중부(핸드벨)가 특별출연한다.

프로그램

Merry Christmas in Love/Merry Christmas in Love, 징글벨,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사랑의 밤 등 부산아리랑싱어즈/향수(조우현 편), 마징가 Z(최석태 편) 등 오페라의 유령/오페라의 유령, 생각해줘요, 부드럽게 부르는 소리, 마스크레이드, 나의 바람은 그대뿐, 밤의 음악 등 수곡

- 지휘/전상철(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수석지휘자)
- 반주/이영옥
- 특별출연/부산아리랑싱어즈, 남성여자고등학교 성중부(지도/김종석), 김나영(크리스틴), 최춘식(유령)
- 지도/노금선(안무, 김양재(합창))

- 관람료 균일 2,000원
- 문 의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6131)



오충근 임병원 김미성

12월 한낮의 유U: 콘서트 송년음악회 - Musical & OST

대극장 | 12월 23일 화요일 오전 11:00

사랑 가득한 연말연시 '한낮의 유 콘서트'에서 마련하는 '송년음악회'.

2006년 4월에 시작된 출발한 한낮의 유 콘서트가 서른번째로 마련되는 12월 송년음악회는 클래식에서 영화음악, 뮤지컬 음악까지 총망라한 다채로운 장르 음악으로 부산시민들과 만난다.

프로그램

반지의 제왕 OST, My Way, Don't cry for me Argentina, B Rossette, I could have danced all night, 물망초, Tonight, Oblivion,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Once upon a dream, Over the rainbow, 그대도 살아주오, O! Danny Boy 등

출연

- | | |
|-----------------------|-----------------------|
| 박미경(소프라노, 경성대학교 교수) | 김미성(소프라노, 신라대학교 교수) |
| 배수진(소프라노, 부산대학교 겸임교수) | 박현정(소프라노, 신라대학교 겸임교수) |
| 김화정(테너, 동의대학교 외래교수) | 김창돈(테너, 부산시립합창단원) |
| 박대용(바리톤, 동아대학교 외래교수) | 장은익(바리톤, 미래와음악대포) |
| 노영훈(오보에, 포항시립교향악단수석) | 임병원(바이올린, 경성대학교 교수) |

- 관람료 균일 15,000원(국제신문 구독자 및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30% 할인)
- 문 의 예술기획(0505-700-9798)

노엘합창단 제 49회 정기연주회

12월 8일 월요일 오후 7:30 중극장



1961년 찬양을 통한 선교와 정서 함양을 목표로 결성된 이래 음악사랑을 펼쳐온 노엘합창단의 49회 정기연주회.

창단 47주년을 맞아 특별히 지방 가

족들을 위해 창작 편곡을 위촉, 발표한다.

프로그램

노엘을 위한 창작 합창/남쪽 그 섬들(백현주 곡), 그대 그리움(오세일 곡), 진해의 겨울(하순봉 곡)

노래하는 동물세상/우리 낭군 꼬고 귀여운 꼬마가, 동물들의 즉흥연주 현대성가/캐논 라장조, 놀라우신 주님, 호산나, 와서 주께 노래하자 등

- 지휘/김강규
- 반주/윤민화
- 특별출연/소프라노 김정원

관람료 초대

문 의 노엘합창단(011-878-5599)

한국오페라 60주년 기념 기획공연 솔오페라단 현제명 오페라 춘향아 춘향아

12월 12일-14일 금, 일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 7:30 대극장



한국 최초의 창작 오페라인 현제명의 '춘향전'을 현대적 감각으로 새롭게 해석한 오페라 '춘향아 춘향아'.

화려한 전통의상과 춤, 그리고 우리 가락이 어우러지는 오페라 '춘향아 춘향아'는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 기념 작 '아이디'를 연출한 바 있는 연출의 마법사 '안토니오 데 루치아'가 유럽인의 시작으로 바라보는 우리 고전 춘향을 오페라 무대에서 살려냈다.

이번 무대는 소프라노 김경희, 박정원, 한예진, 김민지가 춘향으로, 이재욱, 이철성, 김화정, 서민규가 이도령으로 열연하고 오페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부산시립교향악단, 타

래고전무용단이 함께 참가, 화려한 무대를 펼친다.

- 총 예술감독/이소영
- 지휘/양진모
- 연출/안토니오 데 루치아
- 예술감독/공정배
- 연주/부산시립교향악단

출연

김경희, 박정원, 한예진, 김민지, 이재욱, 이철성, 김화정, 서민규, 김유진, 김성경, 한송이, 김창돈, 이정환, 김현주, 강희영, 성미진 외

관람료 VIP석 150,000원 · R석 100,000원 · S석 70,000원 · A석 50,000원 · B석 30,000원 · C석 20,000원(토요일 오후 3:00 공연 피아노반주 1층 20,000원 · 2층 10,000원)

문 의 솔오페라단(740-5750, 1544-9373)

연극 아트(Art) 부산 공연

12월 13일-14일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 중극장



남자들의 우정의 실상을 낱알이 파헤쳐 치졸하고 웅졸한 남자의 심리를 탁월하게 묘사한 연극 아트 부산공연.

2003년 국내에서 초연된 아트는 객석

점유율 103%, 총 입장객 12만 명을 기록한 화제작이다. 청담동 피부과 의사 수현이 하얀 색 바탕에 줄이 그어져 있는 그림을 2억 8천 만원이나 되는 큰 돈을 주고 구입하면서 친구 규태와 덕수, 세 친구들 사이에 숨겨졌던 감정들이 폭발하고 만다. 서로의 예술관을 비웃고, 아내를 모욕하기도 하며, 그동안 묵혀왔던 감정들이 터져 나온다.

출연
권해효, 조희봉, 이대연(이상 13일), 정보석, 이남희, 정원중(이상 14일)
관람료 R석 45,000원 · S석(2층) 35,000원
문의 AN티켓(1644-4484)

이지화 바이올린 독주회

12월 15일 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상트-뻬쩨르부르크 국립 콘서트바토리(림스키 코르사코프) 최고 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부산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이지화의 독주회.

2002 IBLA Grand Prize 콩쿠르에서 우승한 이지화는 독주회를 비롯 모스크바 심포니 오케스트라, 상트-뻬쩨르부르크 카펠

라 심포니 오케스트라, 에르미타주 국립오케스트라, LA 유스오케스트라,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등과 협연하며 음악성을 인정받았다.

프로그램
프로코피에프/바이올린 소나타 제 2번
쇼송/시곡 작품 25
사라사테/찌고이네르바이젠
관람료 균일 20,000원
문의 이지화(010-9439-3563)

하지행 첫 해금독주회

12월 15일 월요일 오후 7:30 소극장



부산대학교 국악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해금주자로 활동하고 있는 하지행의 첫 해금독주회.

프로그램
수룡음(농,편), 대풍류, 지영희류 해금산조

· 특별출연/송권준, 이종대, 박환영(이상 부산대학교 교수), 송강수(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시

무라(일본 생황연주자)
관람료 초대
문의 하지행(010-7230-1123)

부산시립무용단 2008. 장애우와 함께 하는 송년공연 마당춤 '드라쿨라가 되어버린 장화홍련'

12월 17일 수요일 오전 10:30 대극장



2008년 바쁜 공연 일정을 소화해낸 부산시립무용단이 한 해를 정리하는 송년 무대로 장애우들을 위해 선보이는 마당춤 '드라쿨라가 되어버린 장화홍련'.

· 안무 및 구성/홍기태(예술감독 겸 수석안무자)
· 각색 · 대본/하현관
· 연출/오정국
· 사회/손지현(부산문화방송 아나운서)
· 특별출연/배화학교 수화무용(원더걸스의 '노바디')
문의 부산시립무용단(607-6118)

학점은행제 부산콘서바토리음악원 제 7회 정기연주회

12월 17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대학과 동등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인 학점 은행제 교육기관 부산콘서바토리음악원의 제 7회 정기공연. 교수와 재학생들이 함께 무대를 꾸민다.

출연
오정민, 백승헌, 문경식, 오선민, 배윤진 등 재학생과 배수진, 박창숙, 김도형, 윤석, 손경균 등 교수진들
· 해설/배수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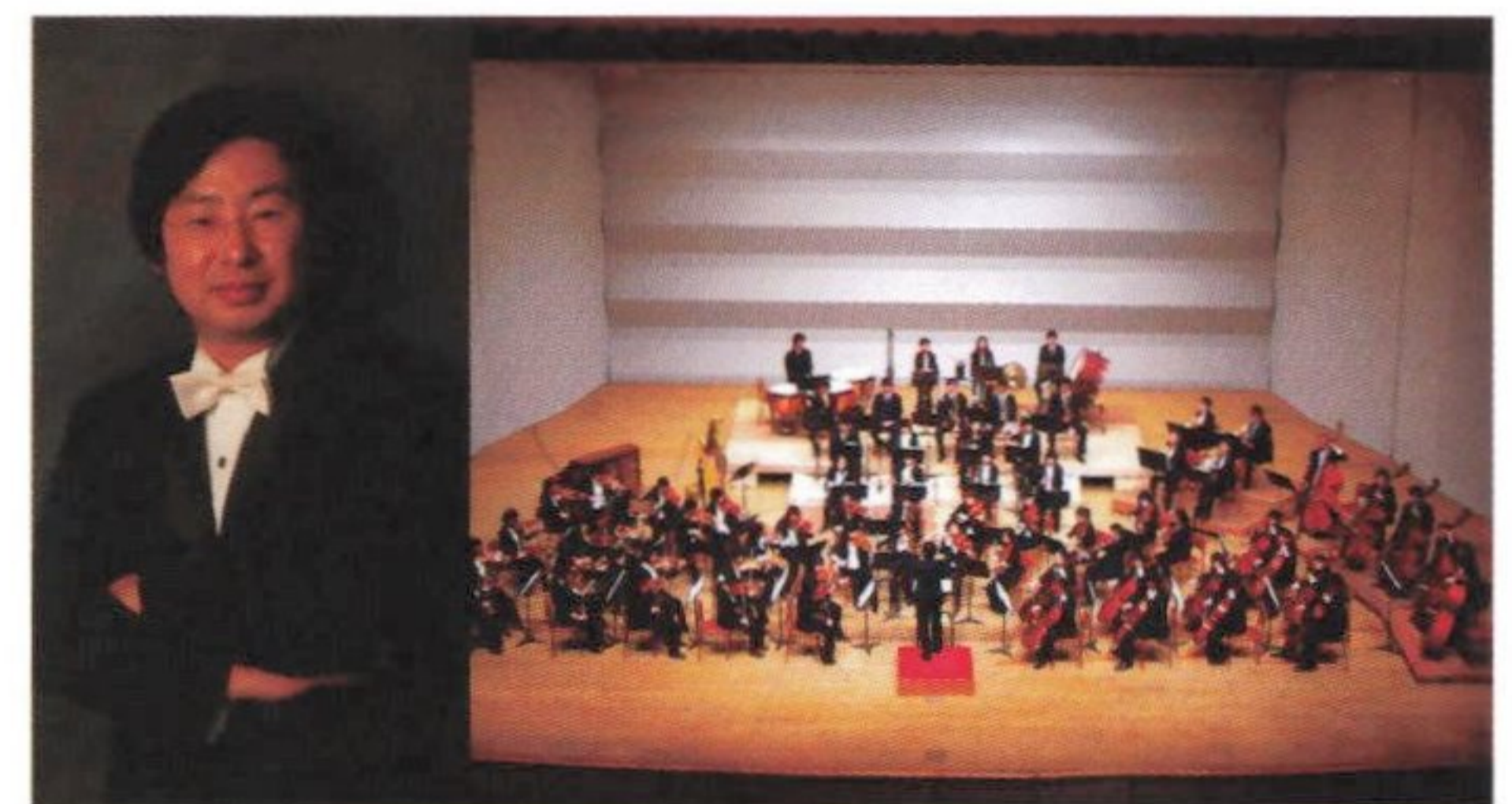
관람료 초대
문의 배수진(501-3999, 019-501-3999)

2008 부산세계사회체육대회 성공개최 및 2020 하계 올림픽유치 기원 성가대합창제

12월 19일-20일 금요일 7:00, 토요일 5:00 대극장
2008 부산세계사회체육대회 성공개최 및 2020 하계 올림픽유치를 위해 부산지역 16개 구군 성가대가 함께 마련하는 성가대합창제.
관람료 VIP석 50,000원 R석 30,000원
문의 허난세(010-8500-7042)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송년음악회

12월 23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이동신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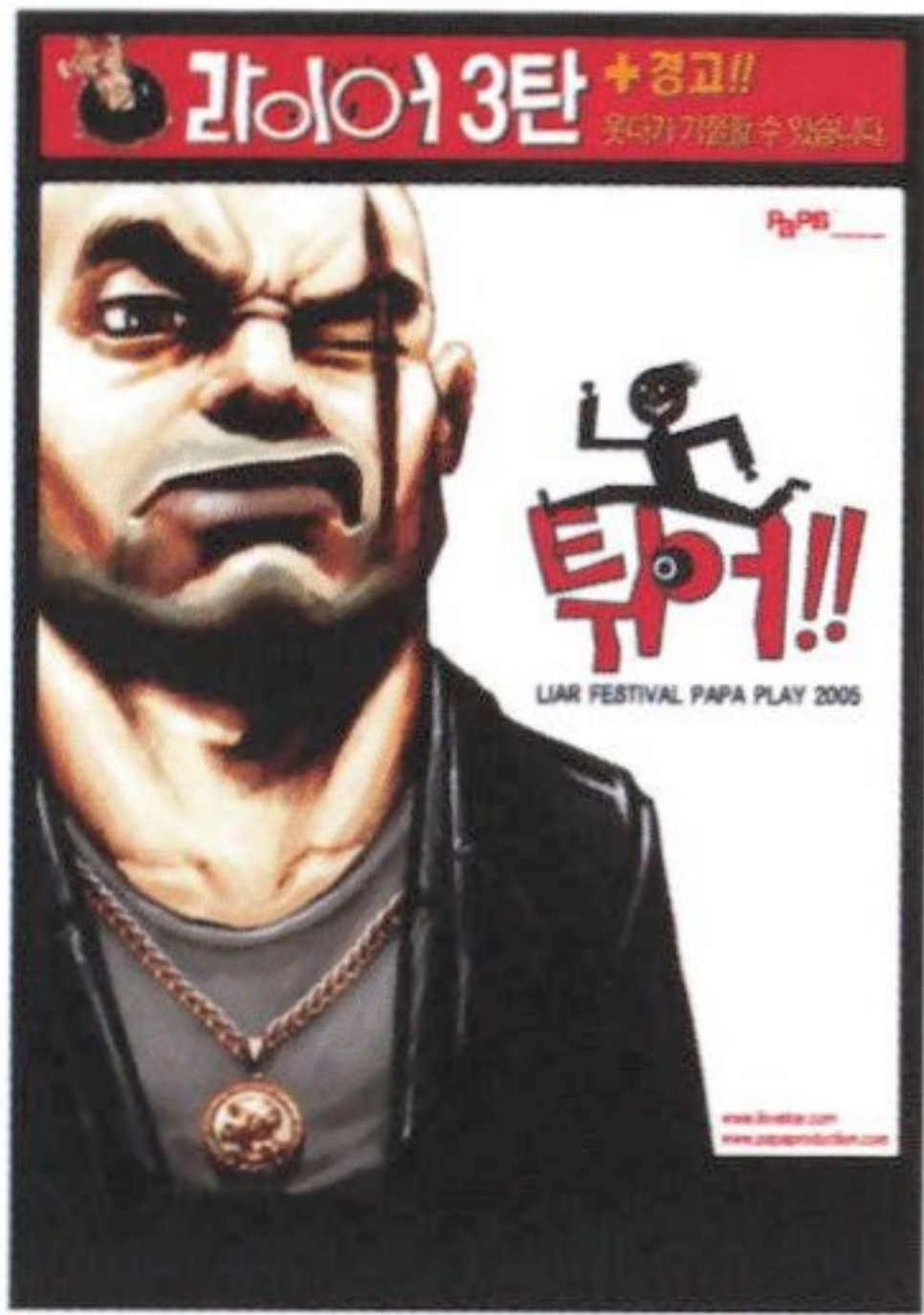
여러 개의 독주악기가 협연하는 로카텔리의 합주협주곡과 그 특징을 계승한 모차르트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등 평소 자주 들을 수 없었던 합주협주곡과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한 음악으로 꾸미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송년음악회.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악장 김수현, 인디애나 음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에드워드 아우어와 그의 부인인 피아니스트 문정화, 2005년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젊은 단원들로 구성된 펠리체 앙상블이 협연자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프로그램
로카텔리/합주협주곡 바단조 작품 1-8 '크리스마스 협주곡'
모차르트/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제 10번 내림마장조 작품 365
차이코프스키/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 작품 35
차이코프스키/'호두까기 인형' 작품 71 중 발레
· 지휘/이동신(수석지휘자)
· 협연/김수현(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악장), 에드워드 아우어(피아니스트, 인디애나음대 교수), 문정화(피아니스트), 부산시립교향악단 '펠리체앙상블'(바이올린/이상진, 우소라·비올라/홍영선, 김상철·첼로/서송은·더블베이스/윤강희)
관람료 균일 2,000원
문의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607-6108)

연극 '라이어 3탄-튀어!!'

12월 23일(화)-31일(수) 화요일 오후 8:00, 수·금요일 오후 5:00, 8:00, 목·일요일 오후 3:00, 6:00, 토요일 오후 4:00, 7:00(월요일 공연없음)
중극장



2001년 초연이후 8년 가까이 사랑받은 '라이어' 시리즈 3탄 '튀어!!'가 원작 'Funny Money'의 폭소 그대로 2008년 새롭게 찾아온다.

자신의 생일날 우연히 마피아의 돈이 든 가방을 바꿔 들게 된 평범한 셀러 리맨 헨리 퍼킨스. 집에 두 형사가 들이닥치고, 이들을 따돌리기 위해 거짓말이 시작된다. 마침 생일파티를 위해 온 친구 부부 베티와 빅이 헨리를 도우려하지만 그럴수록 일은 꼬여만 간다.

· 연출/김용준

관람료 R석 35,000원 · S석 25,000원
문의 AN티켓(1644-4484)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 기념공연 루시드 폴(Lucid Fall) 크리스마스 콘서트

12월 24일 수요일 오후 8:00 대극장



스위스 로잔 공대 생명공학 연구소에서 박사 학위를 수여 받은 싱어송라이터 루시드 폴(Lucid Fall, 본명 조윤석)이 들려주는 감미로운 크리스마스 콘서트.

1993년 유재하 음악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루시드 폴은 1997년 인디밴드 '미선이'를 결성해 수 많은

모던 포크 마니아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고, 2001년 '맑고 투명한 가을'이라는 의미의 원맨밴드 '루시드 폴'로 솔로활동을 시작하며, 새로운 시대의 음유시인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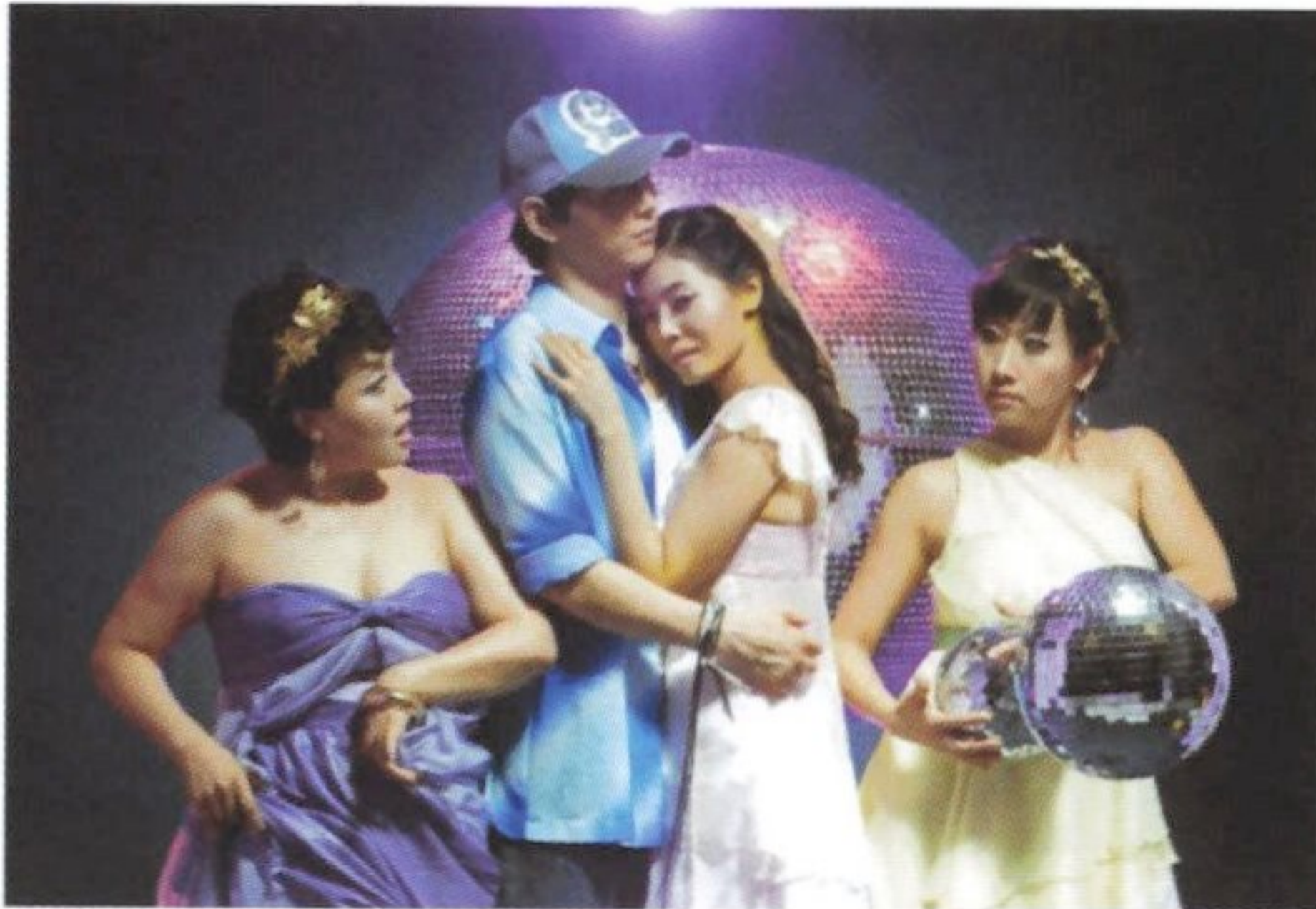
지난해 11월 3집 <국경의 밤>을 발표, 방송매체 활동 없이도 높은 판매고를 올리며 20~30대 음악마니아들의 건재함을 증명한 루시드 폴은 2005년 한국 대중음악상 최우수 팝싱글부분을 수상한 바 있다.

관람료 R석(1층) 44,000원 · S석(2층) 33,000원 · A석(3층) 22,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5% 할인)

문의 부산문화회관(607-6057), AN시티(1644-4484)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 기념공연 뮤지컬 제너두(XANADU)

12월 27일-28일 토요일 오후 4:00, 7:30, 일요일 오후 3:00, 6:30 대극장



1980년 진 캘리와 올리비아 뉴튼존이 출연했던 영화 '제너두'를 뮤지컬 무대로 옮긴 화제의 뮤지컬 '제너두' 부산 무대.

현재 미국 브로드웨이의 헬렌 헤이즈 극장(Helen Hayes Theater)에서 공연되고 있는 뮤지컬 '제너두'는 2008년 토니상 4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2008 Outer Critics Circle Awards에서 Best New Musical Winner를 수상하면서 흥행성과 동시에 작품성을 인정받은 화제작이다. 인간과 신의 사랑을 통해 따뜻한 사랑과 예술의 참된 가치를 일깨워준다.

- 원작/Douglass Carter Beane
- 연출/표인봉
- 예술감독/이지나
- 번역, 윤색/오승훈, 정가람
- 음악감독/조선아 · 안무/김희중

출연

강인, 김희철, 이건명, 정선아, 최유하, 김성기, 김민수, 정영주, 홍지민, 양꽃님, 김희원, 전아민, 최원철, 박은영, 김희진, 임휴상, 이재경, 양보미

관람료 R석 88,000원 · S석 77,000원
A석 55,000원 · B석 44,000원
패너두석 44,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7일공연 5% 할인, 28일 공연 20% 할인)

문의 부산문화회관(607-6057), AN시티(1644-4484)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 기념 기획공연 2008 제야음악회 '가는 해·오는 해'

12월 31일 수요일 오후 10:30 대극장



김정택 오미선 박웅 김중환

2008년을 보내는 아쉬움과 밝아오는 새해에 대한 희망을 담은 부산문화회관 2008 제야 음악회 '가는 해·오는 해'.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로 열리는 이번 제야 음악회는 지난 5월 다이내믹 페스티벌 무대로 부산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한 바 있는 SBS예술단 지휘자 김정택의 객원지휘로 소프라노 오미선, 테너 박웅, 소리꾼 박성희, 피리 선주희, 부산시립합창단 남성중창팀, SBS예술단 코러스, 가수 김중환 등이 출연, 열정 넘치는 환희의 무대를 열어준다. 특히 공연장에서 듣는 제야의 종소리, 새해 소망 엮서적기 이벤트, 휴식시간의 살롱 음악회 등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 된다.

프로그램

코르사코프/Hook on classic
베토벤/교향곡 9번 합창 4악장
최영섭/그리운 금강산
베르디/오페라 '춘희' 중 '축배의 노래'
뮤지컬 메들리/'Mamma mia' 중 'ABBA Medley' '캣츠' 중 'Memory' 등 수곡

- 지휘/김정택(SBS 예술단 단장)
- 협연/소프라노 오미선, 테너 박웅, 피리 선주희, 소리꾼 박성희, 부산시립합창단 남성중창팀
- 특별출연/방준모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 A석 2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부산문화회관(607-6057)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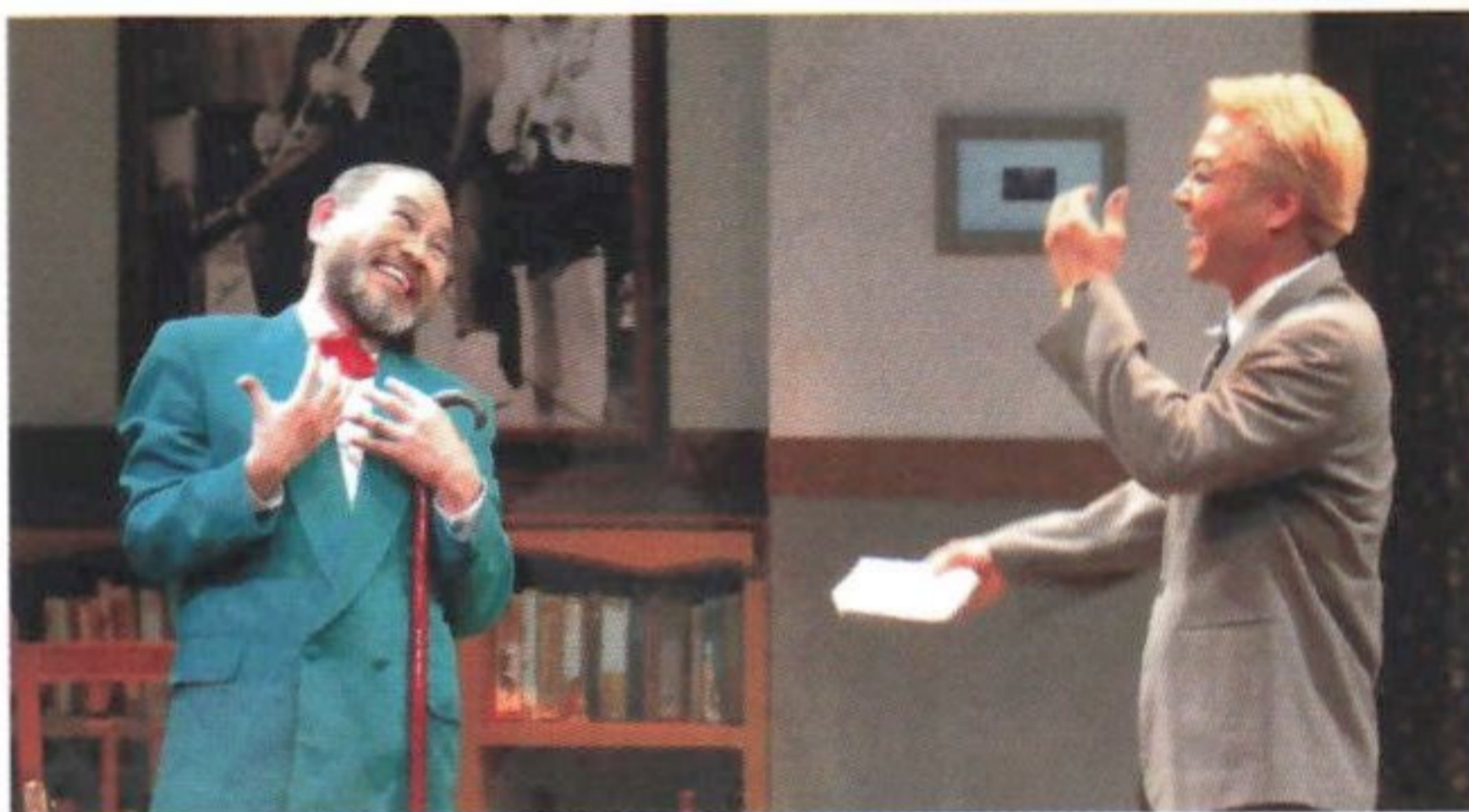


예약문의, 051-622-1456
부산문화회관 영빈관 맞은편 1층
리셉션·생일잔치·각종모임 예약 받습니다.
(10A~100A)

시민회관

과학체험 가족뮤지컬 **궁금해요, 우주여행**

12월 5일-7일 **금요일** 오전 10:10, 11:20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대극연장
 신비로 가득한 우주를 쉽고 재미있게 만날 수 있는
 신나는 과학 체험 가족 뮤지컬.
 허버드대 물리학박사 이창열의 과학실험과 뮤지컬이
 함께 펼쳐진다.
 관람료 **균일 12,000원**
 문 의 **DUBU기획(02-2654-68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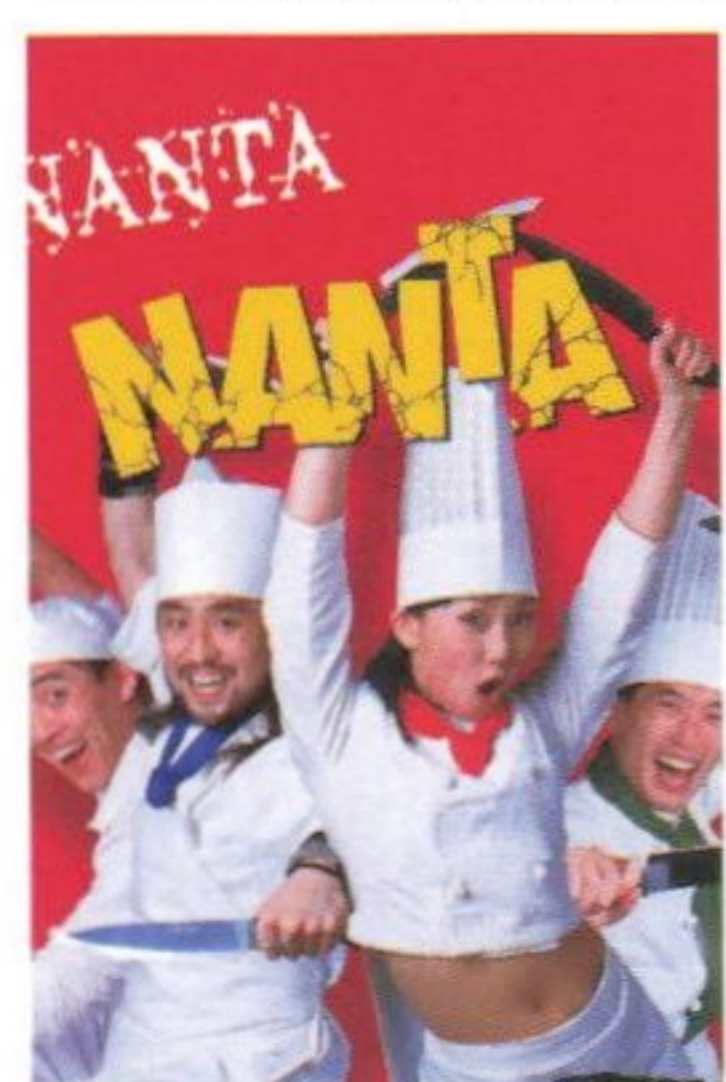


극단 전위무대 **세일즈맨의 죽음**

12월 8일(월)-14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30, 7:30, **일요일** 오후 4:00 소극장
 늙은 세일즈맨인 주인공이 믿었던 두 아들에게 배반
 당하고 회사에서도 해고 되어 끝내 자살하고 만다는 비
 극적인 내용으로, 1949년 초연된 해 풀리처상과 뉴욕연
 극비평가협회상을 수상했다.
 · 작/아서 밀러 · 연출/전승환
 · 출연/전성환, 오화정, 권철, 박현형, 홍성현, 윤석이 외
 관람료 **일반 25,000원 · 청소년 15,000원**
 (사랑티켓 참가작)
 문 의 **극단 전위무대(582-2026)**

넘버널 퍼포먼스 **난타**

12월 12일(금)-14일(일) **금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2:00,
 6:00 대극장



우리 전통가락인 사물놀이 리
 듬을 소재로, 주방에서 일어나
 는 헤프닝을 코믹하게 그린 우
 리나라 최초의 넘버널 퍼포먼스
 '난타'.
 칼과 도마 등 주방기구가 만
 들어내는 화려한 연주 속에 전
 통춤과 어우러지는 삼고무, 갑

짝 전통혼례, 관객과 함께하는 만두쌩기 등이 극의 재
 미를 더한다.

관람료 R석 55,000원 · S석 44,000원

문 의 **부산MBC(760-1166)**

가족뮤지컬 **루돌프와 산타할아버지**

12월 18일(목)-28일(화) **평일** 오전 10:30,
 11:40, **주말** 오후 1:00, 3:00(25일은 오전
 11:00, 오후 1:00, 3:00) 대극연장
 산타할아버지의 썰매를 끄는 빨간코 루돌프 사슴과 함
 께 떠나는 성탄맞이 창작 가족뮤지컬.
 관람료 **균일 15,000원**
 문 의 **동그라미그리기(818-1772)**



모스크바 소년소녀합창단 **부산공연**

12월 20일 **토요일** 오후 3:00, 7:30 대극장
 1961년 창단 이후 이탈리아, 미국, 네덜란드, 바티칸 등
 국제 유명 콩쿠르에서 수상한 바 있는 모스크바 최고의
 소년소녀합창단 모스크바 소년소녀합창단 첫 내한공연.
 이번 무대에서는 차이코프스키, 라흐마니노프, 글린카
 등 러시아 작곡가들의 곡과 러시아 민요, 우리나라 가
 곡 및 대중가요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 예술감독 겸 지휘자/미하일 슬라브킨
 · 피아노/이고르 고르스키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A석 30,000원 · B석 20,000원
 문 의 **시민회관(630-5200)**

2008 연말 **컬투쇼 부산공연**

12월 21일 **일요일** 오후 4:00, 7:00 대극장
 관람료 R석 77,000원 · S석 66,000원
 A석 55,000원
 문 의 **뉴페이스컴(622-5744)**

V.O.S 전국투어콘서트-**부산**

12월 24일 **수요일** 오후 7:00, 10:00 대극장

관람료 R석 77,000원 · S석 66,000원
 A석 55,000원

문 의 **블랙엔터테인먼트(1544-9857)**

2008 **이은미 콘서트-부산**

12월 25일 **목요일** 오후 3:00, 6:30 대극장
 관람료 R석 77,000원 · S석 66,000원
 A석 55,000원
 문 의 **SJ커뮤니케이션(1644-3031)**

조성모 2008 **한·일 투어 부산콘서트**

12월 27일 **토요일** 오후 4:00, 8:00 대극장
 관람료 R석 88,000원 · S석 77,000원
 A석 66,000원
 문 의 **뉴페이스컴(622-5744)**



뮤지컬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12월 30일 **화요일** 오후 6:00, 9:00
 31일 **수요일** 오후 7:00, 10:00 대극장
 대한민국에 비보이 열풍으로 몰고온 '비보이를 사랑
 한 발레리나' 오리지널팀 공연.
 관람료 R석 55,000원 · S석 44,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주)AN시티(1644-4484)**

금정문화회관

극단 **하늘개인날 허준**

11월 30일(일)-12월 3일(수) 오후 7:30 대극연장
 병들고 가난한 민초들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헌신으
 로 의술을 행했던 명의 허준의 파란만장한 삶을 그린
 극단 하늘개인날의 '허준'.
 · 원작/이은성 · 연출/김인덕
 · 출연/이정허, 권철, 어주선, 김상훈, 김혜정, 김우진 외
 관람료 **균일 20,000원**
 문 의 **극단 하늘개인날(646-0320)**

로템플루트앙상블



금정수요음악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소공연장

■12월 3일 유니스 콰르텟 연주회

바이올리니스트 신상준, 엄세희, 비올리니스트 김가영, 첼리스트 유대연으로 결성된 유니스콰르텟 연주회.

프로그램

베토벤/현악4중주 내림나장조 작품 130
피아졸라/현악 4중주를 위한 탱고 발레 등

■12월 10일 김재원 바이올린 독주회

금호영재콘서트 오디션 합격, 글로빌 전국음악콩쿠르 전체 대상 등을 수상한 부산예술중학교 3학년 김재원 바이올린 독주회.

· 피아노/박필은

■12월 17일 김미성 클래스와 함께하는 송년음악회

현재 신라대학교 교수로 있는 소프라노 김미성 클래스 음악회.

■12월 24일 로템 플루트 앙상블 연주회

플루티스트 한은경, 김민정, 김수현, 하지미로 결성된 로템플루트앙상블 무대.

· 찬조출연/플루티스트 신인철

■12월 31일 성기업 플루트 클래스 송년음악회의 밤

플루티스트 성기업의 제자들이 마련하는 송년음악회.

· 출연/손소정, 조혜영, 손원주, 신가영, 송지현, 조형진
· 피아노/이영송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 의 금정문화회관(519-5651)



이유현 귀국 피아노 독주회

12월 4일 목요일 오후 7:30 대공연장

한국예술종합학교와 원혜 국립음대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현대음악 연주단체 카리엔의 피아니스트로 활동하는 피아니스트 이유현 독주회.

프로그램

바흐/파르티타 제 1번 내림 나장조 작품 825
쇼팽/발라드 전곡 제 1~4번 등 수곡

관람료 균일 20,000원

문 의 클래식 프로인트(02-3141-5729)

수험생을 위한 위로음악회 소프라노 송윤경 독창회

12월 6일 토요일 오후 7:30 대공연장



동의대학교와 계명대학교 음악대학원 성악과, 이태리 밀라노 G.VERDI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부산성악아카데미 회원으로 활동중인 소프라노 송윤경 독창회.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있는 곡들을 중심으로 초겨울의 정취에

어울리는 국내외 가곡과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 특별출연/덕천크로체남성앙상블(지휘/손욱), 테너 문대진

관람료 일반 20,000원 · 학생 10,000원
(수험표 제시시 수험생과 학부모 무료입장)

문 의 송윤경(019-520-1404)

귀여운 발레와 함께하는 뮤지컬 신데렐라

12월 6일-7일 토-일요일 오후 2:00, 4:00

소공연장

기발한 무대전환과 캐릭터 인형, 톡톡 튀는 리듬과 화려한 악기편곡이 재미를 더하는 가족뮤지컬.

· 연출/이은성

· 출연/김수진, 박재춘, 김성재, 이로서, 권강훈

관람료 균일 12,000원

문 의 DUBU기획(02-2654-6854)

정옥경, 김성은 듀오콘서트

12월 8일 월요일 오후 7:30 소공연장



정옥경

김성은

부산대학교와 독일 Durisburg국립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오템목관 5중주단 리더, 아르모니 플루트앙상블 음악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옥경과 프랑스 파리 에콜 노르말과 독일 도르트문트 국립음대에서 음악공부를 한 김성은이 함께하는 플루트 듀오무대.

· 특별연주/김미내(첼발로)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 의 김성은(018-553-3445)

성가대와 함께하는 송년 찬양 페스티벌

12월 8일 월요일 오후 7:30 대공연장

부산, 경남지역 5개 교회 성가단이 참여하는 송년 찬양 페스티벌.

· 출연/구포제일교회(지휘/이홍길), 거제동교회(지휘/박부국), 반여장로교회(지휘/김대성), 양산교회(지휘/정용욱), 좌천동교회(지휘/박훈)

· 찬조출연/CCM가수 박보영, 최빛나, 원경하, 노경진

관람료 무료

문 의 이홍길(011-839-1084)

제 1092회 MBC 목요일음악회 앙상블 아이리스 인 부산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아다지오

12월 11일 목요일 오후 7:30 소공연장

현대음악에 관심있는 실력있는 연주자들로 구성된 앙상블 아이리스 인 부산 초청 MBC 목요일음악회.

프로그램

모차르트/아다지오와 푸가 다단조 K.546

공연의 준비에서 감동까지
그 시작은 박스아트컴과 함께...
☎ 633-2655

문화·예술 공연의 홍보 도우미
지하철 포스터 광고



토렐리/크리스마스 협주곡 작품 8 제 6번
만프레디니/크리스마스 협주곡 작품 3 제 12번 등
· 음악감독/김영준(서울시립대 교수, 바이올린)
장형준(서울대 교수, 피아노)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 의 아트뱅크 코리아(442-1941)
문화도시 부산네트워크(760-1494)

가족뮤지컬 호두까기 인형

12월 11일-14일 목-금요일 오전 10:30, 11:40,
주말 오후 1:00, 3:00 대공연장
차이코프스키의 아름다운 선율과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등 화려한 무대장치가 볼거리를 더해주는 가족뮤지컬 '호두까기 인형'.
관람료 1층 20,000원 · 2층 15,000원
문 의 동그라미그리기(818-1772)

김성숙 피아노 독주회 '모차르트와의 하루'

12월 15일 월요일 저녁 7:30 대공연장



이화여자대학교와 미국 위스콘신대(석사과정)를 졸업하고 현재 동의대학교 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김성숙 독주회.

이번 무대에서는 모차르트의 대표적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을 테마로 한 훔멜의 곡과 모차르트의 대표적인 피아노 소나타 곡을 들려준다.

관람료 균일 20,000원
문 의 클래식 프로인트(02-3141-5729)

부산시립합창단 찾아가는 음악회 2008 송년음악회

'Lovely Crossover & Cinemamusic'

12월 16일 금요일 오후 7:30 대공연장

지리적 이유로 부산문화회관을 찾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부산시립합창단이 마련하는 찾아가는 음악회. 시민들에게 친숙한 영화음악과 크리스마스 캐럴로 송년의 분위기를 더해준다.



· 지휘, 해설/김강규(수석지휘자)
· 협연/김진훈(드럼), 강주현(베이스 기타)
관람료 무료
문 의 부산시립합창단(607-6125~6)

최민경 피아노 독주회-메시앙 탄생 100주년 현대의 색과 음향, 이미지

12월 18일 목요일 오후 7:30 대공연장



부산대학교와 독일 트로빙엔 국립음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국립음악원, 빈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다양한 무대에 서온 피아니스트 최민경 독주회.

메시앙 탄생 100주년을 맞아 시마노브스키, 메시앙 등 현대 작곡가들과 진소영, 주창근, 오세일, 최삼화, 조희주 등

부산작곡가들의 창작곡을 들려준다.

관람료 일반 20,000원 · 학생 10,000원
문 의 최민경(010-9496-2687)

헤드윅

12월 20일(토)-31일(수) 화 · 금요일 오후 8:00,
수요일 오후 5:00, 8:00, 목요일 오후 3:00,
6:00, 토요일 오후 7:00, 일요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12월 27일 오후 4:00,
7:00) 대공연장



2005년 국내 초연무대 이후 두터운 매니아층을 형성하면서 열풍을 일으켰던 금세기 최고의 스타일 리쉬 락 뮤지컬 '헤드윅'.

동독 출신의 실패한 트랜스젠더 락가수 '헤드윅'과 그의 남편 '이츠학', 락 밴드 '앵그리인치'가 펼치는 콘서트 형식의 락 뮤지컬이다.

관람료 R석 55,000원 · S석 44,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주)AN시티(1644-4484)

해운대 문화회관



전통마당극 광대유사

12월 6일 토요일 오후 5:00 대공연장

권력에 의해 뒤주에 갇혀 죽어간 비운의 사도세자의 죽음을 광대들의 입으로 풀어내는 전통마당극.

· 작, 연출/이정남

관람료 균일 10,000원
(해운대문화회관 누림회원 1,000원)

문 의 해운대문화회관(749-7651~3)



올라 비올라 사운드 10주년 페스티벌

12월 7일 일요일 오후 4:00 대공연장

비올라의 숨겨진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기 위해 비올라만으로 구성된 국내 최초, 유일의 비올라 앙상블 '올라 비올라 사운드(Ola Viola Sound)' 10주년 기념무대.

스페인어로 '안녕'이라는 뜻을 가진 '올라' 비올라 사운드는 지난 1999년 12월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로 있는 비올리스트 오순화를 중심으로 창단, 현재 12명의 젊은 비올리스트들이 활동하고 있다.

관람료 VIP 70,000원 · R석 50,000원
S석 30,000원

문 의 뮤직클레프(02-3297-3387)

한끼의식사기금 제 4회 사랑의 자선음악회 Music of Miracle

12월 9일 화요일 오후 7:00 대공연장

한달에 한 번 한끼를 나누자는 의도로, 회원 1만여명의 후원으로 국내외 구호사업을 펼치고 있는 한끼의식사기금에서 마련하는 사랑의 자선음악회.



1부 클래식 무대에 이어 2부에서는 가수 안치환의 무대로 마련된다.

·출연/안치환(가수), 조현미(바이올린), 고충진(클래식기타), 이상창(플루트), 이윤정(소프라노), 공소현(피아노)

관람료 균일 20,000원
(10인 이상 단체, 신규 CMS회원 20% 할인)

문의: 한끼의식사기금(731-7741~2)

과학체험 가족뮤지컬 **궁금해요, 우주여행**

12월 12일-14일 금요일 오전 10:10, 11:20,
토-일요일 오후 12:00, 2:00, 4:00 대공연장

신나는 뮤지컬과 물리학박사 이창열의 과학실험을 함께 즐기는 어린이를 위한 과학체험 뮤지컬.

관람료 균일 12,000원

문의: DUBU기획(02-2654-6854)



코믹극 **뉴 보잉보잉**

12월 18일-31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12/24일 오후 4:00,
7:00, 12/25일 오후 3:00, 6:00) 대공연장

세 명의 애인이 한 집에 찾아오면서 펼쳐지는 바람둥이 주인공의 아슬아슬한 삼각 애정행각을 다룬 코믹극.

관람료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주)AN시티(1644-4484)

을숙도문화회관

메시앙 탄생 100주년 기념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

12월 2일 화요일 오후 8:00 대공연장



'건반 위의 구도자' 피아니스트 백건우가 메시앙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메시앙의 걸작 '아기 예수를 바라보는 20개의 시선' 전곡을 들려 준다.

관람료 VIP 100,000원 · R석 70,000원
S석 50,000원 · A석 30,000원
B석 20,000원(4인 가족석 200,000원)

문의: 공연기획 예성(582-2026)

가족뮤지컬 **루돌프와 산타할아버지**

12월 4일(목)-7일(일) 평일 오전 10:30, 11:40,
주말 오후 1:00, 3:00 대공연장

빨간코 루돌프 사슴과 함께 떠나는 성탄맞이 창작 가족뮤지컬.

관람료 균일 15,000원

문의: 동그라미그리기(818-1772)

부산시립합창단 찾아가는 음악회

2008 송년음악회

'Lovely Crossover & Cinemamusic'

12월 12일 금요일 오후 7:30 대공연장

시민들에게 친숙한 영화음악과 크리스마스 캐럴로 송년의 분위기를 더해주는 부산시립합창단 찾아가는 음악회 2008 송년음악회.

·지휘, 해설/김강규(수석지휘자)
·협연/김진훈(드럼), 강주현(베이스 기타)

관람료 무료

문의: 부산시립합창단(607-6125~6)

시민과 함께하는 빅4 콘서트 **을숙도 겨울 세레나데**

12월 14일 일요일 오후 5:00 대공연장



테너 임웅균

테너 임웅균, 소프라노 배수진, 피아니스트 박종훈, 가수 유열과 뉴프라이ム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시민들을 위한 빅4 콘서트.

·지휘/윤상운

관람료 무료

문의: 예성(582-2026)

가족뮤지컬 **호두까기 인형**

12월 18일(목)-21일(일) 평일 오전 10:30,
11:40, 주말 오후 1:00, 3:00 대공연장

크리스마스를 맞아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주는 가족뮤지컬 '호두까기 인형'.

관람료 1층 20,000원 · 2층 15,000원

문의: 동그라미그리기(818-1772)

동래문화회관

극단 맥 제 105회 정기공연

뮤지컬 **박차정**

12월 1일 월요일 오후 7:30, 2일-4일 화-목요일
오전 9:20, 11:00, 오후 2:00 대극장

부산출신의 대표적인 여성향일 운동가인 박차정 의사의 삶과 항일운동을 재조명한 창작뮤지컬.

·작, 연출/이정남

관람료 일반 12,000원 · 중고생 10,000원
(사랑티켓 참가작)

문의: 극단 맥(625-2117)

국제수준 음향 연주홀 녹음홀

글로빌아트홀

12. 1, 2월 대관접수중
첨단 시스템의 녹음 음반제작
샤론여린이오케스트라 단원 11월 29일 오전 10시 오디션
살롬합창단 단원 12월 1일 오후 8시 오디션
샤론장애우합창단 창단 12월 3일 오후 2시

음악영재교육 대안학교 샤론국제음악원
찬양사역사 음악목사 목사 교육배출기관
샤론찬양신학교 겨울학기 학생모집 중

국제수준 어쿠스틱음향 연주홀 · 녹음홀

GloVil Art Hall

607-603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 3동 1243-21(3호선 마남역 1번 출구에서 5분)
http://www.glovil.org E-Mail: glovil@paran.com
Tel. 051-505-5995/051-504-5994

가족뮤지컬 루돌프와 산타할아버지

12월 10일-11일 목-금요일 오전 10:30, 11:40

대극장

빨간코 루돌프 사슴과 함께 떠나는 성탄맞이 창작 가족뮤지컬.

관람료 균일 15,000원

문의 동그라미그리기(818-1772)

가족뮤지컬 스크루지의 크리스마스

12월 18일(목)-25일(목) 평일 오전 10:30, 11:40, 주말 오후 2:00, 4:00(25일은 오전 11:00, 평일 오전 단체관람) 대극장

구두쇠 스크루지가 자신을 찾아온 유령과 함께 떠나는 과거와 현재, 미래여행을 통해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사랑과 감동의 가족뮤지컬.

관람료 일반 12,000원 · 어린이 8,000원 (사랑티켓 참가작)

문의 인형극단 까치(625-2117)

KBS 부산홀

이승환 콘서트-Original

12월 13일 일요일 오후 6:00

관람료 VIP 110,000원 · R석 99,000원
S석 88,000원 · A석 77,000원
B석 66,000원 · C석 55,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드림팩토리클럽(624-7976)

개그콘서트 & 웃찾사 개그플러스

12월 14일 일요일 오후 3:00, 6:00

관람료 R석 66,000원 · S석 55,000원
A석 44,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에스엠기획(1600-1602)

쿨(COOL) 콘서트

12월 24일 수요일 오후 8:00

관람료 R석 88,000원 · S석 77,000원
A석 66,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주)AN시티(1644-4484)

자우림 전국투어 콘서트

12월 25일 목요일 오후 7:00

관람료 R석 88,000원 · S석 77,000원
A석 55,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주)AN시티(1644-4484)

2008 권쥬리꼬꼬 불담콘서트-부산

12월 27일 토요일 오후 4:00, 8:00

관람료 VIP 88,000원 · R석 77,000원
S석 66,000원 · A석 55,000원

문의 올리버엔터테인먼트(1588-4430)

김장훈 2008 원맨쇼 '쇼킹의 귀환'

12월 30일 화요일 오후 8:00

31일 수요일 오후 11:15

관람료 R석 88,000원 · S석 77,000원
A석 55,000원 · B석 44,000원
C석 33,000원(12/31일 R석 99,000원
S석 88,000원 · A석 66,000원
B석 55,000원 · C석 44,000원, 부산시립예
술단 정기회원 R석 제외한 전 좌석 10% 할인)

문의 (주)AN시티(1644-4484)

BEXCO

조용필 40주년 기념 콘서트

12월 6일 토요일 오후 7:00

관람료 R석 99,000원 · S석 88,000원
A석 77,000원 · B석 66,000원

문의 인사이트커뮤니케이션(1588-8477)

DJ.DOC 2008 막판뒤집기

12월 19일 금요일 오후 8:00

관람료 R석 88,000원 · S석 77,000원
A석 66,000원(전 좌석 스탠딩석)

문의 좋은콘서트(1588-8477)

야마하 뮤직 페어 2008

12월 19일(금)-21일(일)

· 19일 오후 1:00 이혜전(숙명여대 교수)의 피아노 마

스터 클래스

- 19일 오후 7:00 이정식 밴드의 재즈 콘서트
- 20일 오후 6:00 안희찬의 트럼펫 콘서트
- 21일 오후 7:00 김성훈, 장성의 피아노 콘서트

관람료 초대

문의 부산야마하피아노사

(863-0900, www.yamaha-music.co.kr)

2008 SG 워너비 크리스마스 콘서트

12월 20일 토요일 오후 7:30

관람료 R석 99,000원 · S석 88,000원
A석 77,000원 · B석 66,000원

문의 뉴페이스컴(622-5744)

2008 The 신승훈 Show - A White Night 크리스마스 부산콘서트

12월 24일 수요일 오후 8:30

관람료 VIP석 99,000원 · R석 88,000원
S석 77,000원 · A석 66,000원

문의 (주)뉴페이스컴(1588-8477)

015B 크리스마스콘서트 - 부산

12월 25일 목요일 오후 7:00

관람료 R석 77,000원 · S석 66,000원
A석 55,000원

문의 (주)시저스컨텐츠그룹(1588-8477)

박진영 콘서트 2008 '나쁜 파티'

12월 27일 토요일 오후 8:00

관람료 R석 99,000원 · S석 88,000원
A석 66,000원 · B석 55,000원
C석 44,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R석
제외한 전 좌석 10% 할인)

문의 (주)AN시티(1644-4484)

2008 'Sweet December 박정현 & 알렉스'

12월 28일 일요일 오후 7:00

관람료 R석 88,000원 · S석 77,000원
A석 66,000원 · B석 55,000원
C석 44,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주)AN시티(1644-4484)

부산롯데호텔

김범수 콘서트

12월 24일 수요일 오후 7:00, 10:30
크리스탈볼룸

관람료 R석 77,000원 · S석 66,000원
A석 55,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주)AN시티(1644-4484)



뮤지컬 마리아 마리아

12월 24일(수)-31일(수) 화·금요일 오후 8:00,
수요일 오후 6:00, 10:00, 목요일 오후 2:00,
6: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2:00, 6:00(월요일 공연없음) 아트홀

예수를 유혹하는 대가로 밀바닥 생활을 청산하고 로
마행을 꿈꾸는 청년 마리아의 굴곡진 삶을 드라마틱 이
야기로 구성한 뮤지컬 '마리아 마리아'.
관람료 R석 60,000원 · S석 50,000원
A석 4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주)AN시티(1644-4484)

패티김 50주년 부산 연말 디너쇼

12월 30일-31일 화-수요일 오후 7:00
크리스탈볼룸

관람료 R석 176,000원 · S석 154,000원
문의 Knp엔터테인먼트(1599-8879)

글로벌아트홀

소프라노 이정아 독창회

12월 18일 목요일 오후 7:30

서울대학교 성악과와 미국 맨하탄음대(최고연주자,



석사과정), 매릴랜드 주립대(박
사과정)를 졸업하고 현재 미국
과 싱가포르 등을 중심으로 활발
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소프라
노 이정아 독창회.

관람료 초대
문의 글로벌아트홀
(505-5995)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춤과 음악의 만남

12월 23일 화요일 오후 8:00

객석을 무대로 모든 관객이 함께 참여하는 음악과 무
용의 퍼포먼스 무대.

- 안무/하정애(신라대학교 교수)
- 음악감독/신영순(글로벌아트홀 예술총감독)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의 글로벌아트홀(505-5995)



글로벌아트홀 개관 3주년 및 글로벌콘서트바토리 개교 3주년 기념음악회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행복음악회

12월 28일 일요일 오후 5:00

글로벌아트홀이 매월 시민을 위해 마련하는 행복음악회.
· 연주/백사론, 김윤미, 최은진, 옥중훈(바이올린), 살롬
합창단 외

관람료 초대
문의 글로벌아트홀(505-5995)

부산의 소극장

2008 JUMP 부산

5월 3일(토)-오픈런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8:00, 일·공휴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IBK 점프부산전용극장

무술인가족이 사는 집에 도둑이 들어오면서 벌어지는
코믹한 상황속에 화려한 아크로바틱이 시선을 사로잡는
화제의 난버벌 퍼포먼스 '점프'.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주)아트포(744-4885)

강풀의 바보

11월 7일(금)-12월 31일(수)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월
요일 공연없음) 초콜릿 팩토리

바보 승룡이와 그의 친구, 그리고 주변 인물들의 이
이야기로,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을 따뜻한 감동의 메시지
를 전하는 연극 '강풀의 바보'.

· 연출/추상욱
· 출연/송삼동, 김대명, 김민진, 이영우, 김의성 외
관람료 일반 25,000원 · 중고생 15,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초콜릿 팩토리(621-4005)

창작뮤지컬 Love is... 두 번째 이야기

2008년 11월 18일(화)-2009년 1월 4일(일) 평
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6:00, 일요일 오후
4:00(월요일 공연없음) 공간소극장

사랑의 퍼즐을 맞추어 나가는 두 남녀의 알콩달콩 사
랑이야기가 경쾌하고 감미로운 멜로디를 따라 펼쳐지는
창작뮤지컬.

책사랑 53년 대형서점 지하1~5층 엘리베이터은행

전국최고 종합지도(지구본센터) (과장광고 아님)

국산 지구본 최상품만 취급/외국산 지구본 최상품취급

▶ 국 산 : 소·중·대·초대형 위성, 지세, 행정 다양함 20%할인
▶ 외국산 : 세계적 매출 독일 스텔라노바 소·중·대 초대형
공중부양, 뜨고, 돌고, 한·영지명 출시중 색상불변 선물용최고

지도의 모든것! 종류가 많아서 일부만 안내합니다.

▶ 전국, 시, 도별지도 전국교통관광지도, 국내, 외국관광책자
▶ 전국전자지도 PC로 지적, 지번, 도면 확대 축소 연결자유
▶ 경매, 부동산, 건설 설계, 시공, 통신, 유통, 택배,
금융기관, 업무용, 기타 각종업체 정부발행지도판매
▶ 지형도 당지도센터 취급의 1:3000지도를 연결코팅
▶ 부동산업계, 기타, 회사, 사용용도에 따라 소중, 대형코팅

대형지도, 지구본 매장 관람을 환영

새 소식!

문우당서점 지도센터에서

세계지도계 초유

한국발명특허 획득

국기 있는 지도(특허품), 국기 없는 지도(2종)

- 대형 금박 고급 액자 세계지도(사무실, 학교)
- 일반형 금박 고급 액자 세계지도(사무실, 학교)
- 대형, 코팅 벽걸이용 세계지도(사무실, 학교)
- 일반형코팅벽걸이용 세계지도(학교, 가정)

★ 학생, 일반공용케이스 / 날정지도(값 5,000원)

since 1955

문우당

MUN WOO DANG BOOK, STORE
www.munbook.co.kr

문우당서점

Tel: 241-5555(대표)
245-2714(공연문의)
자갈치시장 정문이 보이는 아치탈 앞
(미니몰 건너편)

각종 공연예매처

CGV10% 적립 통도환타지아 경주월드
할인 판매처



· 연출/김만중
· 출연/이지혜, 김성현, 방두환, 김호준
관람료 일반 30,000원 · 청소년 20,000원
문 의 공간소극장(611-8518)

닥터 이라부

11월 20일(목)-12월 31일(수)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30, 일요일 오후 3:00,
6:30(월요일 공연없음) AN아트홀.Red

강박증이라는 정신병을 가진 환자들을 치료하며 생기는 에피소드가 코믹하게 펼쳐진다.

· 원작/오쿠다 히데오 · 작, 연출/김동연
· 출연/오종훈, 강진아, 이승준, 정혜진, 김용환
관람료 균일 25,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AN시티(1644-4484)

뮤지컬 사랑에 관한 다섯 개의 소묘

11월 28일(금)-12월 31일(수)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30, 7:30, 일요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12/24, 12/31 오후
7:30, 10:30, 12/25 오후 3:00, 6:00)

가마골소극장



사랑에 관한 다섯 가지 에피소드가 감동적으로 펼쳐지는 창작뮤지컬.

· 작, 연출/위성신
· 작사/문희
· 작곡/송시현
· 출연/맹상열, 조민정, 김현아, 오익식, 박은미 외

관람료 균일 25,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가마골소극장(245-0042)

가톨릭센터 화요음악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가톨릭센터 소극장

■12월 2일 2008 피아노 신인음악회

부산지역 대학교 피아노과 졸업예정자들이 마련하는



신인음악회.

■12월 9일 G-String의 음악여행

2007년 12월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들로 창단된 G-String 연주회. G-String은 바이올린의 가장 낮은 선인 G선과 저음악기의 푸근함으로 대중들과 만났다.

■12월 16일 해설이 있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해설과 함께 들려주는 오페라 갈라 콘서트 베르디 '라 트라비아타'

· 출연/소프라노 김민희, 테너 양승엽, 바리톤 김상호,
사랑의 울림합창단

■12월 23일 연인들을 위한 사랑의 음악회

동의대학교 이기녕 교수와 동의실용음악팀 Purplin와 함께하는 연인들을 위한 사랑의 음악회.

■12월 30일 성음악인을 위한 송년 미사 및 음악회

관람료 일반 10,000원 · 청소년 5,000원
문 의 가톨릭센터(462-1870)

뮤지컬 햄릿

12월 4일(목)-20일(토)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00, 7:30(일-화요일 공연없음)

가톨릭센터 소극장

햄릿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 파격적인 구성을 시도한 뮤지컬 '햄릿'.

· 연출/김세진
· 출연/김세진, 이현주, 엄준필, 탁현진, 서민정, 김병철

관람료 일반 25,000원 · 청소년 15,000원

문 의 (주)아이엠아이(623-0678)

액터스 소극장 아니 왜 이러세요

12월 5일(금)-14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
공휴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액터스 소극장



대학 연구실에서 벌어진 교수와 여학생간의 이상한 성희롱 사건을 소재로, 세대차이, 남녀 성별차이, 계급차이, 가치관 차이에서 빚어지는 오해와 편견을 그려낸 문제작.

· 작/데이비드 메넷
· 연출/이성규
· 출연/김은희, 유재명

관람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

문 의 액터스 소극장(611-6616)

카툰뮤지컬 두근두근

2008년 12월 5일(금)-2009년 1월 18일(일) 평
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 · 공
휴일 오후 2:00, 6:00(월요일, 1/1일 공연없음,
12/24일 · 12/31일 오후 5:00, 9:00, 12/26
일 · 12/30일 오후 7:00, 10:00, 12/27일 오후
3:00, 7:00, 10:00, 12/29일 오후 8:00)

사랑과혁명 소극장

울렁울렁, 쿵닥쿵닥, 쿵쿵 등 만화에서나 나올만한 의
성어와 의태어로 사랑의 설렘을 그린 창작뮤지컬.

· 작, 연출/정세혁
· 출연/우영욱, 노양진, 이윤희, 하진주, 서성화 외

관람료 균일 30,000원(12/5~12/11 프리뷰공연 예매
시 50% 할인, 화-목요일 공연 예매시 30%
할인, 금-토요일 공연 예매시 10% 할인, 일 ·
공휴일 공연 예매시 20% 할인)

문 의 에스엠기획(1600-1602)

파리 한 마리도 못 죽이는 남자

12월 5일(금)-21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5:00, 일요일 오후 3:00 미리내소극장

아내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남자와 남편을 보
호하는 것이 삶의 목적인 여자를 통해 현대인의 일탈된
일상을 그린 문제작.

· 출연/유상훈, 구민주 호민, 김희지

관람료 균일 20,000원(19세 미만 관객 불가)

문 의 미리내소극장(504-2544)

따로 또 같이

12월 9일(화)-28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 공휴일 오후 5:00 열린소극장

무대와 신체, 마미적 상상력이 결합된 색다른 무대
'따로 또 같이'.

· 연출/하현관
· 출연/하현관, 안성혜, 진선미, 배진만, 김영림, 김유하

관람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

문 의 열린소극장(555-5025)

뮤지컬 달밤블루스

2008년 12월 10일(수)-2009년 1월 18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 공휴일 오후 5:00

(월-화요일 공연없음) 일터소극장



하천변 주변 포장마차를 배경으로, 환경미화원, 과일 집 아지매, 월남 참전용사, 소외된 우리 이웃들의 삶이 따뜻하게 펼쳐지는 뮤지컬 '달밤블루스'.

· 작, 연출/김기영
· 출연/윤순심, 박성진, 김선관, 이수옥, 조기정 외
관람료 일반 20,000원 · 중고생 15,000원
어린이 10,000원(사랑티켓 참가작)
문 의 일터소극장(635-5370)



청소년을 위한 가정폭력예방연극 희망편지

12월 11일 목요일 오후 7:00 민주공원 소극장

폭력을 일삼는 아버지를 둔 정은이네를 배경으로, 그들의 일상과 가정폭력의 문제를 그린 '희망편지'.

· 연출/이상우(극단 자갈치 대표)
관람료 무료
문 의 (사)여성문화인권센터(363-3838)

바쁘다 바빠

2008년 12월 12일(금)-2009년 1월 11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3:00, 6:00(12/24, 12/31 오후 7:00, 10:00, 월요일 공연없음) 공간소극장

1980년대 빈민가정을 배경으로, 가난 앞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가족을 통해 따뜻한 감동과 웃음을 전한다.

· 작, 연출/이길재
· 출연/신준영, 이미애, 이혜진, 김종국, 김도윤, 이세현, 조가비, 김현정

관람료 일반 30,000원 · 청소년 20,000원
문 의 공간소극장(611-8518)

강대현 피아노독주회

12월 20일 토요일 오후 5:00 가람아트홀



인제대학교(실기수석입학) 3학년에 재학중인 강대현의 피아노 독주회.

프로그램
브람스/랩소디 작품 79
제 1, 2번
쇼팽/발라드 제 1~4번

관람료 무료
문 의 강대현(010-3080-0199)

늘근도둑이야기

12월 22일(월)-31일(수) 월·화·금요일 오후 5:00, 8:00, 수요일 오후 7:00, 10:00, 목요일 오후 3:00, 6: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늙고 어리숙한 두 도둑을 주인공으로, 현 시대상을 촌철살인적 풍자와 기막힌 코메디로 풀어낸 '늘근도둑이야기'.

· 작/이상우 · 연출/김지훈
· 출연/박철민, 유형관, 서현철, 김원해, 정경호, 이준혁, 이상홍

관람료 균일 35,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주)AN시티(1644-4484)

코메디 뮤지컬 년센스

12월 23일(화)-31일(수) 월-화요일 오후 8:00, 수·금요일 오후 6:00, 9:30, 목요일 오후 3:00, 6:30, 토요일 오후 4:00, 7:30, 일요일 오후 3:00, 6:30 동아대학교 석당홀

식중독으로 숨진 동료 수녀들의 장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수녀 5명이 펼치는 포복절도 코메디 뮤지컬 '년센스'.



관람료 R석 45,000원 · S석 35,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주)AN시티(1644-4484)

전시



윤경아 금속 자연그림 초대전

11월 19일(수)-12월 14일(일) 갤러리 예가

문 의 갤러리 예가(624-0933)

이재명 개인전 '신들의 초상'

12월 2일(화)-12월 7일(일) 영광도서갤러리

문 의 영광도서갤러리(816-9500)

서양화 5인전

12월 11일(수)-12월 17일(수) 타워갤러리

문 의 타워갤러리(464-3939)

박연욱 개인전

12월 16일(화)-12월 21일(일) 영광도서갤러리

문 의 영광도서갤러리(816-9500)

대학교 동등한(학점은행제) 교육기관
Guide for Your Dreaming BUSANCONSERVATORY

부산콘서바토리음악원

오페라과 신설
▶ 작품: 푸치니 오페라 '라보레'
▶ 모집일시: 수시모집
▶ 모집대상: 오페라에 관심있는 분은 나이, 학력 제한없이 누구나 가능
▶ 수업내용: 오페라 악보연습, 연기
▶ 수업시간: 매주 토요일 오후 1시~3시

학위과정 학사/전문학사/복수(타전공)학위(매년 2월, 8월중에 모집)
성악(뮤지컬), 피아노, 관현악, 작곡, 지휘, 교회음악(CCM)

유학과정 조기, 단기, 장기유학(유럽 전지역)
본원 자매학교 - 체코 브르노콘서바토리

입시원 예중, 예고, 대학, 편입, 대학원 등 철저한 개인위주의 시스템

취미과정 모든 과정 개인레슨

부산콘서바토리아트홀 대관 - 연주회, 마스터클래스, 세미나 등

부산콘서바토리음악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2동 595-61
BUSAN CONSERVATORY 사무실 TEL. 051-501-3999
부산콘서바토리아트홀 부산콘서바토리아트홀 FAX. 051-505-3999
BUSANCONSERVATORY Art Hall 홈페이지: www.bscon.co.kr
부산콘서바토리음악원 대연분원 T. 629-9110(경성대전철역 2번 출구, 푸르지오 상가 2층)

부산 최초의 국립문화예술기관 국립부산국악원 개원

부산 최초의 국립문화예술기관인 국립부산국악원이 지난 10월 28일 개원했다. 국립부산국악원은 남원의 국립민속국악원(1992년)과 진도의 국립남도국악원(2004년)에 이은 국립국악원의 세 번째 지방국악원으로 공연, 교육, 연구를 총괄하는 복합기능의 국립 문화예술기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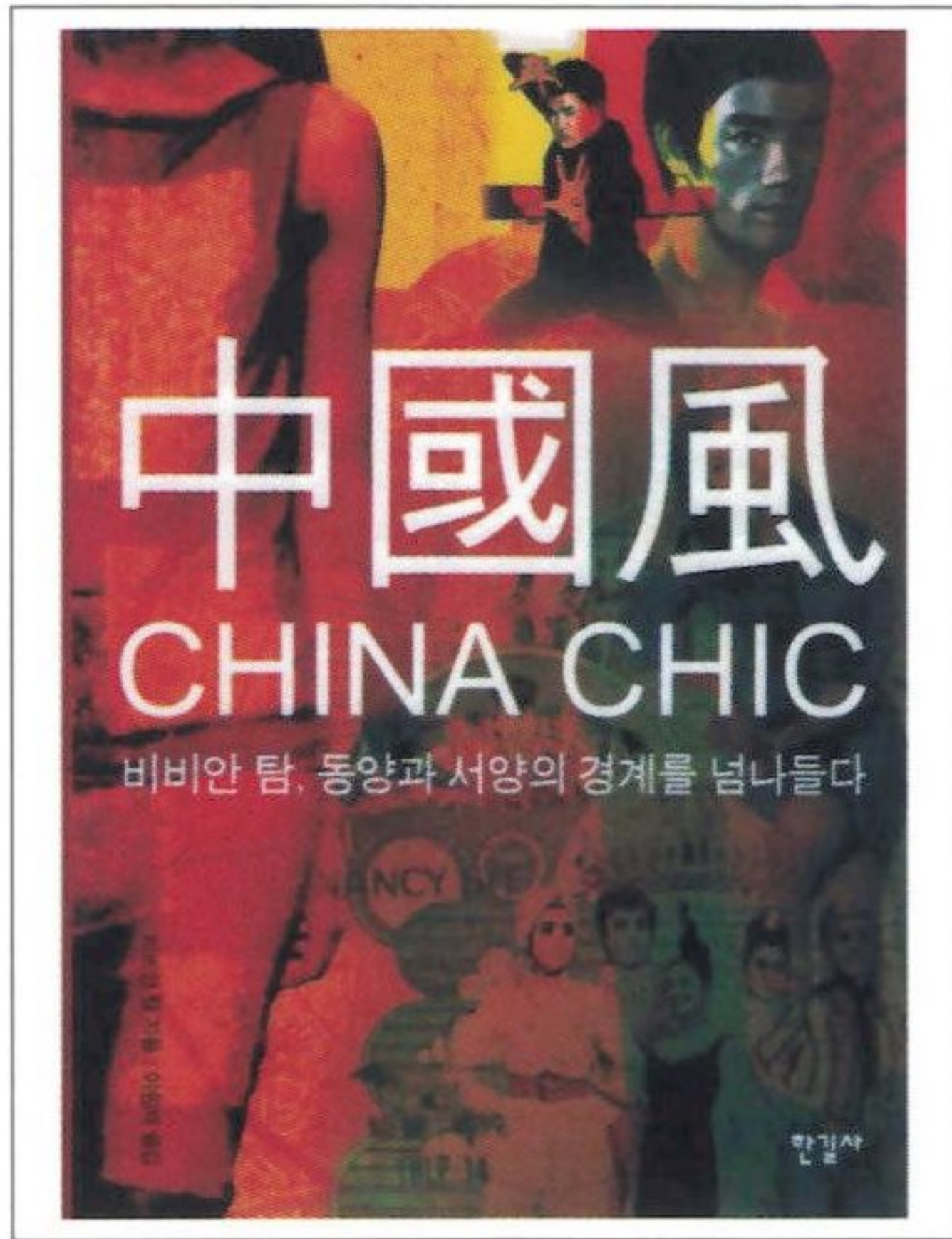
지난 2002년 공사에 들어간지 7년만에 문을 연 국립부산국악원은 부지 21,359㎡, 연면적 20,323㎡에 대공연장 연악당과 소공연장 예지당(藝池堂), 교육실, 연습실 등을 갖추고 있다. 연악당(蓮樂堂)과 예지당(藝池堂)은 국립부산국악원이 자리한 연지동에서 그 이름을 가져왔다. 연악당은 1층 536석, 2층 162석 등 총 698석 규모로, 대형세트의 입체적 활용이 가능한 승강무대 3개와 보조승강무대 6개, 측면슬라이딩무대 3개, 회전무대 1개, 이동무대 1개 등을 갖추고 있어 타 공연장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무대전환 효과를 연출할 수 있다. 특히 객석 발코니를 원형으로 설계, 소리를 반사시키지 않으면서 소리에 대한 집중력과 현장감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 국악독주, 판소리 등 국악전문 공연장으로 적합한 음향설계이다. 예지당은 총 276석 규모의 소공연장으로, 최적의 자연음향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밖에도 전속단원들을 위한 대, 소 연습실과 일반인의 교육을 위한 강습공간, 60석 규모의 세미나실, 그리고 야외공연이 가능한 계단식 객석의 야외공연장이 갖춰져 있다. 또 건물 주변에는 작은 광장들과 한국정원, 시원한 물줄기가 흘러내리는 벽샘 등이 있어 주변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도 손색이 없다.

국립국악원은 앞으로 전통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공연 브랜드 개발과 관광객을 위한 상설국악공연, 국제행사 및 지역축제 지원 등 다채로운 공연활동과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국악체험 프로그램과 학교 국악교육 및 연수지원 프로그램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또 부산, 영남지역의 전통문화를 발굴, 계승하며 더 나아가 아시아, 태평양 민족음악을 연구하는 등 다양한 연구, 학술활동도 펼쳐나갈 계획이다.

■문의 : 국립부산국악원(811-0040~1, www.ncktpab.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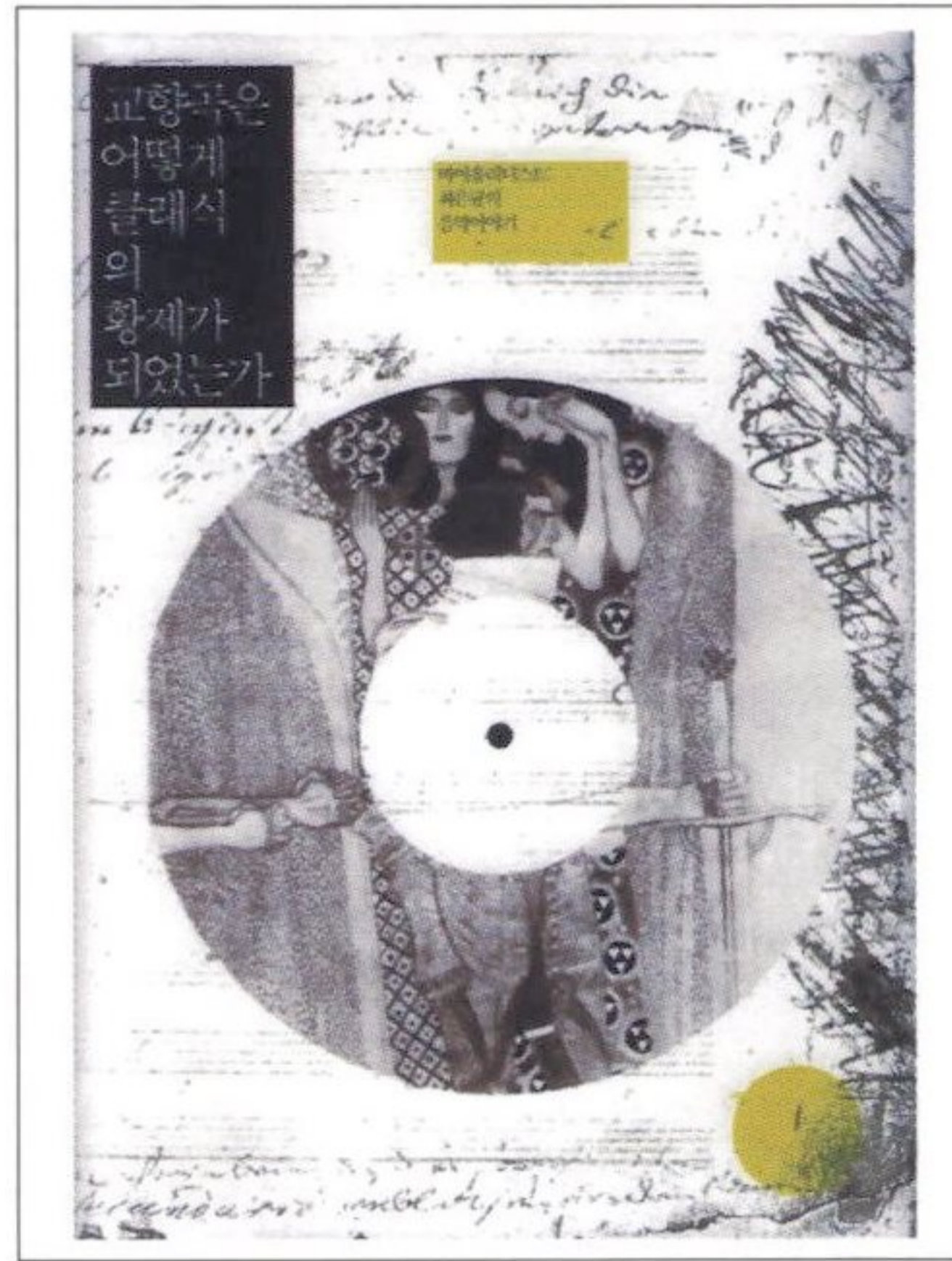




中國風 CHINA CHIC

• 비비안 탐 지음 • 한길사
• 451p • 2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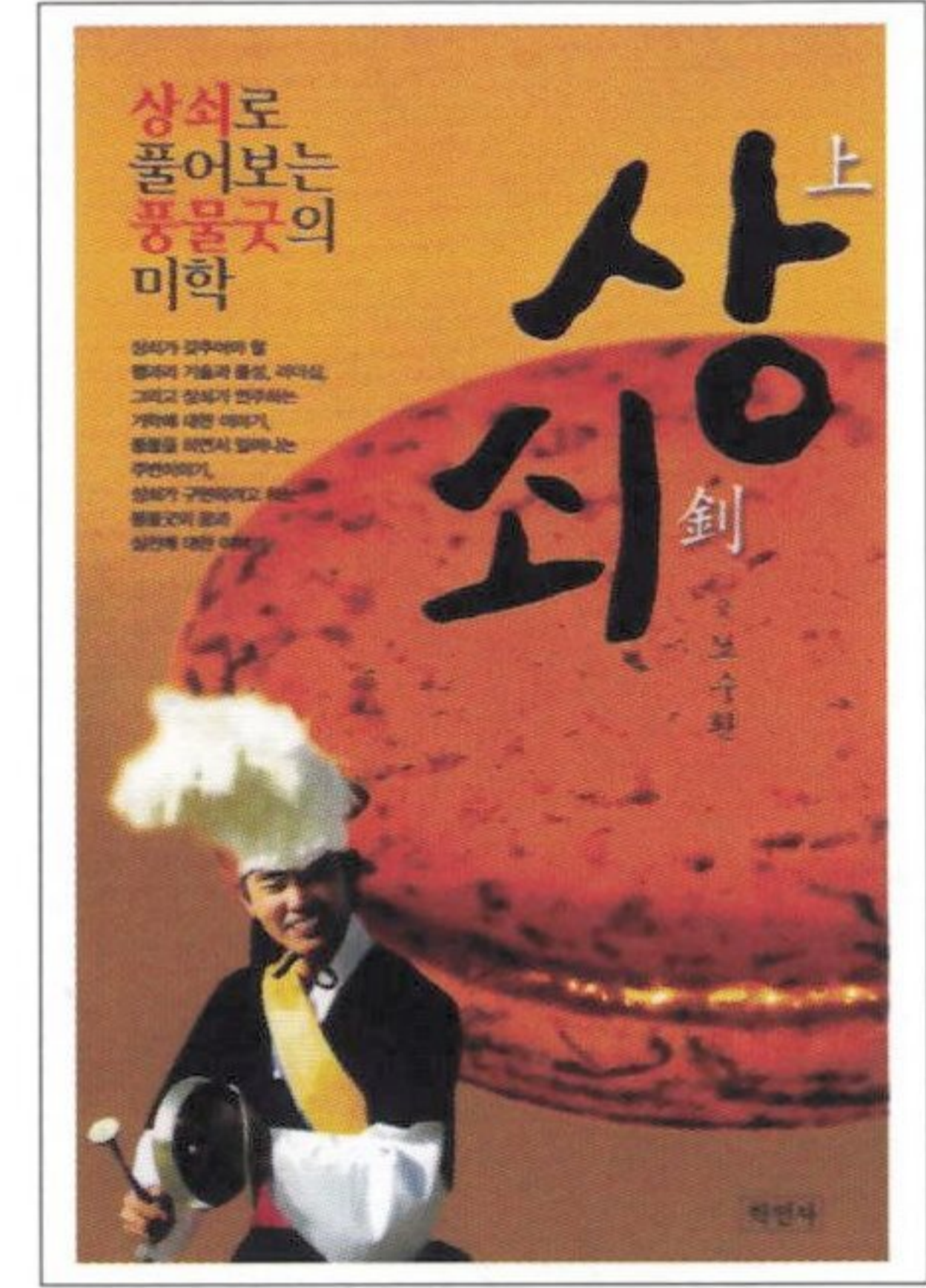
중국 출신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 비비안 탐이 중국 문화와 디자인을 이야기하는 책. 중국 광저우에서 태어나 세 살 되던 해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홍콩으로 건너가 성장하며 받은 영국과 중국의 교육은 동서양이 접목된 탐 스타일의 시발점이 되었다. 그녀는 중국문화를 압축할 수 있는 한자로 삼(衫) 희(囍) 호(好) 열(熱) 통(通) 명(明) 청(淸) 시(市) 융(融) 9자를 선정했다. 이 글자들은 이야기의 출발점이자 각 장의 제목이다. 중국의 전통의상에 대한 탐의 관심은 '삼'에 담았다. '희'는 중국의 결혼문화와 사랑에 관한 이야기다. '호'는 중국인들의 삶과 문화 속에서 어린이들이 차지하는 위상을 말한다. '열'은 중국 현대 예술가들이 마오라는 정치적 기호를 어떻게 작품세계에서 표현해 왔는지 보여준다. '통'에서는 불교, 도교, 절과 수도원, 태극권, 서예 등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정신세계를 엿본다. 이 밖에 '명' '청'의 문화, 현대사회의 '시' 문화 등을 살핀다. '융'에서는 중국 현대 문화의 혼성성을 말하는데 중국과 서양의 문화가 혼합돼 새로운 스타일로 만들어진 건축물, 패션 등을 소개한다. 중국 문화와 예술의 매력을 전해주는 책.



교향곡은 어떻게 클래식의 황제가 되었는가

• 최은규 지음 • 마티
• 243p • 15,000원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의 인기로 클래식 음악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많아졌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클래식이란 카리스마 넘치는 지휘자가 오케스트라를 거느리고 교향곡을 연주하는 모습일 것이다. 이 책은 교향곡이 어떻게 클래식의 보편적인 이미지가 될 정도로 인정을 받았는지 보여준다. 교향곡은 의례적 기능으로선 음악활동의 절대적인 중심이었던 종교곡과 싸워 이겼고, 오락적 기능으로선 궁정의 실내악과 오페라를 누르고 오늘날의 지위에 올랐다. 이 책의 저자인 바이올리니스트 최은규 씨는 18세기 오페라 극장의 소란스런 분위기 속에서 막이 오르기 전에 관객들의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해 연주되던 짧고 간단한 서곡이 어떻게 전 세계 콘서트 무대의 황제가 되었는지를 음악사적으로, 사회문화사적으로 추적한다. 그리고 이 과정이 음악가의 사회적 독립, 시민사회의 성립과 이에 따른 공공연주회의 탄생과 함께 했음을 밝힌다. '함께 울린다'라는 뜻의 교향곡은 여러 악기가 함께 연주할 뿐만 아니라 시대와 역사와 함께 울려 퍼졌음을, 그래서 교향곡이 사랑과 함께 혁명도 노래했음을 이야기한다.



상 쇠

• 노수환 지음 • 학민사
• 267p • 13,000원

상쇠로 풀어보는 우리 풍물굿의 미학. 저자 노수환 씨는 대학교 때 접한 풍물굿에 빠져들어 상쇠로의 길을 밟아왔다. 뿐만 아니라 사물놀이, 풍물굿, 무속음악 등 국악 전반의 타악을 두루 섭렵하였고 많은 공연과 교육을 통해 전통 타악의 이론과 실기를 정리하였다. 풍물굿의 중요 의미를 오늘에 되살리는 작업으로 '서울풍물재수굿'을 주도하고, 문화전승이 가능한 당대의 풍물굿을 만들기 위해, 풍물굿의 영성 회복을 위해 힘써 온 그가 풍물굿 이야기 한 마당을 펼쳐놓았다. 이 책은 상쇠가 갖추어야 할 팽과리 기술과 품성, 리더십, 그리고 상쇠가 연주하는 가락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풍물을 하면서 일어나는 주변이야기와 상쇠가 구현하려고 하는 풍물굿의 꿈과 실천에 대한 마음도 모두 쏟아냈다. 그는 풍물이 다시 영성을 회복하는 축제로서 도시 한복판에서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21세기가 요구하는 리더십을 상쇠의, 사람을 품어 안는 큰 덕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또한 상쇠가 다루는 팽과리를 통해서 타악기 연주의 몸과 마음의 자세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신명나는 풍물굿 한마당에 흥겨움을 마음껏 느껴 볼 수 있는 책이다.

제 2기 시민클래식교실



- 강습기간 : 2009. 1. 7(수) ~ 2. 25(수) - 8회
매주 수요일 14:00~17:00
- 강습내용 : 소리의 구성
- 강습세부일정

일자	내용	장소
1. 7	오케스트라 소리의 구성 - 음향	소극장
1. 14	클래식음악의 황제 교향곡 I - 정의	국제회의장
1. 21	클래식음악의 황제 교향곡 II - 걸작교향곡을 찾아서	"
1. 28	솔로와 오케스트라의 화려한 만남 - 협주곡의 세계	"
2. 4	순수한 눈으로 본 세상 - 인상주의	"
2. 11	발레 음악의 아름다움 - 백조의 호수, 불새	"
2. 18	오페라 탐사 - 카르멘 I	"
2. 25	오페라 탐사 - 카르멘 II	"

※강의 후반부에는 부산시립교향악단 등 실내악 공연이 함께 합니다.

- 강 사 : 이동신(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 모집인원 : 100명
- 신청기간 : 2008. 12. 12(금) ~ 12. 19(금)
- 접수처 : 부산시립교향악단 사무실(부산문화회관 1층)
- 문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3)
- 수강료 : 1인당 30,000원

※입금계좌 부산은행 036-01-034275-5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31기 시민무용교실

- 강습기간 : 2009. 1. 5(월)~1. 9(금) 13:00~17:00(5일간)
- 강습장소 : 국제회의장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2층)
- 강습내용 : 입춤(13:00~15:00), 장고춤(15:00~17:00)
- 강습발표회 : 1. 9(금) 13:00~14:0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 강 사 : 입 춤 - 홍기태(수석안무자), 권봉정(수석)
장고춤 - 정진희(수석), 황선희
- 대 상 : 일반 시민 및 교사(각 반 30명)
- 준비물 : 입 춤 - 살풀이 수건 (길이 70cm)
- 수강료 : 20,000원

제 20기 어린이 한국춤 교실

- 강습기간 : 2009. 1. 5(월)~1. 9(금) 10:00~12:00(5일간)
- 강습장소 : 국제회의장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2층)
- 강습내용 : 꼭두각시춤(10:00~11:00)
어린이탈춤(11:00~12:00)
- 강습발표회 : 1. 9(금) 13:00~14:0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 강 사 : 꼭두각시춤 - 홍기태(수석안무자), 권봉정(수석)
어린이탈춤 - 정진희(수석), 황선희
- 대 상 : 초등학교 어린이 (각 반 30명)
- 수강료 : 10,000원

■접수기간 : 2008. 12. 22(월)~12. 26(금)

(평일 10:00-18:00, 12/25일 휴무)

■전화접수 : 부산시립무용단 사무실

(051-607-6118, 6120) ※선착순 마감



2008 부산국제합창제 축하전야음악회 및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42회 정기연주회

우리의 멋과 아름다움, 역동성을 두 시간 남짓한 공연시간 내내 뜨거운 열기속에 고스란히 담아내어, 이번 합창제에 참가한 세계인들과 멋진 공연을 해준 연주자,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객석이 하나가 되어 문화의 바다에 풍덩 빠졌던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김은정(해운대구 재송1동)

부산시립극단 제33회 정기공연 '불가불가'

얼핏 어수선하고 당황스러운 시작과 진행, 그러나 그것들이 미리 연출되었음을 숙지했기에 여유롭게 공연에 집중할 수 있었다. 연극을 준비하는 과정을 볼 수 있는 독특한 진행과 극이 진행되면서 우리 역사의 답답하고 한심한 순간들을 반복적으로 구성하면서 '불가불가' 라는 4자의 대사로 함축한 연출이 돋보였던것 같다.
-이영일(중구 영주1동)

부산시립무용단 정기공연 길.들.여.진 토끼!!

토끼의 형상 이미지로 사람을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춤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출발 전부터 궁금증이 몰려왔다. 그런데 공연을 보는 순간마다 솔로와 군무의 공연 하나 하나에 매료되어 이것이 무용공연이구나 하는 놀라움과 함께 무용수와 무대와 조명과 음향 모두가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듯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다. 그날 난 길.들.여.진 토끼!!를 보면서 무용공연은 어렵고 난해하다는 나의 편협했던 지난 생각들을 바꾸게 되었다.
-김화남(사상구 주례1동)

한낮의 U:콘서트

깊어가는 가을에 마음까지 움츠려드는 일상속에서 조금은 지루하고 따분해하던 나에게 U:콘서트와 함께 한 한시간 반은 음악으로 활력을 되찾는 감사하고 소중한 시간이었다. 뮤지컬 배우들을 가까이에서 본다는 기대도 있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나 역시 무대위의 배우들과 같이 호흡하며 맘마미아를 따라 부르기도 하였다. 짧은 시간을 뒤로하며 아쉬움은 남았지만 다음을 기약하며 움츠린 어깨를 짹~펴본다.
-배은숙(수영구 망미동)

노블레스 음악회

선곡도, 연주자들의 매너도 밝고 경쾌한, 한마디로 음악도 분위기도 좋은 음악회였다. 시종일관과 무대분위기를 리더하며, 관객과의 교감을 이끌어내던 바리톤 김동규를 인간적인 호감으로 다시 보게도 되었다. 라흐마니노프, 생상스, 베르디의 귀에 익은 곡들도 좋았지만, 관객을 사로잡은 곡은 마지막곡 역시 Marquez 의 Donzon No.2였다. 부산에서 초연(아마, 지난 9월에 한국초연?)이라는 이 곡은 7박자 라틴탱고리듬의 경쾌함에 이국적 애수의 정서까지 담아 관객을 매료시켜버렸다. 다음 날, 부산문화회관 BSO 정기연주회 때 앵콜곡으로 다시 들을 수 있었고 어느새 나의 애청곡이 되어버렸다.
-하진욱(수영구 남천동)



나랏소
한우 숯불구이 고향 전문점

나랏소란?
그 옛날 나랏님께서 드시던 우리
나랏소 한우를 뜻합니다.



TEL. 051-628-8814
대연동 시티원골프연습장 입구

방법 bsculture@naver.com으로 공연후기 '100자 토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된 '100자 토크'는 예술에의 초대 지면을 통해 소개합니다.

'100자 토크' 공연후기를 보내주신 분 중 5명을 선정하여 나랏소 시식권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마감 수시 모집
(원고를 보내실 때는 주소와 연락처를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7~8)

사과 향 가득한 영천 별빛마을로 떠난 늦가을 추억 여행



늦가을 정취를 찾아 떠난 11월 테마여행지는 사과 향 가득한 경북 영천의 별빛 마을. 11월로 접어들면서 제법 쌀쌀해진 지난 14일 아침,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가족 43명이 기대 반 설레임 반으로 여행길에 올랐다. 이번 여행길에는 부산시립극단 단원 정행심 씨와 무대감독 정순지 씨가 여행 길동무로 함께 자리했다.

영천으로 가는 길, 눈이 시리도록 붉은 단풍과 노란 은행잎으로 뒤덮인 차창 너머 풍경에 정기회원들은 연신 탄성을 자아냈다.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늦가을 정취에 감탄하다 보니 어느새 버스는 영천에 도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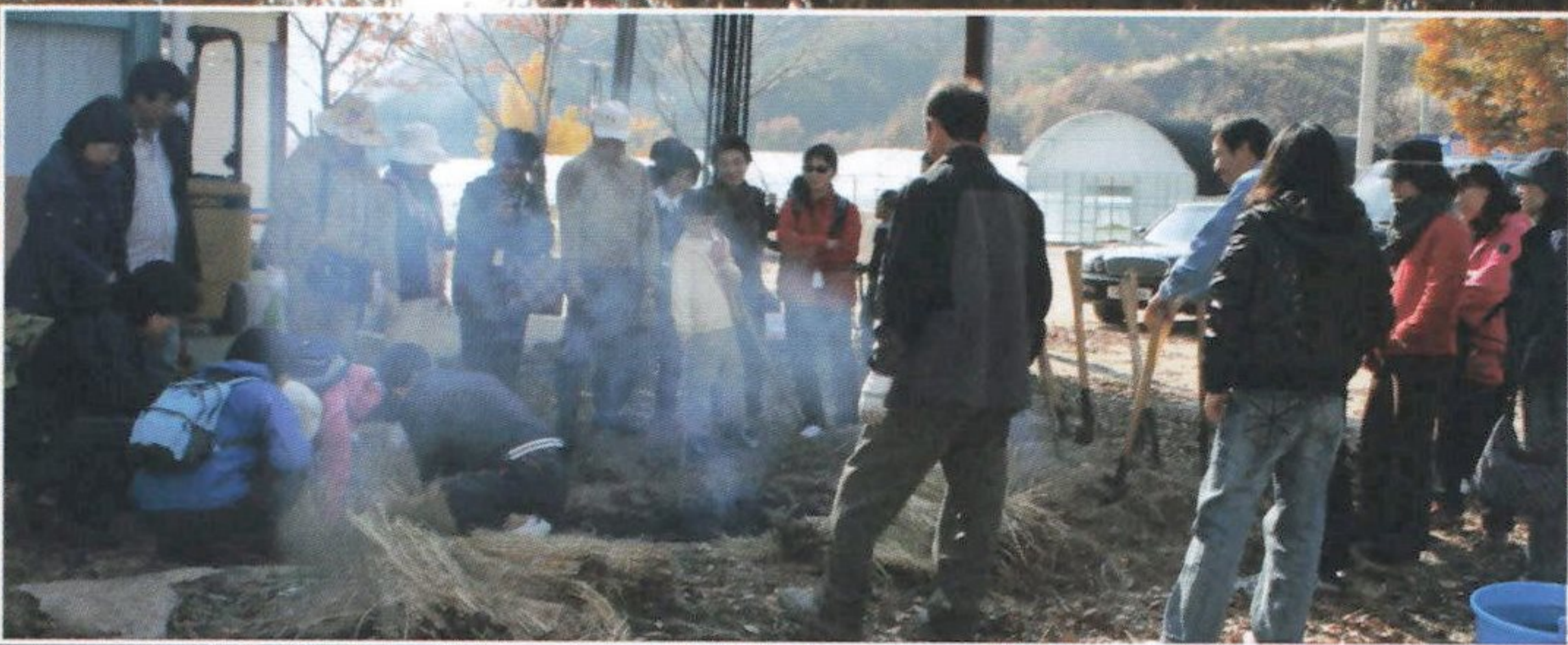
오늘 여행의 첫 방문지는 영천 전통염색교육관. 이 곳은 영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다양한 천연재료를 이용한 전통염색 체험을 경험해 볼 수 있다. 이 날 정기회원 가족들이 체험한 염색 재료는 보라색 빛깔이 너무나 아름다운 자초. 자주색을 띠다 하여 부쳐진 자초는 야산에 자라는 여러해살이 풀로, 해열제, 강심제, 해독제로도 쓰이는 약초이다. 알콜에 우려내어 온수로 희석시킨 자초용액에 준비된 탁상보를 넣고 주무르

다 깨끗한 물에 헹구기를 5번 이상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탁상보는 고운 보랏빛을 띠게 된다. 40분 가량 염색체험을 마친 정기회원 가족들은 전통염색교육관에서 마련한 탁상보를 기념선물로 받고 다음 목적지인 정각 별빛마을로 이동했다.

그 이름도 이쁜 정각 별빛마을은 보현산 남쪽에 자리잡은 산골마을이다. 보현산천문대 입구에 있다하여 천문대 마을로도 불리는 별빛마을은 2003년 행정자치부 아름다운마을 가꾸기사업 마을로 선정되면서 계절별 체험마을로 사랑받고 있는데, 특히 보현산 천문대를 이용한 별축제는 해마다 큰 성황을 이루고 있다.

젊은 이장님의 따뜻한 환대 속에 별빛마을에 도착한 정기회원 가족들은 우선 유기농 나물을 넣어 스삭스삭 비벼낸 양푼이 비빔밥으로 출출한 배를 채웠다.

오후에 마련된 프로그램은 감자삼굿구이와 배 따기 체험. 감자삼굿구이는 땅을 파서 한 쪽에는 두시간 이상 달궈진 돌을, 또 한쪽에는 고구마나 감자, 달걀 등을 넣어 흙으로 덮은 후 물을 부어 그 증기로 찌내는 전통조리방법인데, 재료를 익히는데만 세 시간 이상이 걸린다고 한다. 나이 드신 회원 몇 분을 제외하



고는 처음 듣고 보는 체험이라 모두들 신기해 한다.

맛있는 간식을 기대하며 이제는 배따기 체험에 나선 회원들은 터덜터덜 걷는 경운기에 몸을 싣고 체험장인 과수원으로 향한다. 여느 과수원과 달리 과수원이 산에 위치해 있었다. 과수원 주인의 넉넉한 인심으로, 30분도 채 못돼 한 주머니 가득 수확(?)한 회원들은 돌아오는 길 영천의 특산물인 사과 과수원에도 들러 새콤달콤 사과 맛도 보면서 하루종일 풍성한 먹거리에 신나한다.

감자삼굿구이를 기다리며 가진 부산시립예술단 단원과의 만남. 양희경 씨의 작품으로 유명한 모노드라마 '늙은 창녀의 노래'가 부산시립극단 정행심 씨의 구수한 사투리와 농익은 연기, 절묘한 애드리브로 정기회원 가족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공연이 끝나자마자 달려간 곳은 삼굿구이를 하는 마당 한 칸. 정기회원 가족 모두의 기대 속에 덮은 흙을 조심스레 거둬내지만, 이 런!! 넣어두었던 재료가 다 익지 않아 실패!! 미안해하는 이장님과 이웃 주민을 위해 아쉬움은 뒤로 밀쳐두고 부산으로 향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가진 산골마을에서의 하루는 정기회원 가족들에게 소중한 기억으로 오랫동안 남을 것이다.

- 협찬 : (주)레임투어편

※ 2009년 1월 의병의 고장 **의령**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 엽서를 부산문화회관 홍보부로 보내주시요.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감 12월 15일)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12월 테마여행 당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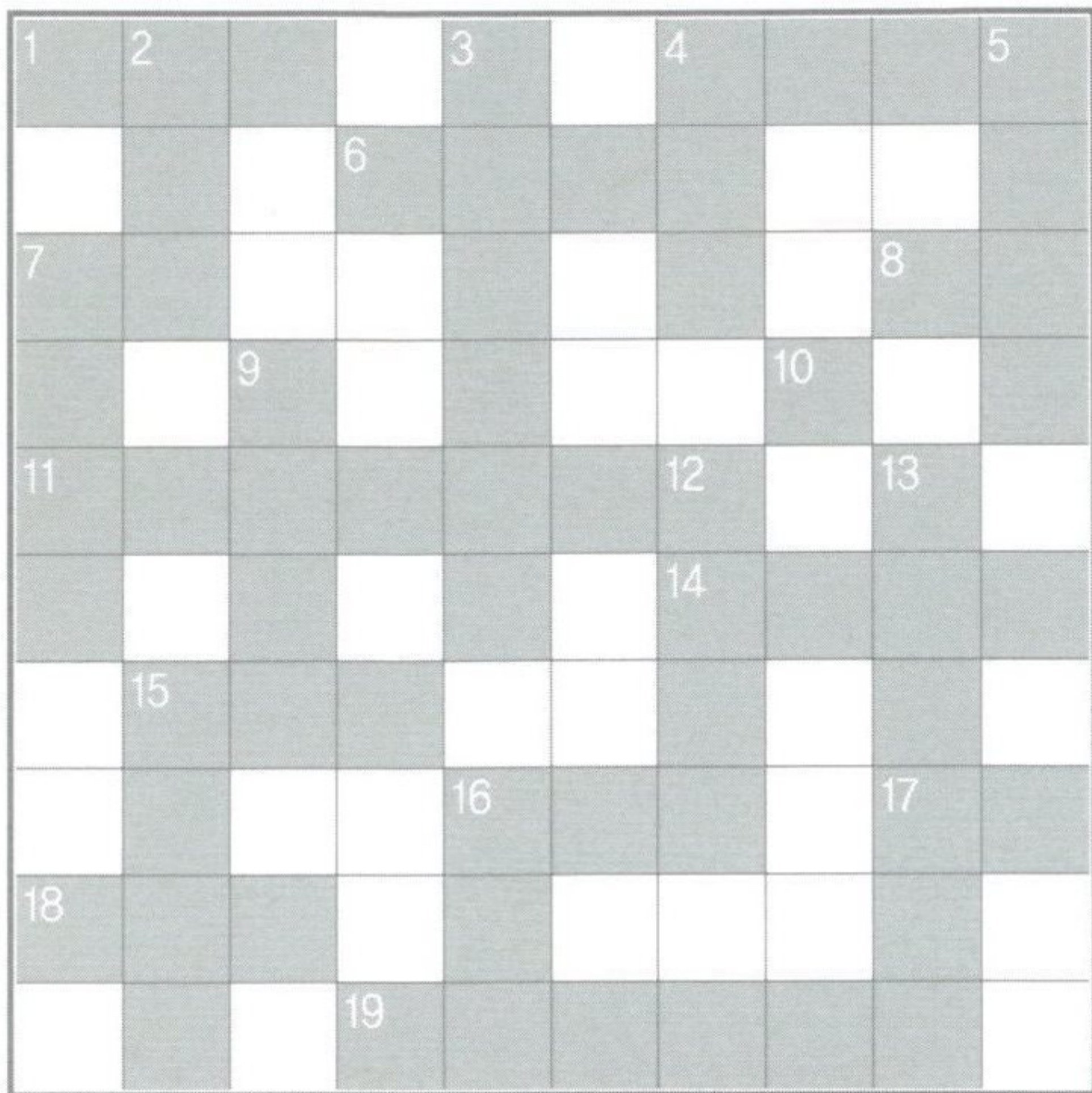
신규가입자

나춘선(사하구 하단2동)
김상섭(부산진구 당감4동)
송정업(사상구 주례2동)
김성득(부산진구 범천2동)
전금옥(수영구 망미1동)
최창식(남구 용호1동)
최미화(해운대구 좌동)
김주성(남구 용당동)
백미정(해운대구 우1동)
정미숙(금정구 장전동)

엽서 당첨자

조은숙(사하구 신평동)
김백운(수영구 광안3동)
박미혜(해운대구 우2동)
하윤재(서구 동대신동2가)
문용호(북구 화명동)
황인숙(부산진구 연지동)
최현구(남구 용호3동)
제수부(해운대구 좌동)
김동임(북구 화명1동)
정기모(기장군 기장읍)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가로

- 12월 6일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 기념공연으로, 파페라의 제왕 알렉산드로 사피나와 함께 부산을 찾는 세계적인 소프라노.
- 고대 그리스 작가 OO의 작품이라고 전해지는 우화집. 동물을 주인공으로 도덕과 처세술을 풍자적으로 제시했다.
- 일제 강점기인 1926년 8월 우리나라 최초의 소프라노 윤심덕이 발표한 음반이자 이 음반의 타이틀곡. 요시프 이바노비치의 '다뉴브강의 잔물결'을 변안한 곡으로, 흔히 우리나라 대중가요의 효시로 보는 경우가 많다.
- 노래로서의 정악(正樂). 가곡, 가사, 시조가 이에 속한다.

- 연극이나 연주 따위의 첫 번째 공연.
- 2009년은 기축년(己丑年) O띠의 해.
- 1960년대까지 브라질의 수도였으며, 자연미와 인공미의 조화로 세계 3대 미항(美港) 중 한 곳으로 꼽힌다. 시가지 바로 뒤에 있는 높이 약 700m의 코르코바도 암봉(岩峰) 꼭대기에는 이 도시의 상징인 39.6m의 그리스도상(像)이 세워져 있다.
-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이라는 순 우리말.
- 우리나라 가장 남쪽에 있는 섬. 네덜란드 하멜 일행이 표류하여 도착한 곳으로 유명하다.
- 세계 각국의 경찰이 서로 협력하여 국제적인 형사범죄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만든 국제기관. 1923년 창립되었으며, 주로 범죄정보의 교환과 수사의 원조 등을 임무로 한다.
- 남자무당
- '은하수'의 순 우리말.
- 올해로 개관 20주년을 맞은 부산문화의 본당.

세로

- 판소리 열두 마당의 하나. 고대 소설 '토끼전'을 바탕으로 한 판소리로, 토끼와 자라의 행동을 통하여 인간을 풍자한 내용이다.
- 갓낳은 아기를 목졸라 죽인 수녀라는 충격적인 소재를 다룬 연극. 국내에서는 실험극장이 1983년 초연무대를 가져 최장기 공연과 최다 관객동원을 기록했다.
- 본명 이의경(李儀景). 한국을 배경으로 동양문화의 전통과 풍습을 주제로 한 작품을 쓴 재독교포작가. 1946년 대표작인 '압록강은 흐른다'가 독일에서 발간되어 전후 독일문단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며 독일 교과서에 실리기도 했다. 최근 그의 일대기가 드라마로 방영되어 화제가 되었다.
- 2000년 칸느영화제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왕가위 감독, 양조위, 장만옥 주연의 영화로 제목인 OOOO는 '사람의 가장 황금기 시절'을 뜻한다.
- 정명화(첼로), 정경화(바이올린), 정명훈(피아노) 등 세 남매로 구성된 트리오.
- 계모와 계모의 딸들에게 구박을 받던 주인공이 궁중 무도회에 참석했다가 그 곳에서 잃어버린 유리구두 한 짝이 인연이 되어 왕자와 결혼하게 된다는 동화 속 주인공.
- 조운석으로 이루어진 1인조 밴드로, 서정적인 포크 선율과 따뜻하고 아름다운 가사로 사랑받고 있다. 12월 24일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 기념공연으로 부산을 찾는다.
-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국립미술박물관. 본래 왕궁이었던 것을 나폴레옹 1세가 박물관으로 개장했다. 고대 이집트와 그리스, 로마의 미술품과 중세에서 현대에 이르는 회화, 조각 등 다양한 예술품을 소장하고 있다.
- 스페인의 수도.
- 산 전체가 화강암으로 구성된 서울의 진산(鎭山). 경치가 아름다워 이를 배경으로 한 산수화가 많은데, 특히 정선의 '인왕제색도'가 널리 알려져 있다.

지난호 정답

불	가	불	가	팬	메	세	나
혹		마	추	픽	추		팔
	오	르	골		풍	산	개
	페		대	통	령		그
마	라	톤	만		숨		
	의	아	당	구		팡	세
이	유	없	는	반	항		죄
	령	여	포	기	와	베	스
추	한	자				벌	피
신	윤	복	폴	뉴	먼		송
							어

퍼즐 당첨자 명단

■ 큰집

- 우정렬(중구 보수동1가)
- 이소희(해운대구 우1동)
- 김태숙(사상구 학장동)
- 정해주(동구 초량2동)
- 임옥선(부산진구 전포2동)

■ 가마골 소극장

- 이준식(해운대구 우2동)
- 이규(남구 용호1동)
- 추현정(부산진구 연지동)
- 김유미(해운대구 반송1동)
- 정윤희(금정구 남산동)

■ 나랏소

- 김병수(남구 감만1동)
- 금보라(수영구 망미1동)
- 김우림(남구 대연6동)
- 유대원(남구 대연5동)
- 김혜정(남구 용호3동)

■ 동보서적

- 남미경(남구 감만동)
- 황진희(사상구 학장동)
- 조남규(사상구 감전동)
- 성영민(동래구 칠산동)
- 허영진(사상구 엄궁동)

그리움이 있는 곳에
늘 고향이 있습니다

韓國傳統飲食店

큰 집

예약. 051-245-3320
업무. 051-255-4547

◆ 예약을 하시면 특별찬(샐러드, 죽)을 제공해 드립니다.
◆ 큰집은 광복로 국제시장에 있습니다.

날마다 연극축제가 열리는 곳
부산에는 가마골소극장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연극의 산실

가마골소극장

(051) 245-0042 www.kamagol.co.kr

최고급 부산민속 공연장

나랏소

한우 숫불구이 고향 전통밥

TEL.051-628-8814
대연동
시티원골프연습장 입구

부산문화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동보서적 1층 안내에서
각종 공연 티켓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동보서적

◆ 도서안내 : 803-8000 • 단체납품 : 804-6391
◆ www.dongbobooks.com

- 보내실 곳/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상품이 반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꼭 적어 2008년 12월 15일까지 보내주시시오.)
- 문의/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 기념 및
부산시립합창단 송년음악회



부산시립합창단 제27회 정기연주회
Busan City Chorus

부산시립합창단과 부산시립교향악단이 함께하는 2008 송년음악회

Lovely Crossover & Cinemamusic

지휘·해설 김 강 규
(예술 감독 및 수석지휘자)



2008. 12.11(목) 19: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찾아가는 음악회

2008. 12.12(금) 19:3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2008. 12.16(금) 19: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테너 김영환
드럼 김진훈
베이스 기타 강주현

부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교향악단

공연프로그램

제 1 부 (Lovely Crossover & Happy Christmas!) · 운명(베토벤) · 인연 · Danny Boy · You Raise me up · Time to say Good-bye · 재즈 할렘루아 아카펠라 · Feliz Navidad · O Holy Night · Jingle Bells · Adeste Fidelis
제 2 부 (Cinema music) · Exodus · Don't cry for me Argentina · Nella fantasia (Ennio Morricone) · On earth as it is in Heaven (Ennio Morricone) · Mamma Mia! · I have a Dream · The Winner takes it all · Dancing Queen · Mamma Mia

관람료 R석 10,000원 S석 7,000원 A석 5,000원

문의 부산시립예술단홍보부 607-6070 부산시립합창단 607-6125 www.bschorus.or.kr

예매 부산문화회관홈페이지 www.bsculture.busan.kr ticketlink www.ticketlink.co.kr 콜센터(1588-7890)

부산이 꿈꾸는 내일, 부산도시공사가 함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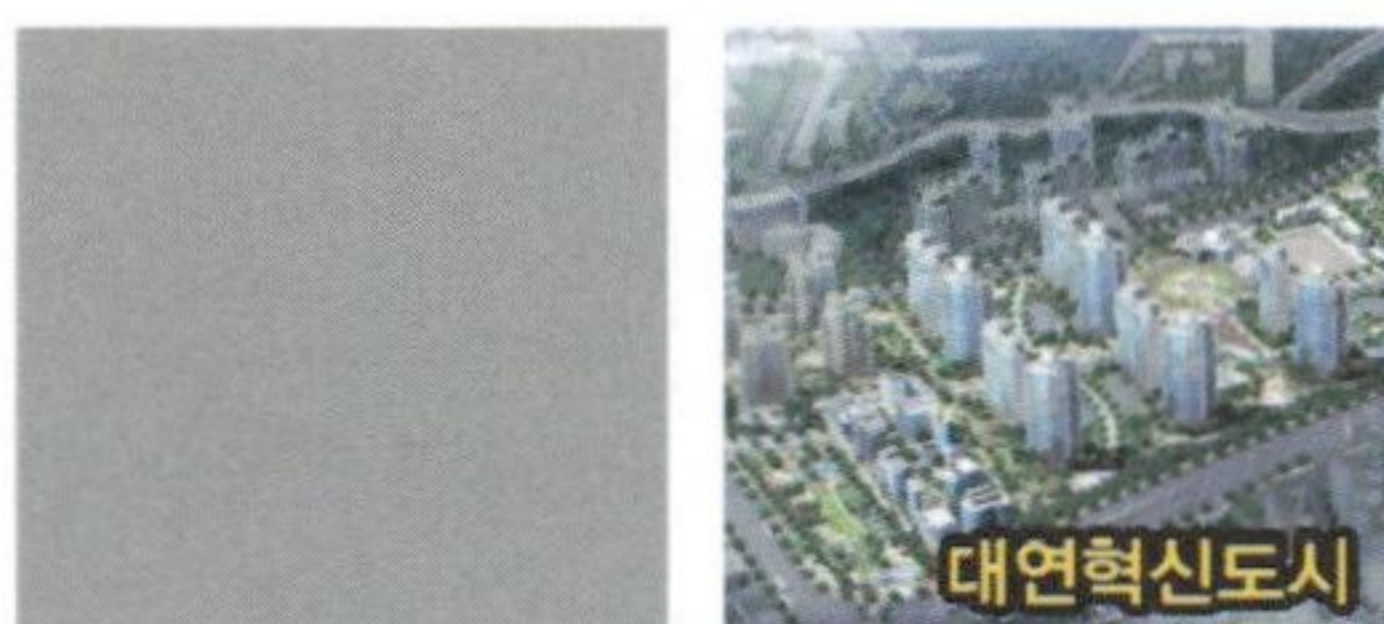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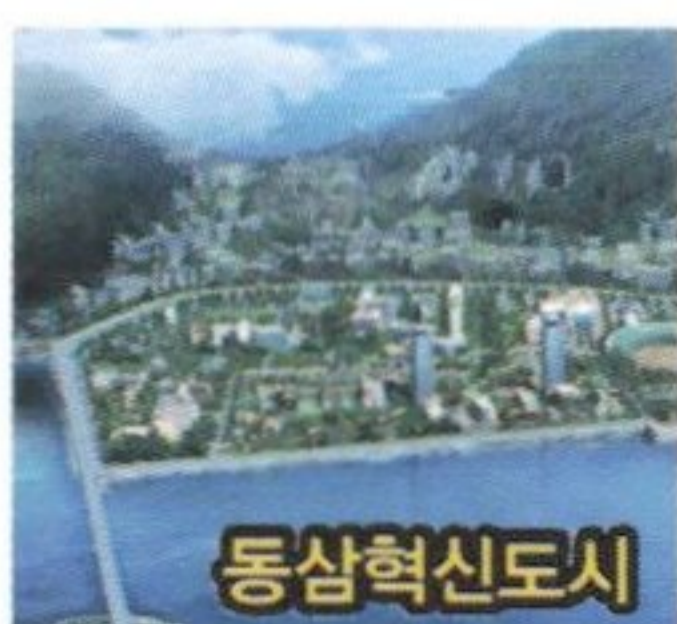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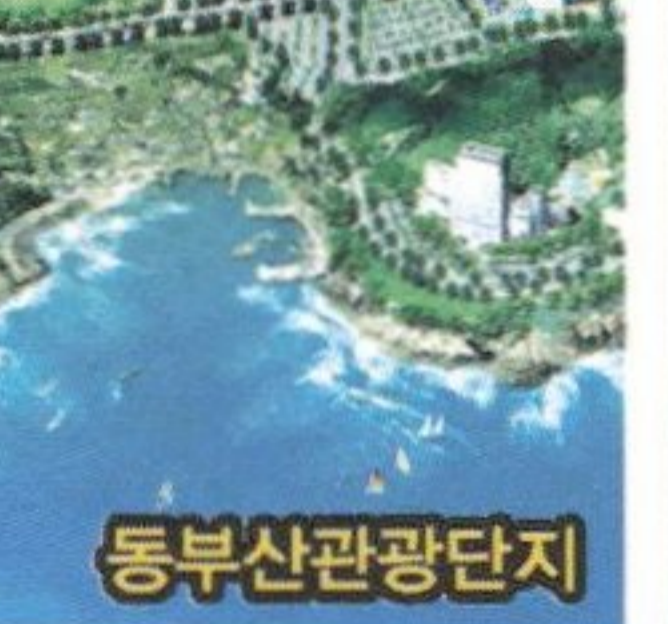
동부산 관광단지, 해운대 관광리조트, 금융·해양·영상 혁신도시...
모두가 꿈꾸는 부산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부산도시공사가 부산의 내일을 꿈꾸게 합니다.



신항배후부지

장안산업단지



BMC 부산의 가치를 키우는 기업 -
부산도시공사

부산문화회관 20주년 기념 정기회원 특별혜택

해외여행비 3%할인받자!!

* 하나투어예약센터 Hi!하나로 예약확정 하실 때 특별혜택을 드립니다.
* 전국 대표전화 051) 442-1271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부산문화회관 테마여행 협찬사 Hi!하나 www.hihana.co.kr NAVER 하이하나

중국 전통 온천여행

중국온천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여행



장보고를 찾아서 웨이하이 (천목온천) 3일
CNP731 649,000원~



중국 2대 古都 북경/서안/황궁온천 5일
CNP799 899,000원~



천개의 아름다운 호수 항주/황산 (취온천) 5일
CCP743 959,000원~

인도차이나 문화여행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 속으로 떠나는 여행



과거와 현재가 공존 베트남 북부/하롱베이/닌빈 5일
AVP710 799,000원~



베트남 판티엣 무이네/호치민 5일
AVP721 87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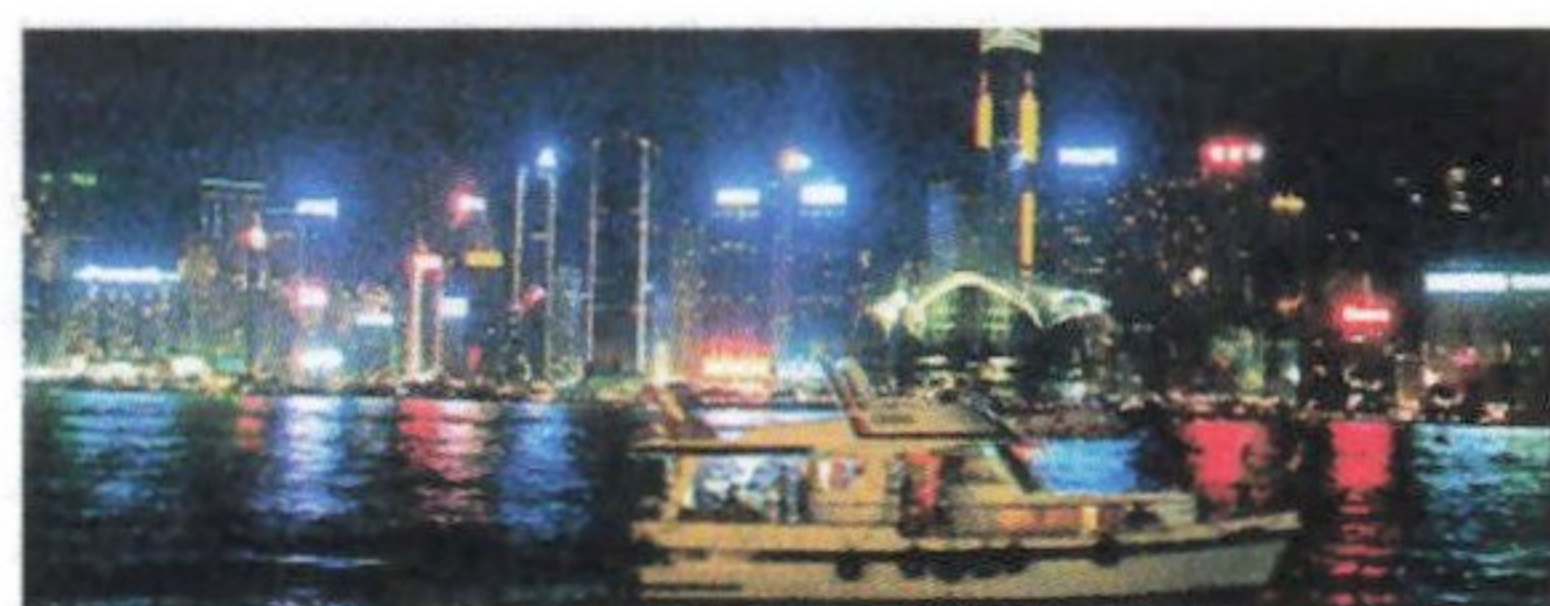
신들의 도시 캄보디아 (양코르왓) 5일
AVP731 979,000원~

홍콩 윈터 축제여행

보고, 체험하고, 즐길 거리가 가득한 여행



담당자 추천 홍콩+마담투소 3박5일
AHP701 659,000원~



욕심쟁이형을 위한 홍콩 마카오 심천 4일, 5일
AHP704 899,000원~



백만불 야경 상해/홍콩 5일 - NO VISA!
CCP757 899,000원~

하이하나 5%할인여행

담당자가 5%할인으로 지르는 겁없는 여행



착한 가격으로~ Oh, My 시드니&골드 코스트 6일
PAP741 2,090,000원~



판타스 항공 호주/뉴질랜드 남북섬 10일
PAP745 2,490,000원~



대한항공 호주/뉴질랜드 남북섬 10일
PAP745 2,890,000원~

우리가 모였다!

4년 후 당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① 노태정 교수 (삼성중공업 기계전자연구소 수석연구원 경력) ② 유승관 교수 (University of Southern Illinois 언론학박사) ③ 신원 교수 ((주)안철수 연구소 선임연구원 경력)
 ④ 신태송 교수 (Technical University of Berlin 공학박사) ⑤ 이준연 교수 (한국마이크로소프트 경력) ⑥ 안형근 교수 (삼성전자(주) LSI연구소 수석연구원 경력) ⑦ 최대우 교수 (ETRI 교향전소연구소 ATM 연구부 책임자 경력) ⑧ 김형곤 교수 (서울대학교 언론학박사) ⑨ 홍영진 교수 (SUNY at Stony Brook 공학박사) ⑩ 이강혁 교수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언어학박사) ⑪ 김덕술 교수 (오사카대학교 공학박사) ⑫ 장미옥 교수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교육학박사)
 ⑬ 이동훈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경력)

당신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는 대학 **동명대학교**

취업과 진로를 보장하는 실용교육 시스템

TU 멘토링이란?

동명대학교 전임교수 1분이 10여 명의 학생들을 전담하여 취업 때까지 책임 지도하는 인재양성 프로그램으로, 대학생활과 진로상담은 물론 졸업 후 지도까지 받아 높은 취업성과를 거두는 실용교육 시스템입니다.

- ▶ 입학때부터 취업까지 책임지도하는 TU 멘토링 제도
- ▶ 실무를 익히며 학점까지 취득하는 기업 인턴쉽 제도
- ▶ 맞춤형 실무 조기교육을 위한 국내·외 기업 산학협력
- ▶ 실용과 취업중심의 정보를 교류하는 합숙형 취업캠프

동명대학교 2009학년도

- ▶ 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실시)
2008. 12. 19. (금) ~ 12. 24. (수)
- ▶ "가, 나, 다"군 실시



동명대학교
TONGMYONG UNIVERSITY

608-711 부산시 남구 신선로 179번지
TEL : 051) 629-1111 FAX : 051) 629-0789

www.tu.ac.kr

부산시립예술단원들과 함께 떠나는
품격높은 테마여행의 행운 놓치지 마세요.



▶ 2009년 1월 9일(금) 호국 충의의 고장 의령

임진왜란 당시 최초로 의병을 일으켜 왜군을 무찌른 홍의장군 곽재우의 정신이 살아있는 충의의 고장 의령으로 떠나는 겨울여행.

- ▷ 08:30 부산문화회관 출발
- ▷ 10:00 의령 농촌체험교육장 도착, 농촌체험(망개떡 만들기)
- ▷ 12:00 중식
- ▷ 13:00 광망우당(곽재우) 생가-이병철 생가-정암진-충의사 답사
- ▷ 17:00 부산으로 출발



▶ 2009년 2월 13일(금) 사천 다솔사 및 비봉내 마을

추위로 지친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사천 대나무 마을 비봉내에서 즐기는 건강체험. 우리에게 편안한 휴식을 주는 대나무의 다양한 효능을 배워본다.

- ▷ 08:00 부산문화회관 출발
- ▷ 10:00 사천 비봉내마을 도착, 대나무 숲 산책 및 대잎차, 대나무비누 만들기 체험
- ▷ 12:00 중식
- ▷ 13:00 다솔사 탐방
- ▷ 14:00 비토섬 이동, 굴 구워먹기
- ▷ 16:0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 17:00 부산으로 출발

※ 체험비는 참가자 부담입니다.

■ 테마여행 응모방법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습니다.

〈예술에의 초대〉에 있는 응모엽서를 작성하여 12월 15일까지 보내주십시오.

※ 한달동안 신규가입한 회원 중에서도 10명을 추첨, 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주)레임 투어편(1544-25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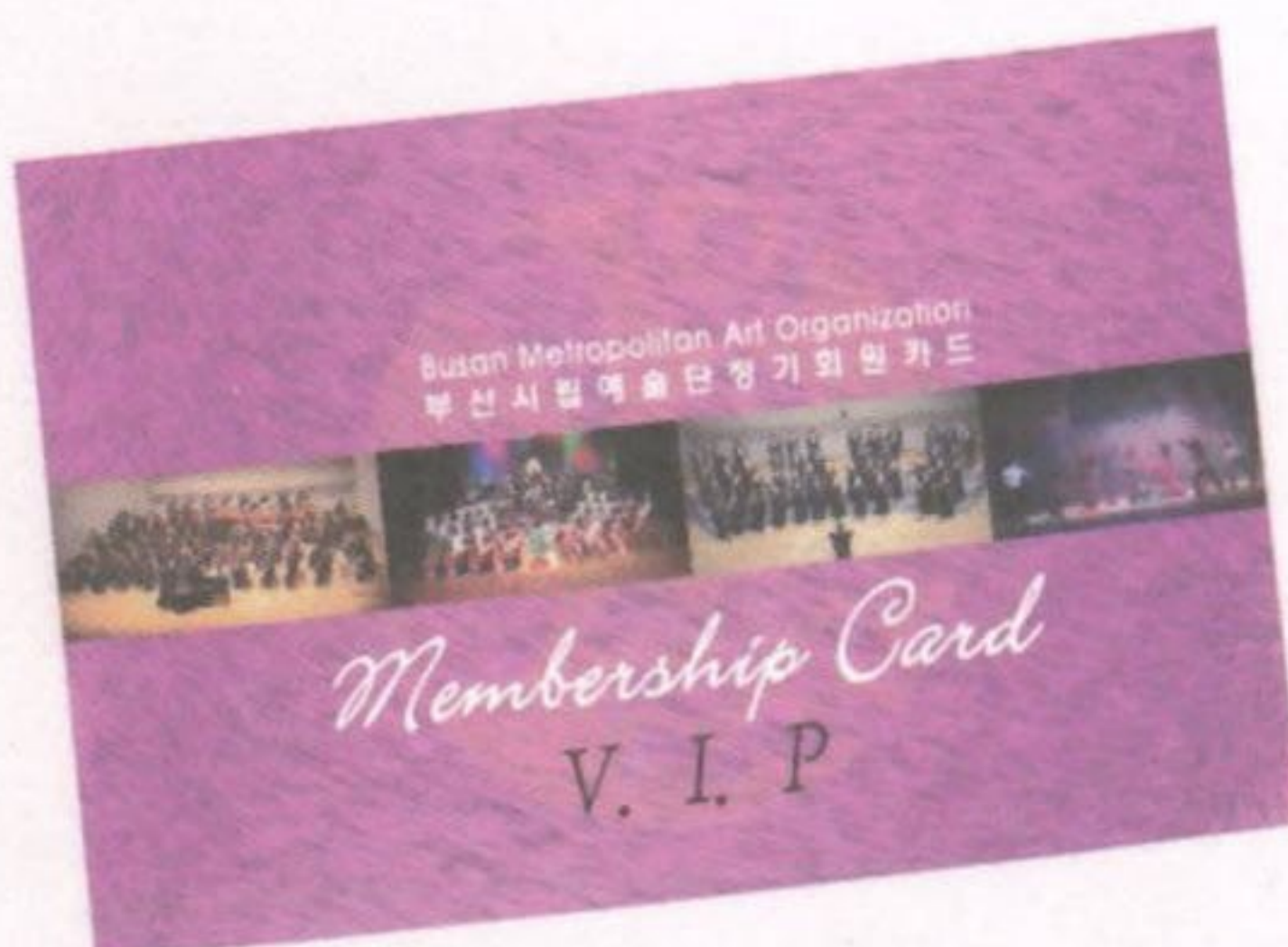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가입안내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에 가입하시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공연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VIP 회원 1년제 10회 관람 100,000원

일반회원 1년제 5회 관람 25,000원 10회 관람 45,000원

(청소년 푸른회원 20% 할인, 장애인·경로, 국가유공자 사랑회원 50% 할인)



■ 가입비 납입 은행계좌번호 : 부산은행 036-01-034846-1(예금주 : 부산문화회관)

■ 가입 및 공연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ulture.busan.kr)에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우 편 엽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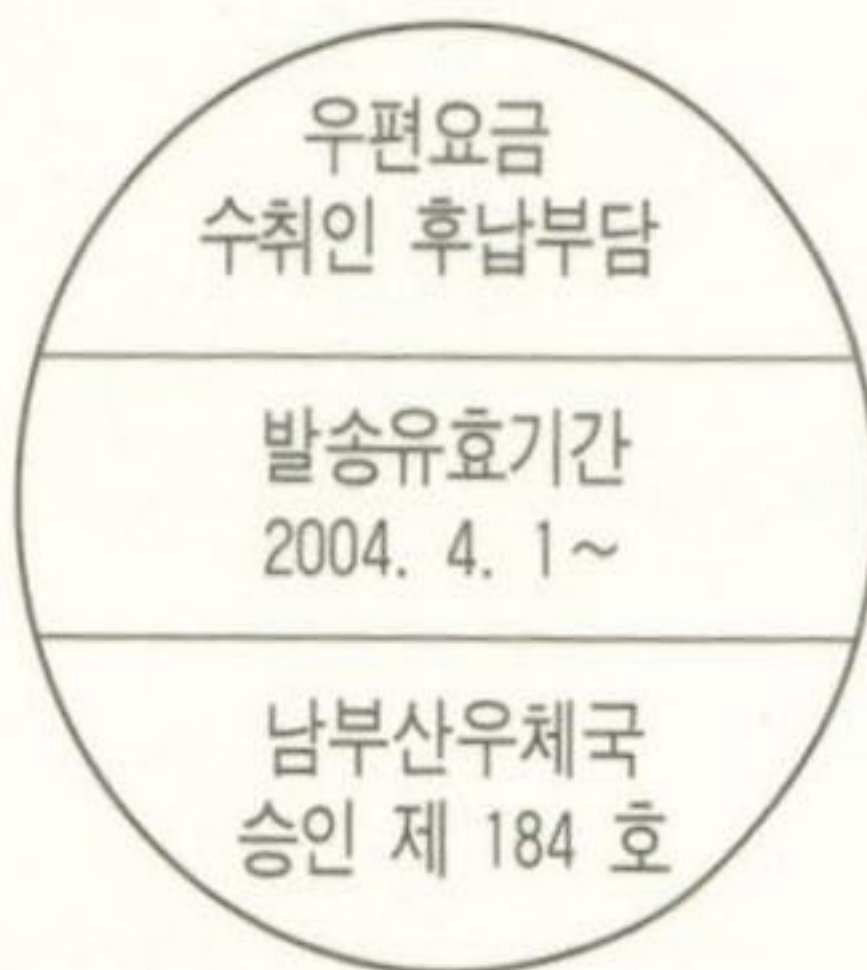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 □ - □ □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의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Since 1981 **philharmony**

식사 · Wine · Beer · 차를 함께 즐기는 편안한 문화 사랑방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림빌딩 2층 ☎ 628-2592

뮤지컬 사랑에 관한 다섯 개의 소묘 **10%** 할인



▶ 날짜 : 2008. 11. 28(금)~12. 31(수)
▶ 시간 : 평 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30, 7:30
일요일 오후 3:00, 6:00
(월요일 공연없음,
12/24, 12/31 오후 7:30, 10:30,
12/25 오후 3:00, 6:00)

▶ 입장권 : 균일 25,000원
▶ 장소 : 가마골 소극장
▶ 문의 및 예매 : 051-245-0042

※ 쿠폰소지회원에게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 □ - □ □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의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세계문화체험 중심

**용두산공원 부산타워
통합입장권 특별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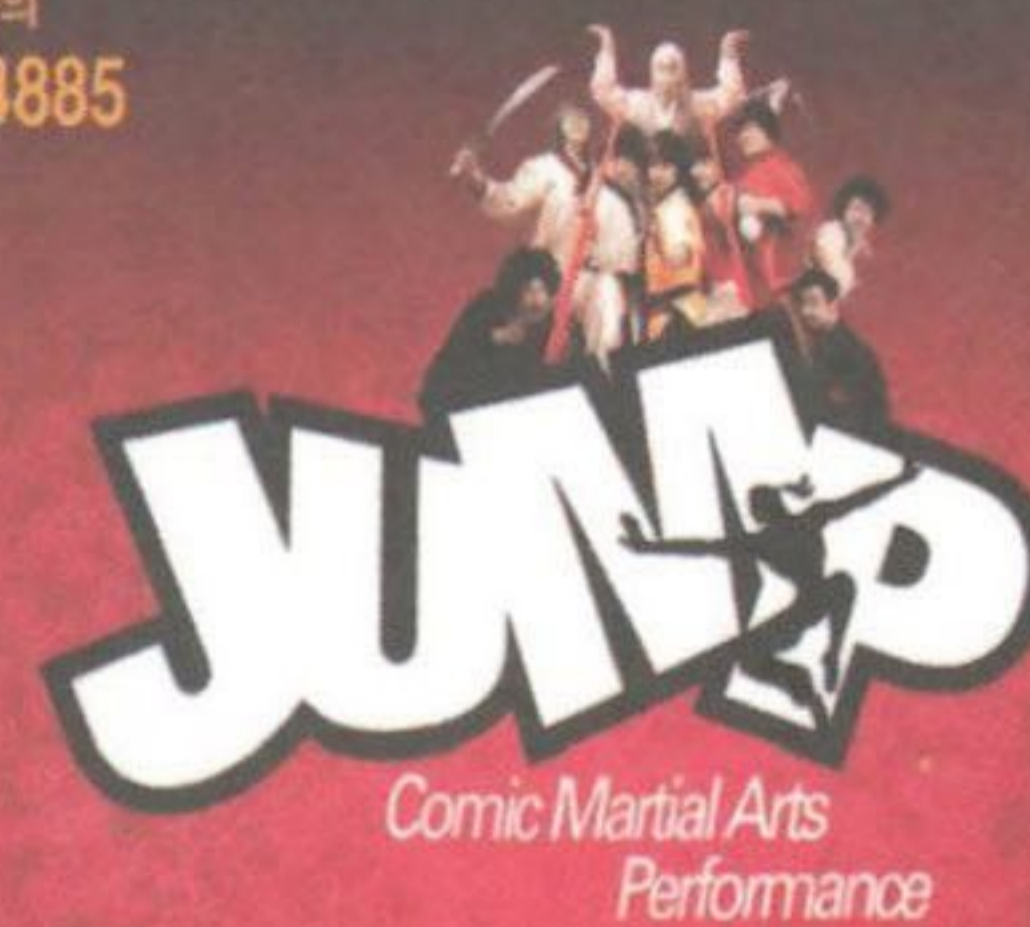
(전망대+세계민속악기 박물관
: 대인 5,500원, 소인 4,500원)

▶ 날짜 : 2008. 10. 1(수)~12. 31(수)
▶ 시간 : 오전 10시~오후 6시
(마지막 입장 오후 5시 30분)

혜택 쿠폰제시시 통합입장권에 한해 1매 2인 까지 20% 할인

부산타워 상담전화 ☎ 245-1066

예매 및 문의
051) 744-4885



점프 20% 할인

화-금요일 20시 / 토요일 16시, 20시 / 일 · 공휴일 15시, 18시
IBK (비오디그랜드호텔 B1) 50,000원(R석) / 40,000원(S석)

*쿠폰제시시 1매 4인까지 할인 가능 *전화 및 현장 예매시 할인 가능 *타 쿠폰, 할인카드 중복사용 불가

www.wendl-lung.co.kr

1910년부터 100여년간 제작된 최상의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
음악의본고장 오스트리아 벤들·룽 피아노

Wendl & Lung



1주 벤들·룽 피아노 코리아
부산시 남구 대연4동 965-8. 문화회관 옆 TEL : 051-441-7474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을 위한 특별한 혜택

“당신의 피부속을 진단해 드립니다”

맛사지 무료체험권

DR ▲ QU

* MBC / SBS / KBS 방송사에서 방영된 놀라운 피부혁명*
여드름 / 기미 / 아토피 / 잔주름 / 검버섯

닥터 ▲ 큐 남천점 Tel. 622-6901

지하철 남천역 4번출구 동해빌딩 4층 * 방문시간 사전 예약제 실시*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46회 정기연주회

USAN PHILHARMONIC ORCHESTRA

부산시립교향악단

2009

심니켄타

코플랜드 보통사람을 위한 팡파레
 번스타인 「캔디드」 서곡
 사라사테 찌고이네르바이젠
 슈트라우스 「트리치-트라치」 폴카
 슈트라우스 「사냥」 폴카
 슈트라우스 「박쥐」 서곡
 로시니 「비단사다리」 서곡
 우종갑 관현악을 위한 환상곡 「오호타령」
 반젤리스 March with Me
 레하르 「미소의 나라」 中 “그대는 나의 모든 것”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제4번 中 제4악장



지휘 · 서현석



바이올린 · 이지화



성악양상블 · The Feel

2009. **1.9** (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 최 _ 부산광역시 후원 _ **FOCUS**
 문 의 _ 부산광역시립예술단 홍보부 607-6070
 부산광역시립교향악단 607-6101~4 www.bsculture.busan.kr
 입장권 _ R석 10,000원 S석 7,000원 A석 5,000원
 예 매 _ 티켓링크 www.ticketlink.co.kr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 기념 기획공연



2008 제야음악회

“가는 해
오는 해”

- 지휘 / 김정택(SBS예술단 단장)
- 협연 / 소프라노 오미선, 테너 박웅
피리 선주희, 소리꾼 박성희
- 특별출연 / 가수 김종환

2008. 12. 31(수) 오후 10: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_ 부산광역시 부산 MBC 부산일보사 주관_ 부산문화회관 문의_ 부산광역시립예술단 홍보부 607-6070 부산문화회관 607-6042, 6057

후원_ Focus 입장권_ R석 50,000원 S석 30,000원 A석 2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단, 홍보부 전화예약 후 입금 회원에 한함) 예매처_ 티켓링크(1588-7890)